

12. 2017 + 0
2017

2018 6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이달의 표지 작가

원덕식



2018년 서울문화재단 예술작품지원 시각예술 분야 선정 작가. 협성대에서 서양화를 전공했다. 느리게 사는 사람들과 호흡을 맞추며 흑백사진 같은 현대사 속 여성의 정체성에 대한 해석과 표현 방법을 고민한다. 그 안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해 질문하며 답을 찾아가는 작업을 하고 있다.



- 1 <내 나이가 어때서?> oil on canvas | 60.6×90.9cm | 2017
- 2 <내 나이가 어때서?> oil on canvas | 60.6×90.9cm | 2016
- 3 <내 나이가 어때서?> oil on canvas | 60.6×90.9cm | 2016
- 4 <내 나이가 어때서?> oil on canvas | 65.1×90.9cm | 2017

표지 작품

<내 나이가 어때서?> oil on canvas | 162.2×130.3cm | 2017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여성들이 있다. 그들은 우리의 어머니일 수도 있고 할머니일 수도 있다. 화려한 도시와는 대조적으로 지친 어둠을 등에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이며, 대지와 태양을 품은 자연과 한껏 씨름하다 허리가 굽은 사람들이기도 하다.

나는 전통적 여성상이라는 가치관에 억압된 채 살아온 여성들에 주목한다. 행간을 읽듯, 켜켜이 쌓인 흔적을 찾아내듯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객관적 이미지와 주관적 이미지의 중첩을 통해 그들의 언어를 찾아내고 해석한다. 우리 시대의 어머니라는 여성상은 낡은 관습에 의한 고착관념으로 이해해야 하는가? 아니면 정작 그들은 욕망의 억압과 결핍 속에서, 여성으로서의 실존의 의미를 용서와 화해와 수용과 안주로 받아들이며 정체성을 찾고 있는가? 이러한 의문의 경계에서 접근하고 있다.

나는 경험적 상식 체계와 그 범주를 넘어서는 타자와의 관계를 무의식의 관계로 동일시하면서 삶과 접목된 욕망과 절제와 꿈을 표현한다. 시대의 변화는 인식과 가치의 변화를 가져오고 존재의식을 확장한다. 어머니상, 여성의 역할이라는 틀에 갇힌 상징성을 벗어나, 사회적 시각에서 주체적인 여성으로서 자유로워야 한다. 그러나 그들의 세상에 대한 해석과 변화는 시대가 묶어놓은 듯 어색하기만 하다.

한(恨) 많은 사연을 가득 품고 사는 그들이 여성의 감성을 표출하면 눈치 없는 사치라고 여겨지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검정고무신 대신 멋진 선글라스와 하이힐 그리고 분홍색 립스틱과 부케를 선물한다. 여성들의 삶을 도돌이표처럼 읽어가며, 존재자가 아닌 존재로서의 의미를 찾아주고 세상과의 연결고리를 능동적으로 재구성한다.

CONTENTS

2018.6
vol.136

한 장의
사진



지난 5월 12~13일 상암동 문화비축기지에서 2018 서울 서커스 페스티벌 <서커스 카바레>가 열렸습니다. 국내외 아티스트들의 환상적인 서커스 공연이 펼쳐졌으며, 시민 대상 서커스 경연대회 '나도 서커스타', 서커스 예술교육 프로그램 '서커스 예술놀이터'도 진행했습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서커스라는 장르를 가까이 느끼고 유쾌하게 체험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사진은 창작그룹 노니의 <지라운드 둥글게 둥글게> 공연 모습입니다.

_ 40~41쪽 '서울 찰나'



서울문화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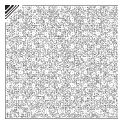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
발행처 (재)서울문화재단
발행인 주철한
편집 총괄 이규승
기획·편집 방유경, 씨네21(주)
객원 편집위원 전민정
디자인·사진 씨네21(주), 조현우

(재)서울문화재단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전화 02-3290-7000
팩스 02-6008-7347
홈페이지 www.sfac.or.kr
웹진 www.sfac.or.kr/munhwaplusseoul
발행일 2018년 5월 30일
등록일 2005년 6월 8일

(재)서울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문화+서울]은 서울에 숨어 있는 문화 욕구와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예술가들의 창조적 힘과 시민들의 일상을 이 어주는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문화+서울]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서울문화재단의 허 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문화+서울]에 실린 기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 01 커버 스토리 이달의 표지 작가, 원덕식
- 04 발행인의 말 주철환의 더다이즘, 스물한 번째

테마 토크

대학로 시대가 열린다

- 08 대학로 청사 이전의 의미와 기획 방향 서울문화재단의 대학로 시대를 준비하다
- 12 서울문화재단 전·현직 대표이사 3인 특별 대담 대학로를 함께 그리다
- 20 서울문화재단 대학로 이전 및 (구)동숭아트센터 리모델링 기획설계를 위한 공청회
더욱 바람직한 문화예술공간을 위한 첫걸음

사람과 사람

- 22 문화인 제37회 국제현대무용제 홍보대사 · 배우 문소리
 - 28 작가의 방 팝아티스트 도파민최
 - 32 진실 혹은 대담 공공극장으로서의 드라마센터 정상화를 위한 연극인 비상대책회의 2차 공개토론회
 - 38 예술가의 밥그릇 '드로잉 핸드' 전숙영 작가
-
- 40 서울 찰나

이슈 & 토픽

- 42 쟁점 백남준의 〈다다익선〉 사후 처리 논의
- 44 화제 1 이 시대의 체인지 메이커, 예술
- 48 화제 2 2018 책의 해

공간, 공감

- 50 공간 1 사각사각플레이스
 - 52 공간 2 세운전자박물관
 - 54 공감 1 공연 〈안은미의 복,한.춤〉과 〈발레 춘향〉
 - 56 공감 2 전시 〈숨 쉬는 돌의 시간〉과 〈Remembered Words〉
 - 58 공감 3 책 〈당선, 합격, 계급〉과 〈양심고백〉, 〈정말 미안하지만,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 60 공감 4 영화 〈원더스트릭〉과 〈트립 투 스페인〉
-
- 62 예술적 상담소

Soul of Seoul

- 64 메모리 인 서울 주화(鑄貨)의 등장
 - 66 서울 단상 유선동 감독의 동부극장과 대능극장
 - 68 고재열의 썬(說) 상암동 7개의 문화블록
 - 70 최은규의 음악 정원으로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 72 서울 건축 읽기 남산 그리고 남산도서관
 - 74 최재훈의 씨니컬(Cine_Col: Cinema Column) 양우석 감독의 〈강철비〉
-
- 76 6월의 서울문화매뉴얼
 - 84 편집 후기

주철환의 더다이즘
스물한 번째

문화는 우리를 쇼 쉬게 한다

웃기는 이야기 하나. 노인이 택시를 탔는데 예술의전당이라는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서 전설의 고향으로 가자고 했더니요. 이 (전설 같은) 이야기는 라디오가 터뜨린 웃음폭탄 중 하나였습니다. 나이 든 기사분이 그 사정을 헤아리고 예술의전당으로 안전하게 모셔드렸다는 결말은 감동의 반전입니다. 우리는 이렇듯 사이 좋게 늙어가는 중입니다.

자동차와 라디오가 동행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이동하며 듣는 라디오에서는 오늘도 노래와 사연이 흘러넘칩니다. 라디오를 차에 장착하는 이 기막힌 아이디어는 누가 처음 구현했을까요? 그 사람이 오늘따라 고맙습니다.

자동차는 오늘도 목적지를 향하지만 차 안을 가득 채운 음악은 추억의 장소로 저를 이끍니다. 중학교 교실로, 수학여행 가던 기차로, 귀대하던 버스 속으로 기억은 부지런히 저를 실어나릅니다. 사이사이로 들리는 사람 냄새 물씬한 이야기는 또 어떤가요. 라디오가 전하는 우리 이웃들의 사연은 행복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음을 깨우쳐줍니다. (혹시 '이웃'은 이야기와 웃음의 줄임말 아닐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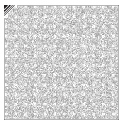
차가 목적지에 도착했으니 이제 업무 애기로 들어갈까요? 강남에 예술의전당이 있다면 강북엔 세종문화회관이 있습니다. 엉뚱한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 강남에 문화의 전당이 있고 강북에 세종에

술회관이 있다면 어떨까요?

별생각을 다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0년 넘게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세종문화회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향을 경희궁로(路)로 틀어서 5분 걸으면 서울예술재단이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서울문화재단과 혼돈할 가능성이 다분한 이름입니다. (실제로 직장이 가까워서 좋겠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문화와 예술은 무슨 관계일까요? 어떤 공통점, 그리고 차이점이 있는 걸까요?

문화와 예술 사이를 오갈 때마다 <삶과 꿈>이라는 얇은 잡지가 생각납니다. 검색해보니 <삶과 꿈>은 '행복한 삶, 아름다운 꿈'을 화두로 평범한 우리 이웃들의 다양한 삶과 꿈을 담아내는 문화생활 교양지입니다. 저는 문득 '삶과 꿈'이라는 간판을 '문화와 예술'로 갈아 끼워봅니다. 어떤 면에서 문화는 삶에 가깝고 예술은 꿈에 가깝습니다.

문화란 무엇인가? 이 난감한 질문에 답하려면 삶이란 무엇인가를 아울러 생각해봐야 합니다. 삶이 무엇인지 어느 누가 쉽게 가르쳐주던가요? 아마도 거의 죽음에 임박해서야 비로소 삶이 무엇인지 어렵פות이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문화란 삶 그 자체이기 때문에 쉽게 정의 내리기 어려운 겁니다. 살아봐야 삶을 알 수 있듯이 겪어봐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삶의 반대쪽에 죽음이 있다면 꿈의 반대편에 현실이 있습니다. 살아 있다는 건 꿈이 있는 것이고 꿈이 있을 때 그 삶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삶이 꿈을 지향하듯 문화는 예술을 향하는 것이고 예술은 문화의 토대 위에서 구현되는 것입니다. 결국, 문화를 통해 우리는 매일매일 숨 쉬는 것이고 예술을 통해 우리는 잃어버린 꿈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세종문화회관이 문을 연 지 40주년이라고 합니다. 세종문화회관은 여러 가지로 저와 가까운 존재입니다. 우선 저는 세종문화회관 이사를 지낸 적도 있습니다. 서울문화재단 대표가 된 후로는 가장 자주 만나게 되는 분 또한 세종문화회관 사장입니다. 서울시의회에 가면 항상 제 왼쪽에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가 앉고 오른쪽에 세종문화회관 사장이 앉습니다.

연보를 보니 세종문화회관은 제가 대학에 입학하던 1974년에 짓기 시작해서 제가 대학을 졸업하던 1978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저의 대학 생활 기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달리 말하면 대학 시절엔 한 번도 그곳에 가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종문화회관이 존재감을 가지려면 먼저 이름값을 해야 합니다. 서울문화재단에서 서울을 뺄 수 없듯이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세종을 지울 수 없습니다. 세종이 누구입니까? 말과 글이 달라서 백성이 고통받을 때 너희는 글자를 몰라도 된다고 무시했습니까?

아니면 한자(漢字)를 열심히 배우라고 권고했습니까? 과감하고 대담하게도 새로운 글자를 만들자 제안하고 실천에 옮겨 성공한 군주입니다. 그분 혼자 다 했습니까? 궁중에 있던 집현전을 명실상부한 연구기관으로 확대 개편하여 당대의 유능한 학자들을 두루두루 불러모았습니다. 함께 토의하고 꼼꼼히 점검했던 성실파 CEO, 그가 세종입니다. 무리하게 일정을 잡고 속전속결을 추구했습니까? 아닙니다. 혼민정음을 창제하고도 반포하기까지 무려 3년을 숙성시켰습니다. 의견이 다른 무리는 모두 척결했나요? 아닙니다. 그 유명한 '반대의 아이콘' 최만리를 결국 설득시켜 동의를 얻어낸 소통의 전문가였습니다.

세종의 창익, 소통과 문화의 숨결이 어우러져 세종문화회관이 제 몫을 한다면 가까운 거리의 세종임금(동상)도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요? 매일매일 그곳을 지나는 주민의 보폭도 '행복한 삶, 아름다운 꿈'을 향해 조금씩 넓어질 것 같습니다.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주철환

대학로 시대가 열린다

2004년 출범 이후 지금까지 14년 동안 서울문화재단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예산 규모가 10배나 증가했고, 사업 범위는 창작지원에서 시작해 창작공간, 예술교육, 지역문화, 생활문화 등으로 확대됐으며, 그만큼 문화예술계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졌다. 연차가 누적되고 조직의 규모가 커질수록 관료화되지 않는, 살아 숨 쉬는 문화현장으로서의 역할을 고민했고, 대학로 청사 이전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올해 1월 동숭아트센터 매매계약을 완료한 재단은 2019년 5월 리모델링 및 증축 공사 착공을 앞두고 사전 준비에 한창이다. 문화예술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건축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으며 대학로 시대 설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연극의 메카이자 대학의 거리인 대학로 특유의 소박하고 정겨운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며, 현장 주체들과 끊임 없이 소통하고 다양한 주체들이 모일 수 있는 경계 없는 공유 창작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서울문화재단의 큰 꿈을 지켜보자.





그림 버닝피치

아르코 미술관

마로니에 공원



대학로 청사 이전의 의미와 기획 방향

서울문화재단의 대학로 시대를 준비하다

서울문화재단이 대학로 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는 2019년은 재단 창립 15주년이 되는 해이다. 사람으로 치면 유년기를 지나 에너지 넘치는 청년기의 절정으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대학로 이전은 단순한 청사 이전이나 문화 프로젝트 이상의 의미를 띠는, 서울문화재단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다.

문화재단이기 때문에...

사람(자연인이든 법인이든)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평소에는 그냥 잊고 살다가 소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되돌아보게 한다. 그 당연한 것을 법의 문구로 명확하게 확인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다. 500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 취득에 따른 세금 감면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그와 같이 문화재단의 제도상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결정적인 순간 중 하나였다. 구청 세무 담당자도 서울문화재단이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출연받는 기관이므로 취득세 50%를 감면받는다는 데 쉽게 합의했다. 하지만 국가가 설립을

허가한 문화예술 법인이기 때문에 85% 감면 대상이라는 데는 재단 고문 변호사의 의견까지 필요했다. 결론적으로 재단의 고유 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1년 안에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한다면 취득세의 85%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처럼 재단 청사의 대학로 이전과 기본재산 처분은 서울문화재단의 독특한 정체성과 연결된 문제이다.

기관 경영 차원의 이슈

대학로 이전은 재단이라는 비영리 법인체의 경영 토대인 '기본재산'의 효율적인 운용에 관한 문제로 시작되었다. 서울문화재단의 기본재산은 2004년 재단 설립 이전에 조성되어 있던 서울시문예진흥기금(300억 원), 총 1,000억 원을 한도액으로 명시한 조례에 근거하여 서울시가 추가로 출연한 출연금(500억 원), 그리고 기부금 등으로 조성된 것이다. 2012년에는 최대 1,275억 원까지 현금이 누적되기도 했다. 서울시의 재정이 악화되면서 2011년에는 '일시적으로' 출연금을 대신하여 기본재산 원금을 재단의 문화사업 예산으로 사용했다. 하지만 이후 기본재산 원금 사용이 매년 문화재단 예산 편성의 기본 기조로 지속되어, 누군가가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2022년쯤 완전 고갈될 상황에 이르렀다.¹⁾ 문화재단 기본재산의 은행 예치 금리가 서울시가 은행으로부터 빌려 쓰는 차입금의 금리보다 낮으니, 먼저 기본재산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예산 편성'의 논리를 반박할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 기본재산의 '정책적 의미' ■

서울시 출연금
500억 원(청사 118억 원 별도)

기부금, 순세계잉여금
560억 원(우리은행 400억 원 및 기타 기부금 등)

문예진흥기금
300억 원(2004년 설립 시 출연)

서울시의 문화정책 의지

재단의 자율적, 창의적 경영 토대



지역문화정책의 구조 차원의 이슈

이런 상황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문화재단 중심으로 펼쳐지는 지역문화정책의 구조적인 이슈로 파악할 수도 있다. 서울시 예산 편성 담당자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서울문화재단은 기본재산이 문화도시의 정책적 의지, 국가의 지역문화진흥의 책무, 민간 전문기구의 자율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 보전되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단순히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내세우는 명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국 지역문화재단들의 정체성과 당면 이슈를 반영한 주장이었다.

서울문화재단은 재정적 실효성 없이 소진되는 현금 기본재산을 부동산으로 치환하여 정책적 의미를 보전하는 전략을 택했다. 2013년에는 공간 사옥 매입을, 2014년에는 TBS 교통방송 건물의 서울시 출연을, 2015년부터는 대학로의 건물 매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대학로의 공연예술을 지원할 공공 인프라 보강을 고려하던 서울시의 시책과도 부합하는 데다 매매 의향도 확인되어 동숭아트센터를 매입했다.

동숭아트센터를 서울문화재단의 기본재산으로 매입하는 것은 서울시와 서울시회의의 동의를 전제로 진행되는 일이지만, 시 출연금 예산을 활용한 시책사업과 비교하면 재단 의사 결정의 자율성의 폭이 상대적으로 넓다. 대학로 이전은 단순한 청사 이전이 아니라 재단이 주도적으로 결정한 커다란 문화사업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기본재산의 출처와 성격으로도 대변되는 문화재단의 정체성, 즉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기관 운영에 근거한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지역문화정책 주체로서의 행보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15년 차 문화재단의 새로운 출발점

지금의 용두동 청사는 이명박 시장 시절에 성북상수도사업소를 리모델링한 것이다. 오세훈 시장 시절에는 서울시 창작공간들이 서울 곳곳에 만들어졌는데, 현재 서울문화재단의 활동 거점은 용두동 청사 이외에도 서울 전역에 총 19곳이 있다.

지역문화진흥법 시행 이후 국가의 지역문화진흥정책도 문화재단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2004년 재단 출범 이후 2018년까지 14년 동안 예산 규모는 141억 원에서 1,457억 원으로 10배나 증가했다. 연차가 누적되고 예산 규모가 늘어난 만큼 조직이 관료화되지 않으려면, 현장 주체들과의 소통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확대된 예산 규모만큼이나 문화재단이 만나야 할 주체들도 창작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예술가들뿐만 아니라 예술가교사(TA), 생활문화매개자(FA), 자치구 문화재단 등 매우 다양해졌다. 그러하기에 접근성이 낮은 청계9가의 교통 망지에 위치한 용두동 청사는 2019년 창립 15주년을 맞이하는 서울문화재단이 다시 한 번 도약하는 데 있어 큰 걸림돌이었다.

서울문화재단은 창립 10주년 때 이미 다양한 주체들이 접속하여 창조를 위한 에너지를 얻어가고 또 서로의 에너지를 나누는, 소위 <창조적 공유 플랫폼: Creative Plug-in Station>을 지향한다고 천명했다. 대학로 청사 시대를 여는 창립 15주년 때는 이를 물리적으로도 구현할 수 있길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유 플랫폼'이 유행에 편승한 말에 그치지 않도록, 재단의 행정 원리

1) 2017년까지 기본재산 원금 사용액 누적 총계는 478억 원이다. 2016년에 서울시 문화본부와 기본재산 원금 사용을 2019년에 0원으로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1, 2 동숭아트센터 동송홀
3 동숭아트센터 소극장.



와 직원들의 행동 양식도 문화예술의 현장에 맞게 재정비돼야 할 것이다. 개관 10년 차에 접어드는 창작공간들의 운영 전략 재편, 생활문화사업 등의 지역문화정책 영역에서 자치구 문화재단 등 다양한 주체들과의 역할 분담, 15년간 확장해온 재단 사업들의 재구조화 등은 창립 15년 차 서울문화재단에게 주어진 숙제다. 서울문화재단의 에너지가 가장 왕성한 시기에 서울의 문화 중심지인 대학로에서 새 시대를 연다는 것은 앞으로 15년, 30년을 내다볼 때 더 큰 의미가 있다. 우선 경영 6기부터 준비해온 '서울문화정책의 지역화 전략'을 추진할 플랫폼을 마련함으로써 또 한번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로 청사는 단순한 청사가 아니라 연륜과 함께 숙명적으로 관료화될 수밖에 없는 공공기관의 한계를 극복한 '문화현장'이 될 것이다.

문화재단다운 미래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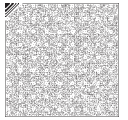
동숭아트센터를 서울문화재단의 대학로 청사로 리모델링하는 건축 프로젝트의 기획은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날인한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6월까지 진행된다. 재단의 기본재산을 사용하기에 서울시 예산을 사용하는 건축 프로젝트보다 조금 더 융통성 있고 창의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우선 예산 규모의 제약에

서 자유롭기 때문에, 좀 더 먼 미래까지 고려할 수 있다. 착공 일정은 취득세 문제로 인해 2019년 5월로 못 박았지만, 충실히 시공되도록 준공 시점도 열어두고 진행한다. 공공기관의 행정 행위를 위한 공청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예술계 그룹들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들과 깊이 연구하는 모임도 20여 차례 가졌다. 넓고 깊게 소통하고 연구하는 모임은 오는 7~8월에 있을 건축설계 공모와 9~12월의 실시설계 과정에서도 이어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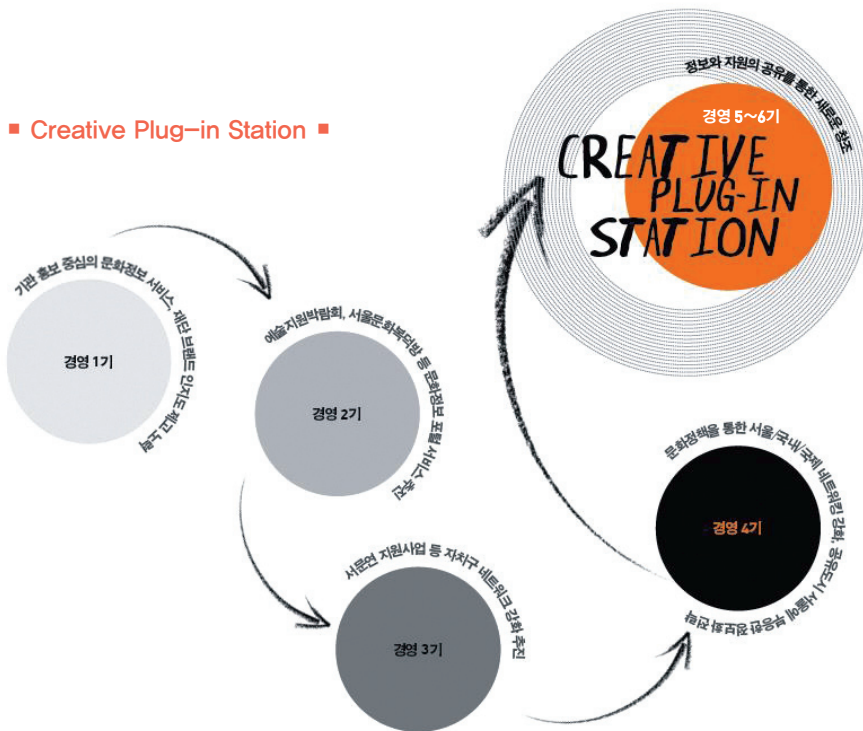
재단 직원들의 대학로시대준비TF도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현직 대표이사과 이사진,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가칭)대학로시대준비위원회는 건축 관련 자문뿐만 아니라 재단 청사 개관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학로 시대 설계를 함께할 예정이다.

대학로 문화의 숲에서 문턱 낮은 공유공간이 되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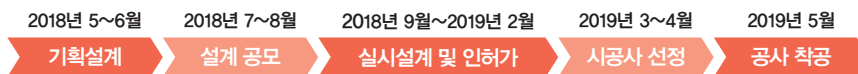
서울문화재단의 기본재산을 부동산으로 전환하여 대학로에 공유 플랫폼을 조성하는 일은 한 기관의 '경영 자산'을 문화예술계



■ Creative Plug-in Station ■



■ 일정 ■



의 ‘공유 자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당초 기본재산의 조성 경과를 고려한다면 사필귀정의 과정이며, 기본재산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다. 말로만 하는 공유가 아니라 사용자에게 불편하지 않은 플랫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천자문>에서 집은 우주(宇宙)였다. 다양한 주체들이 모일 수 있고, 경계 없는 상상이 가능한 집이어야 할 것이다. 영화 <고양이를 부탁해>에서 한순간 무너져 내리는 집은 최소한의 서식처이자 꿈을 찾아 떠날 수 있는 출발점이었다. 정처를 찾는 젊은 예술가들에게는 언제든지 편히 머물다 갈 수 있는 곳이지만, 남의 궁전 같은 느낌을 주는 곳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기획설계를 위한 자문 과정 중에 동숭아트센터 옥상의 밥집을 그리워하는 연극인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었다. 모 기자가 지적했듯 ‘항공모함’ 같은 서울문화재단이 대학로로 들어오는 것에 반발도 있고 기대도 크다. 전국구 정치인의 지역구 집처럼, 서울시 전역을 위한 서울문화재단 사업의 재설계도 좋지만 대학로에 발을 붙이고 있는 이상 대학로라는 독특한 문화집적지에 대한 정책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문화지구라는 제도적 장치의 실효성 제고, 중앙 정부와 지자체 정부 간의 협업 같은 거대한 정책 어젠다가 문화재단의 머릿속에 숙제로 떠오른다면 뭔가를 함께 도모해 움직이도록 하는 깨알 같은 스킨십 프로그램이 현장 예술가들의 마음속에 그려질 것이다.

대학로는 조선시대부터 대학의 거리였다. 서울문화재단이 티 나게 무언가를 새로 할 것이 아니라, 대학로의 에너지만 모아도 ‘스파킹’(SFACing)하는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동숭아트센터의 건축 콘셉트는 1988년 처음 지어질 때부터 놀이터였다. 원래 의도를 살려 미래 세대의 요구까지 수용할 수 있는 놀이터가 된다면 공유 창작 플랫폼으로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해화역 1번 출구에 서면 서울의 문화가 보이고, 서울문화재단 옥상 정원에서 내려다보면 한양도성까지 대학로 문화의 숲이 이어지는, 새로운 대학로의 풍경을 그리며 ‘대학로 시대’를 준비한다.

글 김해보 서울문화재단 경영기획본부장

예술은
우리를
만나게 한다.



대학로를 함께 그리다



2019년은 서울문화재단이 창립된 지 15주년 되는 해다. 지난 2004년 설립된 재단은 그간 양적으로 팽창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업무 영역에 걸쳐 문화예술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 때문에 서울문화재단의 대학로 이전은 단순히 청사를 옮기는 것 이상의 의미를 띤다. 서울의 문화정책을 대표하는 공간이자 문화행정과 예술가들의 접점인 대학로, 서울의 문화 집적지 한가운데로 이동하는 것이다. 이런 문화적 이동이 어떤 큰 그림으로 진행돼야 할지, 전·현직 대표이사 3인이 모여 ‘대학로 시대’를 그려보았다.

일시	2018년 5월 3일(목) 오전 11시~오후 12시 30분
장소	동숭아트센터 4층 회의실
참석자	안호상, 조선희, 주철환
진행	김해보 서울문화재단 경영기획본부장

서울문화재단의 대학로 시대, 어떻게 시작됐나?

주철환 안 대표님은 재임 시, 서울시의 새로운 문화정책 트렌드였던 창작공간 조성을 통해 우리 재단이 서울시 전역에 퍼지게 하셨습니다. 조 대표님은 제가 부임하기 직전 동숭아트센터 매입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만든 장본인이시기도 합니다.(웃음) 저는 현직 대표라 말하기 좀 조심스럽네요. 다른 곳에 자문을 구할 때도 ‘대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신경 쓸 수밖에 없었어요. 전직 대표 두 분이 편하게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조 대표님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단을 이전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며, 왜 하필 동숭아트센터인가요? 그 생각을 들어보아야 우리가 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희 용두동이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 문화소의 지역이잖아

요. 그런 곳에 재단 청사가 있고요. 자문위원회나 심사위원회, 이사회 등을 개최할 때 처음 찾아오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접근성에 분명히 문제가 있죠. 그게 가장 불편했습니다. 여러 행사를 할 때 항상 남산예술센터나 시민청, 연극센터로 나와야 하니 몸과 머리가 따로 논다고 할까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같은 국가 정책기관이 나주로 이전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죠. 문화재단은 현장에 있어야 해요. 그 지역의 센터가 문화 중심으로 들어가야 하고요. 부임했을 때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장의 예술인들과 호흡을 같이해야 해요. 재단은 서울에 있는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예술정책을 기획·확산하는 거점인데, 그 거점이 문화계의 중심에 있어야 몸과 머리가 따로 놀지 않죠. 또 하나는 재직 시절 재단의 기본재산이 1,200억 원 정도였는데, 2009년부터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시 재정이 위축되고 재단도 압박을 받게 됐어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진흥기금이 고갈되는 것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죠. 기본재산이란 유사시 문화정책이 위축되는 상황에서도 재단이 치고 나갈 수 있는 물적 토대인데, 그걸 훼손한다는 게 부담이 됐죠. 은행에 저축해도 금리가 너무 낮은 상황이라 시에서는 “우리는 돈을 빌려 쓰는 상황이다. 대출금리보다 예금금리가 더 떨어지지 않느냐, 수지가 안 맞는다”는 논리로 압박을 해왔습니다. 한사코 방어할 수도 없



“용두동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재단이 대학로에 입성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술가의 접근성을 해소하기 위해 재단이 대학로에 왔다는 것이 확실한 명분입니다.”

안호상



안호상 대학로로 이전하고 나면 남산예술센터는 어떻게 되나요? 그건 계속 쓸 수 있나요? 예술교육사업의 근거지로 쓰고 있는 남산예술센터에는 극장도 있어 예술교육사업에 유리합니다. 처음에 그곳을 매입하려다 못 사고 임대를 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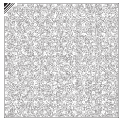
조선희 극장이 빠진다면 거기에 굳이 예술교육본부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술교육은 동숭아트센터로 들어와야 하지 않나요?

안호상 방향의 문제입니다. 과거에 재단이 직접지원을 주로 했을 때 교육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직접지원이 대세였는데, 간접지원과 매개자 지원으로 확장될 때 저는 교육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채택했습니다. 이후 창작공간으로 이어졌고요. 시에서 예술지원 의지가 있으니까, 재단이 예술가 지원과 매개자 지원을 중심으로 사업계획을 다듬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개자 지원사업들에서 여러 가지 효과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고요. 그동안 용두동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재단이 대학로에 입성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술가의 접근성을 해소하기 위해 재단이 대학로에 왔다는 것이 확실한 명분입니다. 어떤 기치를 내세울지 고민해야 합니다.

용두동 청사는?

주철환 동숭동으로 이전하는 배경에 대해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시민도 만나고, 접근성도 좋아지고요, 게다가 예산은 유동성

고 재단의 물적 토대, 금융 자산의 가치도 떨어지고 있어 그걸 어떻게 부동산으로 치환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도 만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궁리했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니까, 기본재산을 부동산 재산으로 치환하면서 재단의 숙원사업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사옥 이전이었죠. 일단 재단의 덩치가 크니 큰 건물이 필요하고 서울의 중심가, 장소를 문화 중심으로 고려하니 대학로밖에 없었습니다. 대학로에서도 몇 개 건물과 부지를 봤는데 마침 동숭아트센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 700억 원 아니면 안 판다고 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 여건에서는 너무 높은 가격이었고, 부동산을 찾아가 검토했는데 금액이 너무 높게 나와서 아무도 생각을 안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옥랑 관장을 만나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가격이 중요했죠. 아무리 지리적으로 맞다 해도 가격이 안 맞으면 할 수 없으니 어느 정도 양보를 받아냈습니다. 게다가 연면적을 냈는데, 재단과 남산 직원이 다 들어와도 수용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보다 부동산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용두동 청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관건입니다. 조 대표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서울시와 우리는 사실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서울시가 당연히 돈을 더해 재단이 하는 일, 시민들의 문화향유권, 예술가 지원 등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조건 아낄 필요는 없죠. 용두동 청사도 그대로 우리가 쓴다면 재단에 문화와 예술이라는 두 파트가 생길 것입니다. 문화는 생활문화, 예술은 창작으로 말이죠. 예술 관련은 동숭아트센터로 오고, 문화 관련 시민지원의 사령부는 용두동이 될 것입니다.

조선희 기본재산을 어떻게 부동산 자산으로 치환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용두동이 더 전망 있지 않나요? 어차피 재단이 문화정책을 펼치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이 건물을 가져가야 하니까요. 저는 동대문구가 도심에 속하지만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문화적으로 그렇고 문화공간도 없죠. 예술센터나 아트홀도 없고요. 문화소의 지역의 문화공간으로 개념을 확장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동숭아트센터를 사용할 때 콘셉트를 재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옥랑 관장은 그야말로 공연예술 복합공간으로 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4층은 블랙박스 다목적 공연장이고, 지하는 당시로 치면 굉장히 큰 공연장이죠. 이곳은 기본적으로 공연예술 복합공간입니다. 그런데 재단의 한 해 예산 규모, 사업 영역 등을 봤을 때 공연이 과연 어느 정도 비중인가를 조금 냉정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이 건물은 거의 70%가 공연시설로 되어 있는데, 재단 사업으로 보

면 20~30% 정도일 겁니다. 아까 매개자 지원도 말씀하셨는데 예술교육이라든지 생활문화 지원 같은 문화정책의 센터 역할을 더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재단이 들어오면서 공사를 하면 최소 20년은 갈 겁니다. 지금의 문화정책 트렌드로 봤을 때 그런 용도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극장은 하나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콘퍼런스홀과 갤러리를 포함해 다목적홀 같은 공간도 당연히 필요할 테고요.

대학로 신청사의 큰 그림

주철환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조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가들의 콘퍼런스 이런 것도 좋은데, 이곳에 오는 예술인들이 누구냐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화예술공간은 과거가 보이는 공간보다는 미래가 보이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젊은이들과 노장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오는지,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실험예술을 하는 젊은 예술가들이 드나들 것인가, 아니면 나이



“문화예술인을 위한 살롱 개념으로 공간을 만들어 거기에서 각종 지원사업 컨설팅, 지원사업 정보 키오스크, 정보센터 역할을 하면 좋고요. 예술인과 시민과의 접점 두 가지를 고려해서 공간을 설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선희





동숭아트센터
공간을 둘러보는
전·현직 대표이사 3인.

든 분들이 공연을 관람하러 찾느냐는 이곳의 방향 설정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신청사의 1~2층에 서울시가 건립하려고 했던 예술청의 기능을 넣는 것도 협의 중입니다.

조선희 예술청의 기능은 무엇인가요?

주철환 쉽게 얘기해서 예술인들이 모든 서비스를 윈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가령 지원 정보를 얻고, 예술가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재단이나 기타 전문가들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지요. 신청사의 미래를 미시적 관점에서 결정하는 것이 건축 구조입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운영 방향으로 언급할 수 있습니다만, 작은 부분부터 큰 부분까지 다 연결되죠. 신청사의 성격은 크게 극장, 1~2층 공유공간, 사무공간 등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조선희 저는 그런 기능도 당연히 재단이 포함해야 한다고 봅니다. 서울시의 주문이기도 하지만, 문화예술인을 위한 살롱 개념으로 공간을 만들어 거기에서 각종 지원사업 컨설팅, 지원사업

정보 키오스크, 정보센터 역할을 하면 좋고요. 카페의 수익성 면에서도 그런 기능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면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술청을 단순히 주민센터 개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살롱 개념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술인과 시민과의 접점 두 가지를 고려해서 공간을 설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안호상 국내에서는 극장 전문 건축가를 찾기 쉽지 않아요. 극장 전문가에게 도면을 그리게 하고 어떤 형태로든 건축가에게 넘겨줘 그 사람이 실제 설계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건축회사일 테니, 자기들 인하우스에 코디네이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 위주로 일을 할 수밖에 없고요. 때로는 이런 상황 때문에 산으로 가기도 하죠. 이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설계 이전 단계를 하나 더 넣어야 합니다. 콘셉트와 스케치 도면을 그릴 다음 건축가를 선정해 넘겨주고, 그에 맞춰서 도면을 그리게 하면 됩니다. 기초설계를 할 때 가능하면 구조나 인테리어 관련자도 참여하도록 하면 되죠. 국립극장 재임 시절 인테리어 하는 사람과 몇 명이 팀을 짜 검토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만들어놓고 조달청을 통해서 건축가를 뽑았는데, 일반 입찰로 진행되다 보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철환 그걸 공연장 컨설팅 단계에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구



조 변경까지 고민하게 돼 전체적인 방향을 잡는 큰 과업이 되었습니다. 역시 안 대표님이 극장 전문가로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네요. 잘 반영하겠습니다.

안호상 기능적으로는 교육사업이 들어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5층은 교육공간으로, 1층은 전체를 공유공간으로 만들어 매개자 중심으로 사용하면 좋겠어요. 지하 공연장은 오픈 형태의 극장으로 바뀌서 객석은 줄이더라도 젊은 예술가들의 창작지원 공간을 더 많이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작자들이 이곳에 와서 준비 작업을 할 수 있는 인큐베이팅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 공간을 어떻게 운영할지는 재단이 정해야겠죠. 단적으로 재단이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대관공간으로 내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주철환 어느 하나가 아니라, 그 두 가지를 모두 잘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남산예술센터는 나름대로 방향성을 가지고 실험

정신과 시대정신이 담긴 작품들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죠. 여기도 극장을 운영할 때 뒤에서 도움만 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겠죠.

안호상 요즘 보면 그냥 맡겨놓기만 하고 기획이 없는 극장들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예산 문제이긴 한데요. 재단이 극장을 운영한다고 하면 아마 예술가들은 언제든지 나눠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내놓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르코나 대학로아트센터 등이 있는데 재단도 그렇게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입장을 취할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주철환 예술은 결국 시민과 함께 호흡해야 하지 않을까요? 고전과 모던, 컨템퍼러리, 아방가르드 등 다양하게 있어야 하죠. 무조건 돈 되는 것만 하면 안 됩니다. 공공성 훼손도 방어해야 합니다.

안호상 두산연강재단도 잘하는데 거기도 큰 홀은 부담스럽습니다. 홀이 두 개인데, 작은 홀은 불편하긴 하지만, 그 기관의 정체성을 대외적으로 확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문학 강좌나 다른 행사도 많이 하고요. 여기에 500석 이상의 객석 중심의 극장을 가져가는 게 바람직한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주철환 안 대표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객석 규모로 승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죠. 일단 특징이 있어야 하고 세련되면 좋겠어요. 이곳에 왔을 때 '아, 내가 이런 곳에서 새롭게 해석된 연극을 본다'라는 느낌을 받았으면 합니다. 예술체험을 통해 삶의



“완벽하게 기획해서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 하다 보면 우리의 역할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세대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합니다. 젊은이와 원로 모두를 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주철환

활력을 느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를 들어 성당에 갔을 때 그곳이 ‘자기 삶을 돌아보는 곳’이 되기도 하고, ‘이게 성당인지 식당인지 알 수 없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작이, 즉 기획설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여러 사람의 의견을 두루 듣고 있고요.

조선희 저도 동의합니다. 극장 자체가 그렇기도 하고, 연극도 연극이지만 서울거리예술센터도 있지 않나요? 거기서 생산되는 퍼포먼스 작품들도 있는데, 그런 작품들이 공개되는 플랫폼도 필요합니다.

주철환 무엇보다 저는 독창적이면 좋겠어요. 젊은이들이 사진 찍고 싶어 하는 곳,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곳, 특징적인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안호상 외양도 바꿀 수 있다면 다 바꾸면 좋겠어요. 보존도 중요한데 손을 댈 거면 아예 같이 고민하는 게 좋겠습니다.

조선희 예전에 1층 소극장에서는 영화가 끝나면 커튼이 열리면서 바깥에 있는 담벼락과 장독대가 보였어요. 그걸 보면서 건물이 굉장히 기품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 안쪽으로 벽면을 만들어서 빛을 차단했던군요. 그걸 걷어내고 1층을 리셉션 장소로 만들면 어떨까요. 그 안을 카페나 살롱 개념의 공간으로 하고, 바깥으로 통하게 접문을 설치해 아늑한 뒤뜰을 보여주면 좋겠어요.

예술가와 시민, 서울의 문화정책을 함께 생각하는 공간

주철환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오게 할 것인가? 어떤 사람들이 많이 오도록 기획할 것인가? 재단이 주도적으로 기획을 해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가? 이미 대학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게 중요한가? 이러한 것들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재단이 대학로에 들어온다고 해서 그 역할이 대학로라는 문화지구에 한정될 필요는 없지만, 또 반대로 대학로에 들어왔는데 대학로의 부흥에 기여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양면적인 이야기가 동시에 나오기도 하고요. 모두 적절히 대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조선희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느냐는 이야기를 했는데, 예술가를 위한 공간이라면 콘셉트가 분명하죠.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집회를 하거나 우리가 예술가를 대상으로 집회를 할 수 있고요. 아까 이야기한 살롱 개념으로 그들이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고, 컨설팅이나 상담이 가능한 개방성 있는 예술인센터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시민을 위한 공간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시민이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공연을 보러 오게 만드는 게 시민 접점이지, 굳이 구체적으로 공간을 따로 열 필요는 없습니다.

주철환 ‘마이크임팩트’가 좋은 예시가 되겠네요.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작은 워크숍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도 하나의 사례이지요. 미래전략팀 직원들이 코워킹 공간을 많이 벤치마킹했다고 들었어요. 문제는 대부분의 코워킹 공간에는 상주하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공간을 열어놓으면 자연스럽게 24시간 활용됩니다. 그런데 이곳은 공간 제약으로 인해 상주하기 어렵고 기껏해야 연습공간을 대관한 단체 정도일 겁니다. ‘재단 주도의 행사가 없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코워킹 공간이 북적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현실적인 생각입니다. 공간을 재단이 주도해 기획할 것인지, 예술가들에게 맡겨놓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1, 2층에 예술청을 운영하면서 코워킹 공간을 운영하는 별도 조직이 있어야 우리가 상상하는 북적거리는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선희 ‘청’이라는 이름이 관공서 같은 느낌이 나네요. 그런데 개념 자체는 좋은 것 같아요.

주철환 예술가를 위한 서비스가 모여 있는 허브, 사실 그게 재단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조선희 그럼요.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도록 해야 하잖아요. 예술청이라는 개념이 자극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단이 개발한 새로운 서비스인 거죠. 재단이 기존에 하던 사업들도 예술가들을 실수요자로 하지만, 예술청 기능을 한다면 실제로 많은 관심을 받겠죠. 와이파이와 노트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조용히 회의할 수 있는 차단된 공간과 테이블이 있는 오픈된 공간도 있으면 좋고요.



주철환 현실적인 그림을 그려보면, 어떤 사람들이 올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예술에는 문학, 시각, 음악, 무용, 연극, 전통 등 다양한 장르가 있는데 왜 우리는 지원 안 해주냐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공평하게 해줘야 할지, 우리가 주도해야 할지, 그들에게 맡길 것인지 적절히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할 일했다는 식의 운영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안호상 대학로에 예술단체들, 공연 극장들이 많은데, 그쪽을 지원하는 사운드, 영상, 디자인 회사 등을 여기에 입주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예술가들이 그 사람들과 작업하기 위해 모여들 것 같습니다.

주철환 완벽하게 기획해서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 하다 보면 우리의 역할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술가와 만난다고 할 때 운동주, 윤이상처럼 죽은 자, 또는 유망한 젊은 예술가, 즉 산자와의 만남도 있습니다. 남산예술센터를 위탁받았을 당시의 창작지원본부장에게 첫 작품을 물어보니 <오늘, 손님 오신다>였다고 하더군요. 아련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치우치면 안 되죠.

정치적으로나 세대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합니다. 젊은이와 원로 모두를 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조선희 주철환 대표의 임기가 내년 8월까지 아닌가요? 그런데 5월에 공사를 시작하네요. 쌀 씻는 사람이 있고 밥 짓는 사람이 있고, 밥상 받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쌀을 씻었고, 주대표가 밥을 짓는 셈이고, 그다음 분이 밥상을 받게 되겠네요. 제가 이런 경험이 두 번째입니다. 한국영상자료원에서 파주보존센터를 지었는데, 운영한 지 벌써 3년쯤 됐나요? 제가 그걸 기획한 때가 2008년쯤이었어요. 저는 기획만 했고, 후임자가 6년을 하면서 건물을 거의 다 지어놓고 갔습니다. 개소식에 갔더니 온 지 두 달도 안 된 분이 손님맞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쌀 씻는 사람, 밥 짓는 사람, 밥상 받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걸 느꼈어요. (웃음)

안호상, 주철환 세상일이 다 그런 거지요. (웃음)

대답을 마치고 이어진 식사자리에서도 세 대표의 이야기는 계속됐다.

정리 **이규승** 서울문화재단 미디어팀장 · 사진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대학로 이전 및 (구)동숭아트센터 리모델링 기획설계를 위한 공청회

더욱 바람직한 문화예술공간을 위한 첫걸음

지난 5월 16일, (구)동숭아트센터에 서울문화재단 관계자와 각 분야 예술가, 건축가 등 40여 명이 모였다. 서울문화재단의 대학로 이전과 관련해 세부 계획을 설명하고 예술가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가 열린 것. 이날의 공청회는 2019년 말 개관 예정인 서울문화재단 신청사가 예술가와 시민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초석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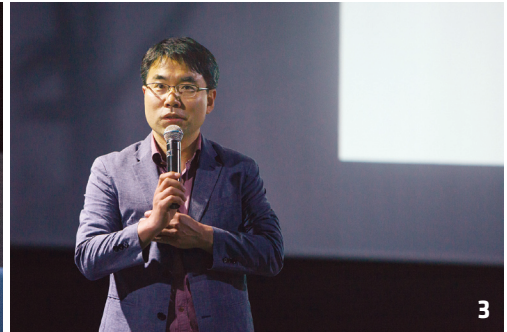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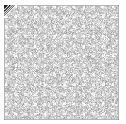
대학로 이전의 배경과 진행 상황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시민과 서울에 사는 예술가들을 행복하게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그러니 그분들의 말씀을 듣는 게 필수적인 절차라고 생각했다. 오늘 공청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많은 이야기가 오가며 뜨거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바란다.” 서울문화재단 주철환 대표이사가 인사말과 더불어 공청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본격적인 질의 및 논의에 앞서, 김해보 경영기획본부장이 대학로 이전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2011년부터 예산 활용에 대한 위기가 고조되자, 서울문화재단은

재원 다변화와 혁신적인 출연금 운영 방안을 고민해왔다. 그 결과, 저금리 시대에 맞춰 기본재산의 일부를 부동산으로 치환하고, 수익 창출형 투자 및 제휴사업으로 재원을 확대하는 대책을 세웠다. 다양한 공간을 검토하던 중, 2016년에 동숭아트센터를 매입하기로 결정한 서울문화재단은 행정 절차를 차근차근 밟았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에 부동산 매매 계약을 맺었고 건물을 정밀 분석했다. 현재 진행 중인 기획설계가 끝나면, 설계 공모와 실시 설계 및 인허가 과정을 거친다. 시공사가 선정되면 2019년 5월에 리모델링과 증축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준공 검사를 마친 후 개관하는 것이 향후 계획이다.

이어지는 남미진 미래전략팀장의 세부 설명으로 서울문화재단의 구상을 한결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1989년 설립된 동숭아트센터는 시설이 너무 노후해 안전에 대한 정밀 진단이 필요했고, 현 시설의 문제점 진단 역시 선행해야 할 절차였다. 그 결과, 증축 가능한 곳을 찾아내 추가 공간을 확보했다. 또한 추후 재단이 전 시 사무를 위해 필요한 공간과 예술가, 시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고려해, 건물 리모델링 방향을 내놓았다. 현재 지하에 위치한 증극장은 리모델링해 좀 더 활용도 높은 극장으로 만들 예정이며, 1층은 로비와 카페, 다목적 전시공간으로 꾸밀 계획이다. 2층은 예술가 및 매개자들을 위한 회의실과 다목적 공간 등 공유활동 공간, 3층과 4층은 재단 사무실, 5층은 스튜디오와 리허설룸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현재 옥상공간인 6층은 개폐형 다목적 회의실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1, 2 공청회에는 서울문화재단 관계자와 각 분야 예술가, 건축가 40여 명이 모였다.
3 대학로 이전 추진 배경을 설명하는 김해보 경영기획본부장.
4 박성혜 무용평론가.

실효성 있는 공간을 위해

서울문화재단 관계자들의 세부 설명이 끝난 후,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 및 질의가 이어졌다. 주요 쟁점은 세부적인 공간 구성과 운영 방향, 용두동에서 대학로로 이전하는 재단의 새로운 전략과 역할에 대한 것이었다.

박성혜 무용평론가는 “전형적인 프로시니엄 무대는 이미 몇몇 존 재한다. 최근 극장 트렌드인 블랙박스 형태라든가, 아티스트가 공간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극장 설계가 바람직할 것 같다. 더불어 단순한 연습실보다는 장르 간 협업 및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가변형 공간을 원한다”고 의견을 말했다. 또한 박 평론가는 현재 서울문화재단이 예술가들에게 제공하는 재정지원 외에 공간지원 같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길 바란다는 의견을 더해, 실질적인 공간 활용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심소미 독립큐레이터 역시, 2층에 개발 예정인 “예술가 및 매개자 코워킹 스페이스가 눈에 띈다”며 공간 구성에 의견을 더했다. “대학로에는 공연 관련 인력이 가장 많지만, 시각미술 인력도 많다. 그런데 결과 발표 장소에 비해 창작 과정에 필요한 공간은 부족하다. 특히 최근 중시되는 협업을 위한 공간의 필요성을 예술

가들이 두루 공감하고 있는데, 2층 공간 활용이 현실적으로 다가왔다.” 이어서 건물 내에 아카이브 공간을 마련한다면 2층 회의실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예술가들의 입장을 대변했다.

“재단이 이전하면 대학로는 연극 및 예술행정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운을 뗀 정진세 극작가는 재단 이전 후 일어날 변화 및 그에 따른 재단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공유했다. “대중 지향 극장들과 대학들의 캠퍼스, 상업시설로 둘러싸인 (구)동숭아트센터의 입지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어떤 변화를 예상하는가? 또한 완공 후 2020년대에 활동할 청년예술가들에 대해서는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정 작가의 질문은 공간 활용을 넘어 입지 변화에 따른 전략 수립에 생각할 거리를 더해주었다.

많은 이야기가 오간 후, 서울문화재단 주철환 대표이사는 “오늘 나온 이야기로 가닥을 잡을 수 있었고, 문제의식을 공감했다. 오늘이 시작이다”라는 말로 공청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1차 공청회를 시작으로 기획설계 및 각각의 추진 단계별 공론화의 자리를 이어갈 예정이며, 직접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이메일(suggest@sfac.or.kr)을 통해 누구나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글 이민선 자유기고가 · 사진 서울문화재단





제37회 국제현대무용제 홍보대사·배우 문소리

“새로운 시도에 끝린다”

“개봉하는 영화도 없는데 저를 왜...?”라던 문소리 배우는
〈박하사탕〉 재개봉 얘기로만 한 시간을 거뜬히 채웠다. 결국 마주 앉으면
18년 전 데뷔작의 오디션 일화까지 세세하게 들려주는 배우가 문소리다.
그의 데뷔작 〈박하사탕〉이 지난 4월 재개봉했다. 연극 〈낮심〉으로
무대에 오른 것도 4월이었다. 5월엔 제37회 국제현대무용제 홍보대사로
위촉돼 현대무용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처음엔 춤이라는 분야에
별 관심이 없었는데 문학, 영화, 연극을 좋아하면서 공연예술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러다가 무용에까지 관심이 확대됐어요.” 지난해 연극
〈빛의 제국〉으로 프랑스 3개 도시 투어를 할 때도 현지에서 무용 공연을
두 번이나 챙겨볼 만큼 어느덧 문소리는 적극적인 한 사람의 관객이 되어
자발적으로 객석에 착석하고 있었다.

고작 두 번째 출연작 <오아시스>로 2002년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신인여우상을 수상한 사실을 상기해보면, 문소리가 일찍부터 신체의 언어를 잘 활용해온 배우라는 것을 쉬이 알 수 있다. <바람난 가족>에서 전직 무용수였던 주부 캐릭터를 맡으며 현대무용을 처음 접하고, 무용을 하면서 치유를 경험하고, 그러다 무대 공연이 주는 재미를 알게 된 과정은 꽤 자연스럽다. 나이를 먹어서도 무대에 멋있게 서기 위해 무용으로 몸을 관리하고, 공연을 통해 예술적 자극을 받아 다시 무대와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는 이 순환의 과정 역시 아름답다. 지난해 <여배우는 오늘도>를 선보이며 영화감독으로 데뷔한 것도 모자라 영화, 방송, 연극을 유연하게 넘나들며 관심 분야를 넓히고 있는 문소리를 만났다. 5월 16일부터 27일까지 열린 제37회 국제현대무용제(International Modern Dance Festival, 이하 모다페)를 앞두고 그녀의 예술적 관심사를 함께 나눴다.

요즘 부쩍 다방면에서 얼굴을 보는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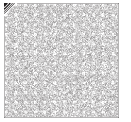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라기보다, 내가 재미있는 걸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을 하다 보면 마음대로 안 풀릴 때도 있고 내 욕심이 다 채워지지 않아 혼자 안달복달할 때도 있는데, 지금은 어떤 성과나 남들의 평가에 상관없이 그동안 내가 공부했고 또 애정을 가져왔던 것들을 가지고 재밌게 이것저것 해보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모다페의 홍보대사로 위촉됐는데요. 기억을 더듬어보면 <바람난 가족>에서 전직 무용수인 주부 '호정'을 연기한 적이 있어요.

<바람난 가족>을 준비하면서 처음 현대무용과 인연을 맺게 됐어요. 당시 안애순무용단과 거의 두 달을 같이 보냈죠. <바람난 가족> 직전 작품이 이창동 감독의 <오아시스>였는데, <오아시스>에서 뇌성마비 장애인 '공주'를 연기하는 동안 몸이 많이 틀어지고 생을 꽤 했어요. 골반도 틀어지고, 턱 관절과 경추도 안 좋아지고, 그런데 <바람난 가족> 준비하느라 현대무용을 배우니까 몸



이 좀 덜 아픈 거죠. 그때부터 무용을 쭉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그러진 못했어요. 한동안 작품하느라 현대무용과 멀어졌죠. <오아시스>와 <바람난 가족>을 연이어 하니까 몸 쓰는 게 지긋 지긋하더라고요. 이후 출산도 하고 작품 준비를 하면서 이런저런 운동을 했는데 나에게 잘 맞는 운동을 찾는 게 어렵더군요. 기계나 도구가 많은 곳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피트니스 센터도 자주 안 가게 되고, 그러다 2년 전쯤 우연한 기회에 현대무용을 응용한 탄츠플레이를 배우게 됐어요. 탄츠플레이는 현대무용에 발레와 필라테스를 접목한 운동인데, 우선 도구를 많이 활용하지 않아서 좋았고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하는 것도 좋았어요. 운동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어요. 어깨 통증이 심했는데 그 통증이 사라졌어요. 원래 홍보대사라는 직함의 일은 말지 않으려는 편이에요. 내가 홍보대사를 한다고 해서 그게 정말 홍보에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모다페의 경우도 홍보대사 제의를 받았을 때 고민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 모다페의 개·폐막 공연이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개·폐막작의 티켓은 구하기도 어렵고 어차피 홍보대사직을 맡지 않더라도 다른 공연들을 보러 갈 텐데, 그러면 홍보대사로 공연도 보고 무용제도 알리면 좋



- 1 문소리 배우의 감독 데뷔작인 <여배우는 오늘도> 메이킹 현장.
- 2 영화 <박하사탕>의 한 장면.
- 3 문소리 배우가 처음 현대무용과 인연을 맺게 된 영화 <비람난 가족>.
- 4 연극 <빛의 제국> 무대 모습.

줬다 했던 거죠. (웃음)

개막작은 게코(Gecko)의 <웨딩>(The Wedding)이고 폐막 공연은 NDT2(네덜란드댄스어티)가 장식합니다. 두 공연에 어떤 기대가 있나요?

게코는 세계적인 영국 퍼지컬시어터컴퍼니예요. 그래서 연극제에서도 초청하고 싶어 하는 팀이죠. 작품을 보면 무용 같지 않아요. 움직임과 함께 이미지와 내러티브가 있어요. 드라마가 있는 한 편의 연극같이 느껴지죠. <웨딩>은 아시아에서 처음 선보이는 공연이라 저도 궁금해요. NDT는 작품마다 파격적이고 새로운 걸 보여주기로 유명한 팀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NDT의 공연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요. 모다페 폐막식에선 NDT의 젊은 무용수 그룹 NDT2가 <슬픈 사례>(Sad Case), <선인장>(Cacti), <나는 새로 그때>(I New Then) 세 작품을 공연해요. 그들의 공연을 본 적이 없어서 기대가 커요.

음악 공연보다 무용이나 연극 공연을 선호한다고 했잖아요. 몸의 언어를 이해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대무용은 관객에게 더 적극적

인 해석을 요할 것 같은데요.

어렵고 복잡한 주제를 전달하는 무용도 있죠. 영국의 DV8 퍼지컬시어터 같은 경우 무용수들이 복잡한 주제를 끊임없이 말로 전달해요. DV8은 2012년 국내에서도 <캔 위 토크 어바웃 디스?>(Can We Talk About This?)라는 공연을 한 적이 있는데, 무용수들은 말과 움직임을 통해 이슬람 원리주의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죠. 이들의 공연을 보면 무슨 기인열전을 보는 것 같아요. (웃음) 어쨌든 일반적인 무용 공연은 이미지가 중심이고 상징적이죠. 그래서 시적이예요. 그런데 시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간결하고 직관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들을 즐기는 재미가 있어요.

실제 무용 실력은 어떤가요? 무용에 소질이 있다는 얘길 종종 듣나요?

가동성, 유연성은 괜찮은데 리듬감이 그리 좋지 않아요. 오히려 무용을 통해서 신체의 부족한 점을 채우게 되는 것 같아요. 바른 자세로 생활한 적이 거의 없어서 몸의 균형이 많이 틀어져 있었는데 무용을 하면서 몸의 균형을 맞추고 중심을 잡게 됐어요. 그

런데 무용하기에는 발이 작고 약해요. 무용은 안정감 있게 발로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한데 발이 크지 않아서 단단하게 버티질 못해요. 그래도 50살, 60살 넘어서까지 무대에 서려면 무대에서 몸을 잘 쓸 수 있도록 관리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배우의 몸은 언제 어떻게 쓰일지 모르니까. 운동을 하지 않은 몸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근육이 붙은 몸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때그때 캐릭터에 맞게 몸을 맞춰야 하는데 그러기에도 무용이 좋은 것 같아요. 딸한테도 무용을 배우게 하고 싶은데 아이들의 무용 교육은 발레가 거의 유일해요. 발레 말고는 다른 춤이 없어요. 한국에서 춤은 이상하게 부끄러운 거예요. 남들 앞에서 춤추는 걸 부끄럽다고 생각하죠. 춤이 우리의 삶에서 분리된 게 안타까워요.

지난 4월에는 이란 출신 작가 닷심 술리만푸어의 연극 〈닷심〉으로 무대에 섰습니다. 매회 다른 배우가 무대에 서고, 배우는 무대에서 처음 대본을 받아 극을 이끌어가는 일종의 실험극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작품에 참여하게 됐나요?

일단 궁금했어요. 대체 어떤 작품인지. 그 궁금증을 해소하려면 공연을 보러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배우들이 한 번씩밖에 무대에 서지 않으니까 표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죠. 그래서 이번에도 궁금하니까 내가 직접 해보자 했던 거예요.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다른 문화적 배경의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하는 과정을 다루는 공연이에요. 대단한 볼거리나 내용이 있는 건 아닌데 주제의 전달 방식이 흥미로웠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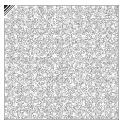
리허설이 없는 1인 즉흥극이라 무대에 오르기 전까지 배우가 준비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 괜히 긴장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실제로는 어땠나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시키겠지 설마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겠어?’라고 생각해서인지 긴장은 안 되더라고요. 공연 관계자도 그러더군요. 다른 배우들과 달리 너무 편안해 보인다고, 너무 긴장을 안 한다고. 무대에 오르기 전에 적당한 긴장과 이완이 필요해



“50살, 60살 넘어서까지 무대에 서려면 무대에서 몸을 잘 쓸 수 있도록 관리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배우의 몸은 언제 어떻게 쓰일지 모르니까.”

요. 이번엔 리허설이랄 게 없었으니 대기실에 요가매트 깔아놓고 몸 풀다가 올라갔어요. 무대에 올라가면, 스크린에 텍스트가 뜨고 배우는 그걸 계속 읽어나가요. 페르시아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데, 익숙하지 않은 읽기 방향에도 금방 적응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내가 읽기를 잘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너무 실수를 안 해서 공연 보러 온 남편(영화감독 장준환)이 사전에 대본을 보고 무대에 오른 줄 알았다고 할 정도였어요. 공연이 끝난 후 원작



자 낮심도 저에게 페르시아어를 공부한 적 있느냐고 물어봤고요. 발음도 정확하고 술술 읽으니까, 너무 즉흥의 맛을 못 살린 건가 싶기도 했죠. (웃음)

평소 실험극에 애정이 있어서 챙겨 보는 편인가요?

챙겨 보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새로운 공연이 있으면 보고 싶죠. 영화는 나중에 다시 찾아볼 수 있지만 공연은 그때가 아니면 못 보니까요. 그런데 연극의 경우 고전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무대야말로 설사 어설피다하더라도 새로운 걸 시도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연극 〈빛의 제국〉도 형식이 좋았거든요. (김영하의 동명 소설을 각색한 작품으로 2016년 문소리의 6년 만의 무대 복귀작이었다. 2017년엔 〈빛의 제국〉으로 프랑스 3개 도시에서 투어 공연을 진행했다.) 가장 돈을 적게 들이면서도 가장 파격적일 수 있는 곳이 무대라고 생각해요. 무대에서는 뭐든 새로운 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시도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런 시도들을 많이 보고 싶어요.

배우 문소리를 세상에 알린 데뷔작, 이창동 감독의 〈박하사탕〉도 지난 4월 26일 디지털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재개봉했습니다. 〈박하사탕〉에 대한 애정과 추억이 어마어마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영화를 다시 보면서 또 한바탕 눈물을 쏟았죠?

영화가 시작되면 까만 화면에 하얀 점처럼 터널 입구가 보이고 ‘따리라~’ 하고 음악이 나와요. 그러면 벌써부터 눈물이 나요. ‘이제는 괜찮겠지’ 하면서 봤는데 또 통곡을 했어요. 옆자리 관객에게 방해될까봐 울음을 꺾꼭 눌렀더니 가슴이 또 너무 찡시는 거죠. 그러다 기차길 장면이 나오면 또 눈물이 터지고, ‘관객과의 대화’ 한다고 속눈썹도 붙이고 갔는데 우느라 다 떨어져버렸어요. (웃음) 영화의 주인공 ‘영호’(설경구)의 삶이 많이 변하는데, 마찬가지로 내 삶 또한 변했다는 걸 느껴요. 지켰어야 했는데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린 것들이 있고, 어리석었던 순간들이 있고, 흔들리면서 갈피를 못 잡은 적도 있고, 나쁜 마음을 먹은 적도 있

고. 그런 생각이 막 밀려들면서 내가 지금 똑바로 살고 있나 하는 질문을 마주하게 돼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때,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소중한 순간들이 너무 사무치게 그리워져요. 영화가 시작되면 그렇게 정체를 알 수 없이 사무치게 그리운 마음, 슬픈 감정이 밀려와요. 아직 〈박하사탕〉이란 영화에 대해 면역력이 생기지 않은 모양이에요. 인간과 세상에 대한 애정과 이해가 정말 깊은 영화고, 그런 영화를 만든 이창동 감독님에 대한 애정은 지금도 변함없어요.

〈박하사탕〉을 찍을 당시의 26살의 문소리는 지금보다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 소극적이었다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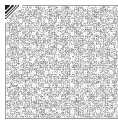
맞아요. 인터뷰할 때도 가만히 구석에 앉아서 설경구 오빠는 어떻게 말하나 지켜보고 있었어요. 누가 말 시키면 당황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영화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으니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컸죠. 고등학교 다닐 땐 학교와 집밖에 몰랐어요. 명동에 한 번도 안 가봤을 정도로 우물 안 개구리처럼 살았죠. 그래서 〈박하사탕〉으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새롭고 두려웠어요. 〈박하사탕〉 제작보고회 때였나. 영화인들과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모인 자리였는데 그때 김여진 배우가 데킬라를 시켜서 술에 불을 붙여 마시더라고요. 그거 보고 기겁했어요. 사람들이 양주를 마시는 것도 신기했는데 술에 불까지 붙이다니. 그야말로 문화충격이었죠. (웃음)

현재 드라마 촬영 중입니다. 곧 드라마와 영화로 만날 수 있는 건가요?

〈라이프〉라는 드라마를 찍고 있어요. 7월 말 방송 예정이고 의학드라마예요. 신경외과 과장 역인데, 30개가 넘는 의학 전공 중 제일 어렵고 힘든 과가 신경외과라고 해요. 수술 한 번 들어가면 10시간이 넘는 건 기본이니까요. 그런 험한 분야에서 과장까지 된 인물이에요. 드라마 〈비밀의 숲〉을 썼던 이수연 작가 작품이고, 조승우, 이동욱 배우 등이 출연해요. 드라마 촬영이 끝나면 영화 〈어쩌다 배심원〉 촬영에 들어가요. 거기선 판사 캐릭터를 연기하는데, 최근에 김영란 전 대법관도 만났어요. 〈박하사탕〉땐 구로공단의 노동자였는데 이제 곧 대통령 역할도 맡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웃음)

글 이주현 씨네21 기자 · 사진 최성열





팝아티스트 도파민최

도파민 군단이 펼치는

핑크빛 판타지

털복숭이 몸통에 빠죽 나온 팔다리, 표정 없는 얼굴, 남자도 여자도 아닌 묘한 생명체. 팝아티스트 도파민최가 창조한 도파민의 모습이다. 그는 신경호르몬의 일종인 도파민을 가상의 생명체로 설정하고, 이들이 뇌 속에서 펼치는 ‘행복과 중독의 아이러닉’을 핑크빛 판타지로 구현한다. 회화뿐 아니라 아트토이,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장르에서 대중예술과 순수예술의 경계를 실험해온 시도는 2017년 9월 영국 사치 갤러리 스타트 아트페어 참여로 이어지기도 했다. 도파민최의 첫 개인전 <도파민 랩> (4월 23일~5월 14일)이 열리는 서울 성수동 오매갤러리에서 그를 만났다.

개인전에 선보인 작품들이 페인팅, 오브제, 영상설치, 퍼포먼스까지 다양한데요.

추계예술대에서 판화를, 영국 킹스턴대에서 일러스트와 애니메이션을 전공했어요. 판화를 전공할 때 배운 것도 많았지만, 좀 더 자유롭고 개방적인 예술을 하고 싶었죠. 순수예술이 엘리트주의로 빠지는 경향도 싫었고, 스스로 어떤 분야의 작가라고 한정짓기보다 넓은 의미의 시각예술을 하고 싶었어요.

지금의 도파민 캐릭터를 창조할 때 염두에 둔 이미지가 있나요?

도파민 하면 사람들은 화학기호 이미지를 떠올리지만, 저는 뇌 속에서 도파민이 무엇을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의인화해 표현했어요. 인간의 행복과 관련 있지만 중독되게도 하는 이중성을 띤 호르몬이기 때문에, 귀여우면서 괴기스러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도파민을 상징하는 주요 색채가 핑크인데, 굉장히 오묘하고 아름답지만 폭력적인 색이거든요. 중독성이 있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뭔가 욕구를 던져준다고 할까요?

도파민의 표정이 없는 게 특이하네요.

눈썹과 입이 없거든요. 간혹 크게 중독된 상태를 표현하려고 입을 그릴 때가 있지만, 그 외에는 없어요. 표정이 없는 대신 팔다

리를 통해 액션을 부여하고, 뇌 속 호르몬이라는 점에 착안해서 몸통에 머리카락을 연상시키는 털을 입혔어요. 또 숫자와 밀접한 호르몬이기 때문에 도파민을 생각할 때 군단의 이미지가 떠올랐고, 군단이 모여 서로 싸우는 이미지 작업들이 만들어졌죠.

수많은 신경호르몬 중에서 도파민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전부터 탐구해왔던 주제가 ‘행복과 중독의 아이러닉’이었어요. 그때 제가 중독된 게 게임, 영화, 드라마처럼 브라운관 속 가상세계더라고요. 초기에는 가상현실 자체를 그림과 판화로 표현했어요. 그러다 영국 유학을 가서 졸업 전시를 준비하면서 다시 중독에 대한 탐구를 하게 됐죠. 연구해보니 어떤 대상에 중독될 때 도파민 호르몬이 영향을 주더라고요. 행복해지기 위해 도파민이 필요하지만, 이 도파민이 지나치게 증가하면 중독되는 거죠.

인간의 행복을 관장하는 호르몬은 더 다양할 텐데, 도파민 외에 새로운 캐릭터가 나올 수도 있을까요?

중독에 관련된 모든 호르몬들을 다 그려야 하는지도 생각해봤는데, 그건 제 역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보다는 도파민에 대해 더 집약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도파민이 어떤 형태로 변화할지에 대한 작업을 할 것 같아요.



지금과 같은 대중성을 띤 작업을 하는 데 영향을 준 작가가 있나요?

일본 만화책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일본의 무라카미 다카시, 영국의 그래피티 작가 뱅크시를 좋아했어요. 제 작품과 분위기는 전혀 다르지만 독일 작가 게르하르트 리히터의 아우라도 멋지고 생각해요. 그들이 전시를 하는 태도나 전시장 풍경 자체가 정말 좋았거든요.

기존 작품에서 주로 평면회화의 주인공이었던 도파민이 입체적인 아트토이로 대중과 만난 계기가 2015년 〈아트토이컬쳐〉 전시였죠?

2015년부터 3년 연속 ‘키치스(KITSCHS)’라는 작가 그룹의 일원으로 〈아트토이컬쳐〉에 나갔어요. 일종의 크루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그전에도 국내 전시에 몇 차례 참여했지만, 도파민이라는 이름으로는 이때 국내 데뷔를 한 셈인데요. 당시 아트토이는 50개만 한정 제작하고 복제 외에는 후가공부터 도색까지 다 수작업으로 마무리했어요. 키치스와의 전시를 계기로 2017년 3월 진화랑에서 〈숨가전〉이라는 전시에 참여했고, 그게 잘돼서 9월에 영국 사치 갤러리에서 열린 스타트 아트페어에도 참여했죠. 예술성과 상업성 중 하나만 추구해야 한다는 계약을 두고 싶지 않아요. 그냥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 순간에 하고 싶은 것을 할 뿐이죠. 나이키 베이퍼맥스의 바이럴 마케팅을 위한 영상도 그런 마음으로 만들었어요.

지금까지 30여 차례 단체전에 참여했지만 〈도파민 랩〉은 첫 개인전이라 감회가 새로웠을 텐데요. 이번 전시에서 선보인 새로운 시도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4월 23일 전시 첫날 퍼포먼스를 했어요. 제가 ‘도파민 박사’ 콘셉트로 등장해서 플라스크나 비커에 물감을 담고, 그걸 도파민 물질이라 생각하고 뿌리면서 형상을 만들고 그것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림을 그린다기보다 제가 그리는 캔버스 자체, 물감 자체를 실험하고 진찰하는 느낌이었어요. 청진기를 가지고 캔버스에 형상을 만들기도 하고요.

〈도파민 랩(lab)〉이라는 전시 제목처럼 실험적인 시도였겠네요.

전시 제목도 도파민이라는 주제로 연구하고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이번 전시에서는 기존 작업 영상을 벽에 빔으로 쏘서 그림을 그려봤어요. 예를 들면 컴퓨터로 그린 이미지를 확대해 빔으로 쏘면, 벽에 비친 이미지는 아름답고 이미 완성된 것 같지만 손으로 가리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름다워 보이

- 1 Brewing Company, 'thebooth' 콜라베이션 전시, 아트토이컬쳐, 2017.
- 2 스타트 아트페어 전시 모습, 사치 갤러리, 영국 런던, 2017.
- 3 나이키 베이퍼맥스 바이럴 영상 콜라베이션, 나이키 코리아, 2017.
- 4 〈도파민 랩〉 전시장 전경.



4

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아이러니를 생각하게 되죠. 앞으로 몇 가지 빔을 동시에 쏘거나 각도를 바꾸기도 하고, 이미지를 여기 저기 쏘기도 하면서 변주하는 식의 설치미술을 시도하고 싶어요.

도파민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요?

‘중독’이라고 하면 흔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지만, 단순히 ‘중독은 나쁜 것이다, 중독되지 말자’라고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달리 보면 중독은 어떤 대상에 대한 열정일 수도 있거든요. 삶이란 행복 추구하고 중독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완성된다고 생각해요. 그 이중성 사이에서 추구하는 균형을 이야기하면서, 한편으로는 중독의 자극성도 보여주고 싶어요. 인간의 뇌는 근육보다 더 예민하고 신비로운 존재예요. 저는 그걸 도파민 호르몬을 통해 보여주고 싶어요. 즉 도파민을 통해 뇌 속 판타지를 보여주었으면 해요.

올해 입주한 신당창작아케이드는 기존에 입주했던 작업실 환경과 어떤 면에서 다른가요?

올해 1월에 입주했는데 위치 면에서는 어떤 레지던시보다 좋아요. 재료상이나 을지로도 가깝고, 충무로도 가깝잖아요. 패션 관련 작업을 하는 작가들에겐 동대문도 가까워서 좋죠. 또 작업실이 시장 밑에 있기 때문에 한국적인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작업실에만 갇힌 느낌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오늘의 서울’을 느낄 수 있죠.

공예 분야에 특화된 레지던시잖아요. 아토틀을 제작하며 예술과 상업의 경계를 고민해왔으니 특별한 영감을 줄 것 같은데요.

다른 장르에서도 배울 것이 많지만 전 특히 공예 분야에서 어떤 물성의 재료들이 있는지, 다른 작가들은 이를 작품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궁금했어요. 다양한 분들이 있어서 재미있더라고요. 입주하지 않았다면 만나지 못했을 작가들과 교류할 수 있어 좋아요. 현재 35명이 입주해 있는데, 친하게 지내는 작가들을 ‘힛집 라인’이라고 불러요. 저희 작업실 근처에 화센터가 있거든요.

입주작가들과 협업하는 프로젝트가 있나요?

입주작가 학습공동체(CoP) 프로젝트인데요. 류종대(아트퍼니처), 한용범(세라믹), 안소라(옷칠공예), 이정형(기타 디자인), 그리고 저 이렇게 다섯 작가가 <레트로 서울>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1920년대에 대한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1920년대 신문 중 하루를 정해서 그날 실린 사건들을 차용해 당시의 상황을 재현하되, 작품은 현재를 반영하는 거죠. 이를테면 ‘김아무개 씨가 순사들에게 쫓겨 방앗간에 숨었다’는 기사가 있다면, 당시의 방앗간을 배경으로 제가 조형물을 만들거나 그래픽으로 벽지를 제작할 수도 있고요. 안소라 작가는 옷칠공예 작품을, 이정형 작가는 당시에 있었던 기타를 만들 테고, 소반을 주로 만드는 류종대 작가는 1920년대에 있을 직한 가구를 만들지 않을까 해요. 전시는 9월이나 10월쯤으로 예정하고 있어요.

글 고정원 자유기고가 · 사진 최성열 · 사진 제공 도파민체

공공극장으로서의 드라마센터 정상화를 위한 연극인 비상대책회의 2차 공개토론회

국가자산 드라마센터, 그 행방을 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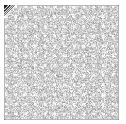


일시 2018년 5월 14일(월) 오후 7시
장소 남산예술센터(구 드라마센터)
주최 공공극장으로서의 드라마센터 정상화를 위한
연극인 비상대책회의

사회 김숙현 연극평론가
발제 조시현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노이정 연극평론가
토론 이봉범 성균관대 초빙교수
이상우 고려대 국문과 교수

드라마센터는 지난 2009년부터 서울시에서 연간 약 10억 원, 총 100억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남산예술센터'로 사용 해왔다. 올해 1월 서울예술대학교(이하 서울예대)가 임대계약 종료를 요청하자, 지난 3월 30일 향후 운영을 위한 현장 연극인 자문회의가 남산예술센터에서 열렸다. '언제까지 임대와 반환이라는 불안한 구조 속에서 극장을 운영해야 하는 가, 공공극장의 안전성을 갖춰나가고 있는 남산예술센터의 지난 10년이 지워진 채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하는 긴급 사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 역사 속에 묻힌 드라마센터의 공공성이라는 화두를 마주했다. 그동안 연 극계에서 사유화 문제와 공공극장 얘기는 계속되었지만 온전하게 관찰된 적은 없었다. 그 저변에는 남한 연극의 아버지 유치진과 그를 매개로 한 스승과 제자의 연결고리가 학계와 현장에 깊이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12일 1차 토론회에 이어 열리는 2차 토론회는 드라마센터 사유화 논쟁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분석해 드라마센터 건립 당시의 사회적 합의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_토론회 인사말 중에서



발제 1

예장동 8-19, 조선총독부 자리에 ‘누가’ ‘어떻게’ 들어왔나

조시현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드라마센터가 있는 ‘예장동 8-19’ 자리는 해방 후 국립과학관으로 쓰였다. 그전에는 일제의 한국통감부와 조선총독부가 있었고 조선총독부가 이전한 1926년부터 은사기념과학관으로 사용됐다. ‘예장동 8-19’ 토지대장을 보면 소유권에 ‘국(國)’이라고 적혀 있다. 소유권은 1978년 ‘학교법인 한국연극연구원’으로 이전되었다.

록펠러재단의 지원을 받아 국유지에 극장 건물이 들어선 과정을 살펴보았다. 유치진은 극장 부지로 문교부 관할 국립과학관 자리를 주목했다. 당시 원조를 받기 위해 법인을 만들었다. ‘재단법인 한국연극연구소’는 1958년 8월 설립되었고 설립 목적은 “민족연극 수립과 그 양양을 위한 연구와 창조”였다. 약 1,000만 원을 출연했고 존속기간은 설립일로부터 30년이었다. 특이한 것은 법인이 ‘재단법인 한국연극연구소’와 ‘재단법인 한국연극연구소 유지재단’(이하 유지재단) 2개라는 점이다. 유치진은 자서전에서 1958년 8월 유지재단을 설립했다고만 밝히고 있다. 유지재단의 목적은 “민족연극 수립과 그 양양을 위한 연구와 창조(원문, 창조의 오기)를 위하여 학교 소극장, 도서관 및 박물관을 유지 경영함”이다. 1963년에는 ‘학교법인 한국연극연구원’(이하 학교법인)을 만든다. 유지재단은 국유재산대부 신청서를 제출하고,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관재국에서는 유상 임대해주시기로 한다. 유상대부조서에는 문교부 국립과학관장으로부터 인수하고, 문교부 장관이 특별 지시했다는 내용이 있다. 국유재산은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보통재산, 보통재산은 보존재산과 잡종재산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잡종재산만 처분할 수 있다. 국립과학관은 행정재산이었지만 재무부로 관리 권한을 변경해 민간에 불하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공익법인과 수익계약을 체결하고 1년간 땅을 빌려주시기로 한다. 유치진은 1960년 8월 대부승인 요청서를 발송했으나, 1960년 9월 문서에는 유치진에게 이 땅을 매각하라고 나와 있다. 이에 따라 매매계약서가 체결되는데 계약 총액은 6,000만 원이었다. 유치진은 돈을 내지 않다가 10년 또는 15년으로 상환하게 해달라는 분납 청원서를 제출한다. 이후 1961년 박정희가 집권하자 국유재산 무상대부 신청으로 변경한다. 이와 별도로 1960년 10월 극장 건립을 시작한다. 당시 건축비 용자와



조시현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정에서 특혜도 있었다. 초점은 유치진이 어느 시점에 공공성, 민족, 국가, 한국 연극을 이야기하고 있는가이다. 결국 토지매각 대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1961년 12월 준공, 1962년 4월 개관했으나 1년도 안 된 1963년 1월 폐관한다. 1963년 12월 당시 재단 이사였던 공보부 장관은 재무부 장관에 대금 납부기간 연기를 의뢰한다. 드라마센터는 1963년 11월 유지재단 이사회 결의로 1964년 2월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넘어간다. 토지대금은 납부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1970년에서야 완납한다.

드라마센터는 당시 국가가 탈법을 저지르면서 편의를 봐주고 혜택을 준 과거를 안고 있다. 어떤 면에서는 비리와 적폐이다. 조선총독부 땅이었지만 여기에서 한국 연극의 역사가 진행되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학교 측이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가와 시민이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토론 1 이봉범 성균관대 초빙교수

토지대장에는 인간의 욕망이 얼룩져 있다. 땅은 말이 없지만 ‘예장동 8-19’ 토지대장은 말하고 있다. 넓게 보면 드라마센터의 공공성을 웅변해준다. 식민권력, 냉전권력, 비민주적 독재권력, 개인의 욕망이 착종되어 있는 우리의 아프고 소중한 역사이다. 여전히 법적으로는 서울예대의 소유이다. 공공성은 분석과 해석의 차이이다. 그 간극에서 공공성의 사회적 이슈화에 대한 많은 고민과 작업이 필요하다. 해방 후 냉전의 문화자본 차원에서 드라마센터의 공공성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1950년대부터 원조경제의 시대라고 하는데, 다른 차원에서는 원조문화와 학술의 시대라 할 수 있다. 미 국무성이나 ICA와 같은 공적자본뿐 아니라 포드재단, 카네기재단, 록펠러재단과 같은 미국의 주요 민간 재단



이봉범 성균관대 초빙교수

이 한국의 문화예술에 집중적으로 원조했다. 드라마센터는 록펠러재단이 주가 되고 아시아재단을 경유하고 한미재단도 결부되었다. 동시대 다른 사례와 비교해보면 1956년 아시아재단의 지원으로 사회과학연구도서관이 발족한다. 한국연구원으로 개칭해 지금까지 4개 대학 총장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통해 엄격하게 운영된다. 최근 재개발로 건물이 철거되면서 보상받은 돈은 다시 인문학에 지원한다. 포드재단은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에 1962년부터 1975년까지 110만 달러를 지원했다. 냉전의 문화자본에서 공공성이 잘 발휘된 예이다. 어찌 보면 드라마센터가 냉전의 문화자본 가운데 공공성을 훼손한 유일무이한 사례이다.

냉전권력과 독재권력의 결부는 유치진과 드라마센터의 존재 방식과 연관이 많다. 1954년 사상전의 총동원 체제를 가동하면서 문화예술에도 광풍이 몰아친다. 친일이라는 민족 문제가 회색되면서 친공이라는 이념 문제로 전치된다. 1955년 사상 검증을 시도하고, 동인문학상을 제정하고 1958년에는 이광수와 최남선을 복권한다. 친일파가 합법적으로 복권되고 냉전의 문화자본이 한국에 작동하면서 소위 새로운 권력자가 등장했다. 그중 한 명이 유치진이다. 유치진은 록펠러재단의 중요한 한국 에이전시가 되고 개인적으로도 지원을 받는다.

드라마센터가 이상한 방식으로 사유화되는 흐름에서 5·16 직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정희 정부는 미국 민간재단과 밀접한 협력 관계를 맺는다. 포드재단이 고대 연구소를 지원할 때 전제 조건은 박정희 정부의 승인을 받는 것이었다. 드라마센터는 중앙정보부가 허가했고 김종필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1961년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공보부의 권한이 강조된다. 공보부의 첫 번째 목표는 대내외적 심리전을 전개하는 것이다. 가장 중시한 미디어가

방송이고 영화, 연극이 그다음이다. 심증이지만 박정희 정부와 유치진의 결탁은 심리전을 중심으로 한 냉전정책과 결부돼 있다. 부정적 측면에서도 드라마센터의 공공성을 얘기할 수 있다는 애기다. 마지막으로 법해석이 학교 측에 먹힐지, 어느 정도 법적 설득력이 있는지 궁금하다.

발제 2

한국 연극 권력의 탄생 - 유치진 일가의 드라마센터 사유화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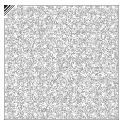
노이정 연극평론가

드라마센터 설립 후 서울예대에 귀속되는 과정을 중심으로 발표하겠다. 먼저 드라마센터 건립 과정의 신화를 다시 보아야 한다. 연극계에서 유치진과 드라마센터는 신화의 영역이었고 객관적인 연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구술 자료, 유치진 자신의 기록에만 의존해왔다. 이제는 누군가 쌓아올린 신화의 영역이 아니라 실재를 들여다보는 시선으로 드라마센터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현실화해야 할 시점이다. 공공의 이름으로 다시 쓰는 드라마센터 건립 과정의 서사가 필요하다. 지난 10년간 계약 형식이기에는 하나 서울예대에서 독립해 공공의 관점으로 재영토화한 남산예술센터는 연극인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공간이었다. 개인의 이익을 내세워 다시 극장을 독점하겠다는 서울예대의 요구는 공공의 자산을 또 다시 잃게 된다는 상실감을 줄 뿐만 아니라 애초에 이 극장의 공공성이 어떻게 훼손되었는지를 다시금 질문하게 한다.

드라마센터의 숨은 역사에 대한 질문은 4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 첫 번째, 록펠러재단이 지원한 5만 5,000달러에 적용된 환율의 진실 문제이다. 1차 토론회에서 당시 유치진이 유리한 환율을 적용받기 위해 노력했으며, 드라마센터 건립비용 15만 달러 중 절반 이상을 미국 재단에서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고 밝혔



노이정 연극평론가



다. 이후 원래 200석가량의 실험소극장을 계획했다가 500석 규모의 중극장으로 확대하면서 한국 연극의 오랜 염원이던 소극장 동참 요구를 외면한다. 두 번째, 드라마센터는 1962년 4월 개관하고 유치진은 1963년 11월 학교법인 인가를 신청한다. 극장은 학교법인 설립을 위한 기본재산이자 학교 유지를 위한 수익 창출의 장이 된다. 유지재단은 드라마센터 기증을 위해 이례적으로 1963년 10월 10일과 11월 3일에 두 차례 이사회를 열었다. 여기에는 건물만 기부하고 대지는 국유지로 10년 분할 상환 중이므로 학교법인이 불법하게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기증을 위해 드라마센터 건물이 유지재단의 기본재산이 아니라는 공증을 받았다라는 점도 특이하다. 세 번째, 드라마센터와 유지재단, 학교법인에서 유치진의 측근을 제외한 동시대 연극인들을 점점 더 배제했다. 유지재단 이사진은 1958년 7인 중 3인 이상이 연극인이었지만, 학교법인에는 유치진의 최측근인 이흥근만 남았다. 드라마센터의 연극사적인 중요성은 이사진 구성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대학이라는 사학 건립 서사로 변한다. 학교법인 이사진 구성에는 유치진 일가의 사적 인연이 두드러졌다. 네 번째, 극장 건물은 학교법인 재산이 되었지만 유지재단은 한국 연극 부흥의 명목으로 금전적 특혜를 정부에 계속 요구했으며 이는 문화발전이라는 명목으로 관철되었다. 1960년 9월 28일 국유재산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계약대금 1개월 내 완납이 조건이었지만, 1960년 11월에는 5년, 1962년 1월에는 10년으로 바뀐다. 이후 대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박정희나 장관들의 협조 의뢰 공문을 받았다. 대금은 1970년 9월 14일 완납한 것으로 1973년 기록에 남아 있다. 이때까지 대지는 유지재단의 소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학교법인에 기증할 수 없었다. 1973년 유지재단 이사회를 통해 대지도 학교법인 소유가 되었으며 실질적 등기 이전은 1978년 이뤄졌다. 드라마센터 건립과 건립 이후의 관리, 운영, 소유의 문제는 56년이 되어가는 지금도 규명되지 않고 논란의 중심에 있다. 현재 드라마센터는 서울예대와 서울시 사이에서 제대로 보수되지 못해 건물 자체의 안전 문제도 대두될 수 있는 상황이다.

토론 2 이상우 고려대 국문과 교수

발제에서 가장 공감한 부분은 드라마센터 사유화 과정에서 나타난 신화적 서사의 해체를 주장한 점이다. 1962년 드라마센터 설

립은 1935년 동양극장 이후 두 번째 연극전용극장이라는 점에서 연극사적 의미가 있다. 이는 록펠러재단이 제공한 종잣돈, 유치진의 헌신과 열정, 국가가 제공한 각종 특혜, 연극계를 비롯한 범사회적 지지와 후원이 한데 모여 이뤄진 결실이라 생각한다. 록펠러재단과 유치진의 유착 관계에는 맥락이 있다. 유치진이 1930년대부터 30년 동안 한국 연극계의 대표적 인물이었고, 해방 직후 좌우 대립 상황에서 우익 연극계의 독보적인 존재였다는 점, 1950년 설립된 국립극장 초대 극장장이었다는 점, 1950년대 연극계를 주도했던 극단 실험을 이끌었다는 점 등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드라마센터 설립 과정에서 록펠러재단과 유치진 개인의 집요하고 열정적인 헌신과 노력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서사가 지나치게 강조되었고 유치진의 측근 연극인, 제자, 서울예대를 중심으로 희생 서사와 신화가 확산된 것이다. 신화적 서사가 드라마센터의 사유화를 합리화하는 이론적 도구로 악용된 것도 사실이다.

먼저 드라마센터의 역사적 진실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드라마센터는 연극을 사랑하는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향유해야 하는 공공극장이다. 동시에 역사·문화적 의미를 띤 한국근대문화유산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공공건축물이다. 드라마센터가 특정 사학을 위한 교육시설로 되돌아간다면 앞으로도 암담한 세월이 지속될 것이다. 다음으로 드라마센터의 사회 환원에 대한 방법론적 고민이 있어야 한다. 바람직하고 현실적인 방법은 정부나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서울예대와 대타협을 통해 공공극장으로 환원시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정한 보상이 있을 수 있다. 현실적으로 법적 소유권 문제가 있고, 서울시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공공극장으로 환원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서울예대에서 거부한 전례도 있다. 유치진 유족, 서울



이상우 고려대 국문과 교수

예대가 드라마센터를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역사성이 있는 드라마센터라는 극장 이름도 보존할 수 있다. 건립 과정에서의 유치진의 기여에 대한 적극적인 인정도 필요하다. 대타협을 통해 드라마센터를 사회에 환원하고 남산예술센터와 같은 방식의 공공극장으로 지속 성장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다.

‘공공극장’의 사회 환원을 요구한다

김숙현 공공재로서의 드라마센터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발제와 토론 내용에 대한 질문도 좋고 정상화 방안을 얘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윤수(작가) 개인적으로 드라마센터 사유화 과정이 처음부터 의도적이었는지, 자신도 모르게 우연히 이루어진 결과인지 의문입니다. 당시 유치진의 극장 사유화 문제가 불거져 록펠러재단이 지원을 중간에 끊어버린 사례도 있고요. 재단법인에서 학교법인으로 기부한 과정을 그 당시 연극인들이 알고 있었는지, 알았다면 어떻게 생각했는지 궁금합니다. 드라마센터가 1년도 안 되어 문을 닫고 학교법인 설립을 준비했는데 이 부분도 미리 계획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당시 원조가 많았는데 다른 공공재 사례에서는 어떤 식으로 법인을 구성하고 사업을 진행했는지 비교·분석하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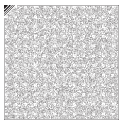
정진수(연출가) 제 생각에는 3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법적 대응입니다. 법적으로 허점이 많아 되찾아올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도 있는 것 같습니다. 비상대책회의에서 전문가와 법률적인 검토를 해보았는지 되묻고 싶고요. 승산이 있다면 법적 분쟁을 통해 되찾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죠. 두 번째는 서울예대와 타협을 통해 공공극장으로 완전히 되찾는 방법과 사용권을 사이 좋게 분할하는 방법입니다. 학생 발표회 장소 활용이 명분이라면 봄학기 와 가을학기에 1년에 2달 정도 사용하게 하고 나머지는 공공극장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은 서울시, 지원기관과 협의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고요. 세 번째 방법은 극단적입니다. 1991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소유하고 있는 동양극장을 폐쇄하겠다고 하자 연극인 500명이 결집해 최초로 가두시위를 벌였죠. 연극인들이 항의시위를 할 것 같다는 보도가 나가자 현대건설은 하룻밤 사이 동양극장을 철거해버렸어요. 이



김숙현 연극평론가

때 연극인들이 폐허가 된 터에 모여 지신밟기를 하면서 시위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연극인들이 서울예대로 몰려가 시위를 할 수 있지만 현실적인 방법은 아니고요. 서울예대와의 타협 가능성에 대해 정중헌 전 부총장의 의견을 들어보았으면 합니다.

정중헌(전 서울예대 부총장) 지금은 퇴직했지만 2009년부터 3년간 부총장으로 있었습니다. 2007년 처음 학교에 갔을 때 드라마센터를 어떻게 할지가 가장 큰 당면과제였습니다. 드라마센터는 학교법인 동량예술원 소속입니다. 법인 소속의 건물에서는 어떤 교육도 할 수 없습니다. 사립학교법상 재단이 소유한 재산은 이익을 창출해 학교에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드라마센터를 음식점으로도 쓰고 미8군 쇼도 열어보았지만 재산이 맞지 않았습니다. 특히 2001년 안산으로 캠퍼스를 이전한 후에는 활용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공연을 올릴 만한 예산과 인력을 갖춘 극단도 흔치 않습니다. 제 판단은 서울시에 대관하는 것이었습니다. 2009년 서울시와 동량예술원이 계약을 맺고 3년 단위로 갱신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남산예술센터라는 이름을 병행하면서 잘 운영해 왔습니다. 서울시와 학교가 좀 더 논의해서 공공극장으로 운영하는 것이 연극인들에게는 가장 좋은 방법 아닐까요? 연극인들이 드라마센터의 존재에 대해 학술적, 이론적으로 확실히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무엇이 정상화일까요? 서울시에서 관리·운영하는 데도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계약 중단을 확대 해석하기보다는 서울문화재단이 계속 운영해서 연극인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공공기관에 맡겨서 연극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록펠러재단의 지원으로 극장을 짓긴 했지만 연극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재 양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드



라마센터를 사유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학교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연극을 전문으로 하는 학교가 전무했던 시절에 자연 발생적으로 학교가 태동했고 많은 인재를 배출한 점은 인정해야 합니다.

김숙현 학교와 서울시가 언제까지 임대계약을 반복해야 할까요? 드라마센터는 공공자산이고 범 연극계의 힘이 결집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법적 투쟁으로 대응해서 되찾아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시현 선생님이 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시현 국가기록원 자료를 검토하면서 법적 쟁점을 같이 엮어보려고 합니다. 쟁점은 조선총독부의 땅이라는 겁니다. 일제의 재산이었다는 측면에서 귀속재산 문제가 있는데 정부는 1960년대에 아무런 역사성이 없는 일반 국유재산으로 업무를 진행했죠. ‘귀속재산처리법’(법률 제8852호)이 1949년 제정되었는데 지금까지 유효합니다. 제2장 제5조에 보면 “귀속재산 중 대한민국헌법 제85조에 열거된 천연자원에 관한 권리 및 영림재산으로 필요한 임야, 역사적 가치 있는 토지, 건물, 기념품, 미술품, 문적 기타 공공성을 유하거나 영구히 보존함을 요하는 부동산과 동산은 국유 또는 공유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장동 일대의 땅의 역사성을 다시 조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유재산법하의 법적 쟁점도 정리하고 세밀하게 검토해서 법률자문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재단법인 한국연극연구소’는 활동 기간이 30년이라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지재단은 지금도 등기부에 나옵니다. 이사진은 1962년에 임명되어 한 명도 살아 있지 않습니다. 유령재단인 거죠. 유지재단은 드라마센터와 땅을 학교법인 한국연극연구원에 넘겨주고 임무가 종료된 것입니다. 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이라면 법인이 해산되어야 합니다. 해산할 경우 기본재산은 국유로 가거나 유사한 목적이 있는 곳에 기부해야 합니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 이사회에서 증여, 기부 논리를 만든 것이죠. 이사회가 열린 1963년에는 국가 땅이었습니다. 완납을 한 1970년에 비로소 학교 측이 소유자 행세를 할 수 있었죠. 자기 손에 없는 것을 증여한 것은 무효입니다.

강훈규(작가·연출가) 다른 맥락으로 남산예술센터가 공공극장으로 기능한 지난 10년 동안 연극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연극인들에게 어떤 의미로 기능했는지, 전과 후가 달라진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를 통해 연극인들이 자신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극장을 다시 한 번 발견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는데 이 논란이 이 극장을 재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심재천(연출가·전 대구문화재단 대표이사) 우리는 이 기회에 공공극장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동랑예술원에서 공공재로서의 극장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법인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법적 분쟁으로 가는 사태가 올 텐데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서울예대에서 긍정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이 먼저고, 그다음 서울시나 정부가 학교 측과 상의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학교 측과 얘기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비상대책회의에서 구체적으로 향후 단계를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이정 드라마센터에는 유치진의 정신과 열정이 깃들어 있지만, 드라마센터 건립으로 유치진 가계와 학교법인은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드라마센터는 최근 10년 동안 학교법인의 수익이기도 했습니다. 서울예대에서 직접 운영해도 수익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유덕형 총장은 ‘유치진극장’으로 하고 싶어 했다고 들었는데요. 이름이 들어가려면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백성희장민호극장’은 사회가 붙여준 이름입니다. 재산 소유주가 이름을 붙이는 건 맞지 않습니다. 자료를 검토하면서 서울예대에서 극장을 아름답게 사회에 기증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어떤 조건도 있을 수 없습니다.

권병길(연극배우) 저는 50년 동안 연극배우를 하면서 이 극장에서 정말 공연해보고 싶었습니다. ‘왜 이렇게 활용을 못할까, 이 멋진 극장에서 우리는 왜 연극을 못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극장이 사유화되고 이익을 생각하면서 사양길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숙현 드라마센터가 한 개인과 일가의 것일 수는 없습니다. 1958년 첫 삼을 뜰 때의 생각은 사유화가 아니었다고 확신합니다. 많은 연극인들이 이 공간 안에서 함께 공연하고 좋은 연극을 만들어서 이 땅의 연극을 진일보시키고 세계 연극의 수준을 올리자는 이상이 분명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치진 선생님을 믿고 싶습니다. 이 극장은 공공극장입니다. 사회에 환원되는 날이 올 때까지 관심을 멈추지 않고 함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리 **전민정** 객원 편집위원 · 사진 **최성열**

※ 토론 내용은 서울문화재단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며 [문화+서울]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드로잉 핸드즈’ 전숙영 작가

사진보다 더 진짜 같은 그림이 나타났다

서양화를 전공한 전숙영 작가는 워너원, 방탄소년단 등 유명 연예인이나 영화 캐릭터, 과일 등을 극사실적으로 그리는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 올리는 유튜브 채널 ‘드로잉 핸드즈’(Drawing Hands)를 운영한다. 아이를 키우는 ‘육아맘’이자 24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크리에이터’인 그는 자신의 그림을 통해 수많은 이들과 소통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한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거듭나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란 유튜브에서 동영상으로 리뷰, 개인 방송 등을 올리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드로잉 핸드즈’로 활동하는 나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의 SNS에 그림 그리는 영상을 올리며 그림으로 소통한다. 나와 유튜브의 인연은 2015년 6월 시작했다. 2012년에 엄마로서의 삶을 시작하며 10여 년 동안 입시 미술 강사로서 그림 작업을 해온 일상이 큰 변화를 맞이했다. 어설픈 엄마로 1년쯤 지내보니 문득 나 자신이 작아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림을 마음껏 그리지 못하는 데 대한 답답함이 몰밀듯이 밀려왔다. 그렇게 나를 찾기 위해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온전히 그림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어둠이 밀려든 후 잠깐뿐이었지만, 그 시간 동안만이라도 작업실에서 집중하며 흑백으로 변한 나를 다시 충전연색으로 물들여갔다. 시간이 지나며 작업물은 쌓였지만 누구도 나를, 그림을 알아봐주지 않았다. 어둠에 불이 밝혀지듯, 옆에서 묵묵히 지켜보며 응원해주던 동반자에게서 반가운 제의를 받았다. 그것이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시작이었다. 그간 다루었던 유화, 아크릴, 연필이 아니라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재료의 매력에 빠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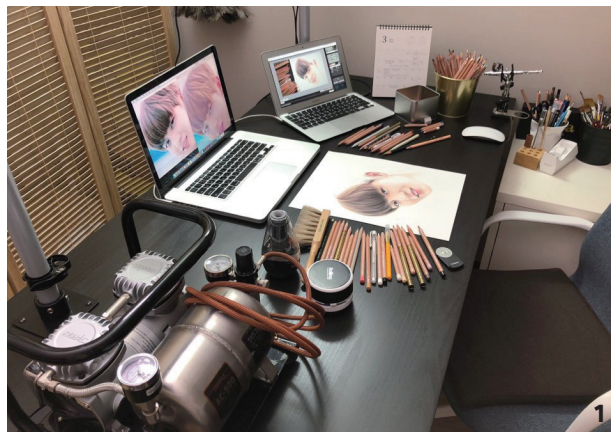
생동감 넘치는 그림으로 소통하다

크리에이터로서 그림으로 소통하길 바랐기 때문에 대중적이며 친근한 재료인 색연필을 그림의 주재료로 사용하기로 했다. 색연필은 겉으로는 얇고 작은 느낌이지만 사용감이나 완성된 느낌은 깊고 강렬하다. 색연필로 작업을 하다 보면 손에 통증이 느껴지

지만 그 정도의 희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완성된 그림 하나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려지는 장면을 영상으로 담기에 작업하는 내내 즐겁다.

처음 그림 영상을 완성한 후 모니터링했던 순간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성취감, 즐거움, 설렘 등 다양한 감정이 오갔지만 그중에서도 신기함이 가장 컸다. 이 즐거움을 많은 이들과 나눌 수 있어 감사하다. 많은 이들과 그림으로 소통하고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도 감사할 일이다. SNS가 발달하지 않았다면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테니까.

작업할 때는 영상미를 위해 그림의 전체를 생각하며 부분적으로 완성해나간다. 인물이나 사물 등 그림의 대상을 선택할 때는 많





- 1 전속영 작가의 작업실 모습.
- 2 방탄소년단의 멤버 뷔.
- 3 트와이스의 멤버 모모.
- 4 영화 <토르: 라그나로크>의 크리스 헴스워스
- 5 입체감이 느껴지는 전구 그림.

그림이 곧 일상이 되다

그림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누구나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작업이기에 어느 누구나 SNS에서, 현실에서 그림 자체로 소통할 수 있다. 소통의 중요성을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며 더 많이 느낀다. 그래서 나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바로 공감할 수 있는 쉬운 작품을 그리고자 한다. 누군가는 깊이가 없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쉬우면서 깊이 있는 작품을 만들고 싶다.

현재는 색연필로 주로 작업하지만 앞으로 그 영역을 더 넓혀나갈 계획이다. 색연필의 한계에 부딪치며 더 짜릿한 경험을 즐기고 싶다. 일상이 그림이며 그림이 일상이길 바란다. 그림을 그리기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 실력, 성실함, 겸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평온함을 즐기고, 때때로 찾아오는 변화를 잘 받아들이어야 한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아임을 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과 성실함으로 앞으로도 즐겁게 활동할 것이다.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직업으로 갖는 것은 큰 축복이자 행복이다.

글 · 사진 전속영 드로잉 핸드즈 작가

*드로잉 핸드즈 유튜브 www.youtube.com/channel/UCQ-Ju-faRRBXsSgsR2IH6cw

이 고민하며 자료를 찾는다. 인물의 특징이 잘 담긴 사진 한 장이 필요하기에 사진을 고르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인물 위주로 작업하며 개개인의 특징을 살피다 보면 한 명 한 명이 다 특별하게 느껴지고, 그림을 그리는 동안 그 대상에 흠뻑 빠지게 된다.

매주 금요일 주 1회 유튜브에 올리는 그림 영상은 평균 3분 정도의 분량이다. 3분이라는 시간을 위해 실제로 작업하는 시간은 대략 8~9시간 이상이다. 촬영할 때는 특히 조명에 신경 쓴다. 조명으로 화면의 집중도가 좌우되기도 하고, 최대한 원본 그림과 비슷한 느낌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만든 영상을 방송사에서도 관심을 가져 여러 공중파와 케이블 TV에도 출연했다. 작업실에서 정기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외주 작업을 하며, 그림 관련 서적도 출간을 앞두고 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예술이다

영화 <위대한 쇼맨> 바넘의 대사 중에서

<서커스 카바레> 문화비축기지

사진 조현우



백남준의 <다다익선> 사후 처리 논의

비디오아트의 운명, 따를 것이냐 거스를 것이냐

미술관이 고이 소장해온 작품의 수명이 다했다. 예의를 갖춰 마지막 길에 잘 보내주는 것이 좋을까, 계속 수리해서 수명을 늘리며 연명하도록 하는 게 좋을까. 전자 영상장치로 이미지를 내쫓는 비디오아트 작품이라면 필연적으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딜레마다. 그것도 비디오아트의 거장 백남준(1932~2006)이 남긴 대표작이라면.

국립현대미술관이 요사이 이런 딜레마 앞에서 고민에 빠져 있다.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 백남준이 김원 건축가와 협업해 과천관의 나선형 로비에 설치한 대형 영상탑 <다다익선>이 최근 꺼졌다. 모니터 브라운관과 기계장치의 내구연한이 다해 더 이상 가동할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 지금은 모니터 영상을 모두 끈 채 '상영을 중단한다'는 알림문을 작품 앞에 붙여놓았다.

<다다익선>에 내려진 사망선고

지난 2~3월 <다다익선>에 대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정기점검 결과는 작품의 사망선고나 마찬가지였다. '계속 가동할 경우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는 누전 상태'란 판정이었다. 점검이 시작된 지난 2월 13일부터 작품 가동은 전면 중단된 터라, 미술관 쪽은 더 이상 작품에 전원을 넣지 않기로 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가동 중단은 익히 예상됐던 사태이기도 했다. 모니터는 물론 배선, 변압기 등의 관련 부품들이 수년 전에 이미 10년의 내구연한을 넘겼는데도, 매일 6시간 이상 전원을 넣고 영상을 켜기 때문이다. 심한 과부하가 걸려 자칫 화재 등

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조마조마한 상황이었고, 이를 감지한 미술관 측은 지난해부터 아예 전담직원을 두고 작품의 이상 여부를 지켜봐 왔다.

높이 18m를 넘는 <다다익선>은 세계에서 가장 큰 미디어아트 조형물이다. 거장 백남준의 영상예술을 집약한 대표작이자, 국립현대미술관의 얼굴로 불릴 만큼 널리 알려진 국민예술품이다. 10월 3일 개천절을 상징하는 1,003개의 크고 작은 모니터들이 모여 6층 탑을 이룬다. 모니터는 모두 다섯 종류다. 6인치 60대, 10인치 552대, 14인치 93대, 20인치 103대, 25인치 195대에 달하는데, 미술관 측은 응급 수리조차 불가능하다고 한다. 모니터 브라운관 등의 주요 부품들이 단종돼 교체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앞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대로, <다다익선>은 지난 30여 년간 지속적으로 수리를 받아왔다. 특히 2003년에는 삼성전자 등의 협조로 낡은 모니터 1,003개를 모두 새것으로 교체하는 대수술을 했다. 그 뒤로도 지난해까지 7차례 이상 내부 기계장치와 영상 등에 대한 부분 수리작업을 하면서 연명해왔지만, 이제 더 이상 수리로는 수명을 연장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

철거와 교체, 두 가지 대안

이 거대 작품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건상 당장 딱 부러진 대안이 나오기는 쉽지 않으나, 수년 전부터 제기되어온 대안은 대략 두 가지로 모인다. 제대로 장사를 치르고 기념하는 것이 첫째 안이다. 철거하고 <다다익선>을 추억하는 오마주 작품을 설치하자는 의견이다. 두 번째는 영상탑 모니터의 브라운관 대신 첨단 LCD를 갈아 끼우는 안이다. LCD 교체는 백남준 작가의 전속 테크니션(기술 전문가)이었고 작품 수리 전권을 받은 이정성 씨와 정준모





1, 2
1,003개의 크고 작은
모니터들이 모여 6층 탑을
이루는 백남준의 대표작
〈다다익선〉.



년대 전 세계적인 전위예술운동 ‘플럭서스’는 장르를 넘어서 사회적 예술을 추구하며 기존 작품의 기념비성, 형식성을 경멸했다. 이런 맥락을 염두에 둔다면, 굳이 〈다다익선〉의 존립에 연연하기보다 작품의 영상콘텐츠를 보존하되 다른 방식의 기념 전시를 여는 것이 낫다는 대안이 설득력 있다.

백남준의 영상작품을 소장한 외국의 미술관이나 미디어아트 관련 기관들은 작품이 고장 나거나 수명이 다했을 때의 처리 방법에 대한 공통된 매뉴얼을 공유하고 있지 않다. 독일의 경우 철저한 원본성을 고집하며, 미국과 일본은 상황에 따라 최근 개발된 기계나 영상을 붙여 수리할 수 있다는 식의 유연성을 보이는 편이다. 기관과는 별개로 소장가들 또한 각기 다른 방침이 있을 것이기에 문제를 풀기가 더욱 난감하다. 〈다다익선〉은 30년간 미술관 현관에서 관객들을 맞으면서 국립현대미술관의 상징물로 굳어진 상황이라 철저론은 대중적 반발을 부를 소지도 있다.

미술관 측은 〈다다익선〉의 장래와 관련해 백남준 작품을 소장, 관리해온 세계 각지의 기관과 유족, 소장가들의 의견을 듣기로 하고 최근 자문 리스트 작업을 거의 마쳤다. 작품 저작권을 가진 미국 스미소니언 미술관과 고인의 대리인인 조카 켄 백 하쿠다 등의 유족, 전속화랑인 가고시안, 기술자 이정성 씨, 정준모 전 학예실장 등이 포함된 방대한 자문단을 꾸려 심포지엄 등을 통한 장기 논의를 거듭하면서 신중하게 결론을 낼 방침이라고 한다. 백남준의 역대 작품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상징성도 높다는 점에서 〈다다익선〉 존속 논란은 미디어아트 역사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논의가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볼 일이다.

글 노형석 한겨레 미술문화재 전문가 · 사진 제공 한겨레

전 학예실장 등이 유일한 대안으로 주장해왔는데, 고인의 증언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이정성 씨는 “생전 백 선생이 영상 이미지만 온전하게 내보낼 수 있다면 지금 개발된 기술을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수시로 말씀하셨다”고 했다. 정준모 전 학예실장의 증언도 비슷하다. 그는 “2003년 미술관이 〈다다익선〉의 브라운관을 교체할 당시 백 선생에게 대안을 물었더니 ‘요즘 쓰는 납작한 걸로 붙이면 되지, 앞으로 다 그렇게 바뀔 텐데 그렇게 바꾸면 된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미술계에서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평단과 국립현대미술관 내부의 일부 학예사들은 LCD 화면으로 교체한다면 작품의 원래 외형을 변형시킬 뿐 아니라 투사되는 화면의 질감도 달라져 고유의 정체성이 변질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다. 생전 백남준도 작품의 운명에 얽힌 논란의 소지를 생각했던 듯하다. 세간에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다다익선〉을 설치할 당시 10년만 전시하기로 미술관과 약정한 것도 그런 사정 탓일 것이다. 백남준이 요셉 보이스, 조지 마키우나스와 주도했던 1960~70

예술과 기업경영의 관계 맺기

이 시대의 체인지 메이커, 예술

지난 4월 17~18일, 기업경영과 관계를 맺는 예술, 그리고 그 예술이 만들어내는 변화에 주목하는 국제 심포지엄(Arts of Management Symposium)이 'The Arts of Resilience for Leadership and Management'(리더십과 경영을 위한 예술의 회복탄력성)이라는 주제로 런던의 City University Cass Business School에서 개최됐다. 단순히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가 아니라 각각의 사례를 중심으로 아고라의 장을 열고 질의와 토론을 자유롭게 펼치며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기업경영 영역에 적극적으로 예술을 도입하려는 유럽과 미국의 발제가 주를 이루었으며, 아시아에서는 서울의 사례가 유일하게 발표됐다.

1
심포지엄에 참여한
한지연 미디어소통실장의
발표 모습.

2
지오바니 쉬우마 교수.

예술은 '유별난' 것일까?

영화와 뮤지컬로 제작된 <빌리 엘리어트>에서 발레는 1980년대 영국 북부 탄광촌의 열악한 환경과 대비되는 꿈의 영역이자, 가난한 현실에서 도피할 수 있는 비상구였다. 예술적 재능과 감수성을 지닌 소년 '빌리'는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결국 최고의 발레리노가 된다. 하지만 관점을 달리해 작품 속에서 표현하는 발레를 바라보면 예술은 평범한 삶에서 다가가기에는 '유별난' 것이며, 예술적 삶은 노동자의 삶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영화 속 윌킨슨 선생의 대사에서도, 빌리를 위해 희생을 선택하는 아버지의 대사에서도 그러한 생각을 엿볼 수 있다.

"빌리는 당신들처럼 모자라고 하찮은 월급쟁이로 자라지 않을 거야!"

"우리는 이제 끝장났을지도 몰라, 빌리는 천재일지도 모르잖니. 그냥 빌리에게 기회를 주자꾸나."





한성자동차 CSR '드림 그림' 프로젝트

한성자동차의 자체 장학사업인 '드림 그림' 프로젝트는 예술적 재능이 있으나 여건이 충분치 않은 초·중·고 학생 40여 명을 선발하여 교육과 다양한 예술적 체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예술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을 포함하면 그 인원은 40명을 훨씬 넘는다. 드림 그림 프로젝트는 한성자동차의 조직 문화 프로그램과도 연결되어 있다. 직원들은 '엠버서더'라는 명칭으로 예술적 코칭 외 생활, 학업, 고민 등에 대해 아이들의 일대일 멘토로 활약한다.

2018년 현재, 예술은 꿈이 아니며 힘겹게 도달해야 하는 특별한 무엇도 아니다. 예술은 일상 속에서 스스로 참여하는 삶의 방식이며 나아가 복잡하게 변화하는 사회 구조 안에서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새로운 형태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지역사회뿐 아니라 기업경영과 관계를 맺는 예술 또한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진화 중이다.

서울문화재단은 2012년 신설된 문화재휴팀, 제휴협력실을 거쳐 2018년에는 미디어소통실의 기업 커뮤니케이션팀인 메세나팀 주도하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하 CSR) 영역에서 예술과 지속적인 관계 맺기를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4월 심포지엄에서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공식 딜러 회사인 한성자동차와 2014년부터 4년간 협업해온 사례를 발표했다. 한성자동차의 CSR 설계 전략에 결합한 예술 활동은 그동안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에서 주를 이루었던 장학사업을 지역사회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예술적 실천과 연결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CSR로서 주로 운영되는

장학사업은 지원하는 사람과 수혜받는 사람이 양분되어 그 혜택 범위는 1단계¹⁾에 머문다. 그러나 서울문화재단은 장학사업에 참여하는 예술적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지역사회 예술가 혹은 프로젝트와 새롭게 결합시키면서 지역사회에 예술적 실천을 함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그 예술의 가치가 2단계²⁾ 혹은 3단계로 확장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예술이 기업경영과 접목되는 지점이 서울의 경우 CSR이라면, 유럽과 미국에서는 기업경영과 예술의 관계 맺기 사례를 주로 리더십과 관리자 교육, 조직문화, 그리고 혁신 부문에서 찾을 수 있다. 이를 경영학계에서는 'Arts-Based Management'라고 통칭하며 직관, 창의, 공감, 개방성 등 예술의 본질적 가치를 경영 분야에 적극적으로 응용하고자 한다. 심포지엄을

Arts for Business Institute

지오바니 쉬우마(바치리카대 경영학과 교수, 런던 예술대 혁신허브 센터장)를 주축으로 운영되는 비영리기관. 예술의 가치를 조직 및 기업경영에 적용하는 예술 기반 경영(Arts-Based Management)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논한다. 관련 교육 및 연구, 컨설팅, 평가 등을 진행한다.

Arts of Management Symposi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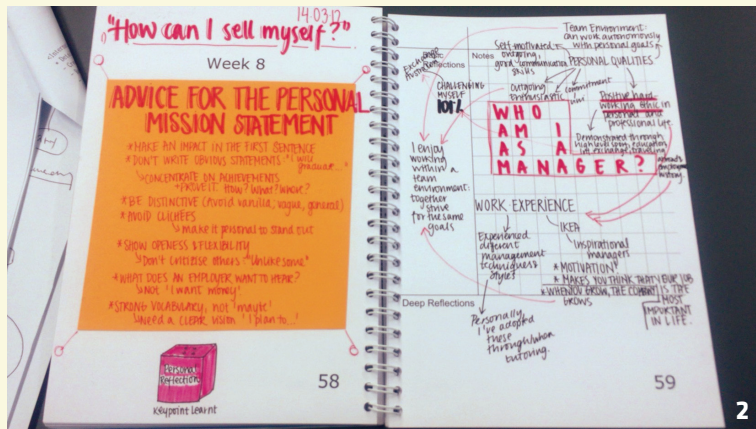
예술 기반 경영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론 및 사례들을 공유하고, 질의와 토론을 통해 상호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아고라 형태의 심포지엄. 경영 트렌드, 경영 혁신, 경영에서 예술의 역할, 조직 및 새로운 경영의 미학적 접근, 기업이 정신, 리더십 및 관리자 교육 등 다양한 스펙트럼의 주제를 문화예술과 연계하여 다룬다.

1) 필자는 경영철학자 아지리스(Argyris)의 조직학습 설계에서 벤치마킹하여 이를 'Single Loop Design'이라 설명했다.

2) 필자는 이를 'Single Loop Design'과 비교하여 'Double Loop Design'이라 설명했다. 실제로 아고라의 장에서는 triple, quadruple로 확장될 수 있는 모델을 계속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호응했다.



1



2

1
예술이 기업의 변화에 미치는 8가지 영역.
(서울문화재단 제공)

2
Cass Business School에서 수업 중 사용하는 필기 & 성찰 노트.

개최한 Arts for Business Institute의 의장 지 오바니 쉬우마(Giovanni Schiuma) 교수는 21세기 비즈니스 모델에서 모든 것이 초고도로 발전되어도 인간 중심의 사고를 잃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예술의 본질적 가치가 다른 곳에 전이되었을 때 나타나는 시너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심포지엄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사회 구조가 점점 더 복잡해지면서 기업이 당면하는 다양한 문제들은 결코 시스템에 기반한 경영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오히려 관계, 공감, 소통 등 인간의 특성과 관련된 근본적인 것에서 발생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예술의 본질적 특성과 결합하여 풀어보는 것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술의 본질적 가치는 인간의 감성뿐 아니라 다양한 경험과 연결되어 문제를 이해하고, 창의와 혁신을 위한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술이 기업경영뿐 아니라 사회 곳곳에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되고 그 가치가 전이된다면 매우 의미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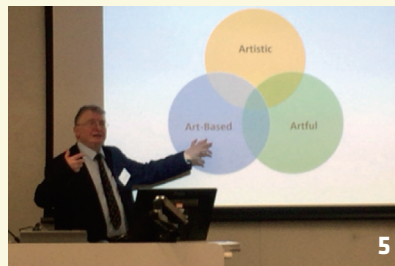
이러한 지속적인 시도는 예술과 경영의 연결을 대학원 교과과정에서부터 수용하여 받아들여야 하는 노력에서 엿볼 수 있었다. City University Cass Business School에서는 수업 중 ‘필기 & 성찰 노트’ 키트를 사용하는데,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들도 수업 중 배우면서 발견한 문제와 느낀 점을 거기에 적어 내려간다. 같은 문제를 놓고도 접근하고 표현하는 방법이 저마다 다른 것은 예술의 독창성과 맞닿아 있는 듯하다.



예술의 사회적 실천

서울문화재단은 예술가의 창작을 지원하고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일상 속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며, 또 다른 한 축으로는 예술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지속적으로 확장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서울문화재단의 문화정책위원회와 지역문화본부에서 다루었던 주제 또한 그러했다. 예술이 사회 곳곳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예술 그 자체로 변모하는 양상, 나아가 그 영향력이 다변화하고 있음에 주목한 것이다.

예술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이야기할 때 그 개념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인식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소위 ‘사회적 예술’ 혹은 ‘소셜 아트’(Social Art)라고 일컬어지는 예술 활동의 혼재된 개념을 2017년 지역문화본부의 연구에서는 ‘예술의 사회적 실천’으로 잠정적 개념화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예술의 사회적 실천은 작가 개인의 산출물에 관객에 관람되는 예술이 아니라 집단과 지역, 사회, 개인 속에 작용하여 예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변화의 유발자로서의 예술 혹은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를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작가와 대상이 참여하는 공동의 협력 과정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그 과정 속에서 관람이 아닌, 체험과 실천을 통해 공간화하는 예술 양상을 일컫는다.” 지오바니 쉬우마 교수가 예술의 본질적 가치를 기업경영에 전이시키는 것을 강조하듯, 예술의 사회적 실천은 이 시대의 다양한 사회적 이슈와 문제들에 예술을 결합시키고 지속적으로 확장해야 함을 넉넉히 강조한다.



3~5

심포지엄의 발제자들은 주로 학계 및 현장의 프로그램 기획자와 실무자들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잠정적으로 개념화한 예술의 사회적 실천 양상은 50여 개 예술단체의 예술가 및 기획자들이 참여한 라운드테이블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었다. 라운드테이블은 크게 지역 활동으로서의 예술, 예술과 경제 활동을 접목하여 추구하는 사회 혁신, 생활예술과 제작문화를 결합한 일상창작으로서

의 예술, 교육과 치유로서의 예술, 사회적 행동으로서의 예술 참여로 나눠 진행되었다. 심층 인터뷰로 진행된 과정은 그 다양한 활동 양상을 탐색하고, 참여자들의 가치관 등을 공유하며 예술의 사회적 실천을 위한 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해나가는 시작점이었다. 예술의 사회적 실천으로 설명한 다양한 활동들은 예술 활동을 통한 삶의 방식과 태도 변화, 사회 통합적 효과, 창의적 사고 제공, 건강과 행복한 삶에 대한 계기 제공 등의 관점에서 예술의 사회적 영향 연구와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올해는 2017년의 기초 연구에 이어 예술의 사회적 실천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장시키기 위한 서울문화재단의 역할 방향성 도출을 목적으로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했다. 또한 예술의 사회적 실천과 관련한 담론을 형성하기 위해 예술단체들의 모임을 후속 기획하고 있으며, 앞으로 [문화+서울] 지면을 통해 집중 조명하려고 한다.

예술은 ‘유능한’ 체인지 메이커다

예술은 그 자체로 우리 삶에 있을 때에도, 그리고 다른 무언가와 특별한 관계를 맺을 때에도 빛난다. <빌리 엘리어트>의 월킨슨 선생님과 빌리 아버지의 생각은 편견이었다. 예술은 이 세상의 모든 월급쟁이와 늘 함께할 수 있다. 예술은 지금의 삶을 보상받기 위해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저 함께하며 위안을 주고 생각과 관점을 바꾸게 하는 예술을 이제 모두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글 한지연 서울문화재단 미디어소통실장

2018 책의 해

책의 해가 둥글게 뒹뒹합니다

불기운이 완연한 3월 22일, '2018 책의 해' 출범식이 열렸다. 2018년은 독자에게, 아니 책을 잘 읽지 않는 사람에게 둥근 해가 밝은 빛을 비추는 한 해가 될 것이다. '2018 책의 해'를 맞아 우리 생활 가까이에서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진다.

1



2

#무슨책읽어?

작년 국민독서실태조사에서 성인 10명 중 4명은 1년에 책을 단 한 권도 읽지 않는다고 답했다. 책을 읽지 않는 삶을 살고, 책 없이 일상을 꾸려가는 사람이 많았다. 책을 읽지 않는 이유는 하나같이 시간이 없어서였다. 책의 가치, 의미는 알지만 너무 바빠 삶의 바퀴를 돌리느라 외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책의 해'는 1993년 이후 두 번째, 25년 만이다. 다양한 지식 전달 매체와 속도 빠른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인터넷 시대에 책을 어떻게 생활 가까이 둘 수 있을까?

'2018 책의 해'의 표어는 '#무슨책읽어?'다. 아예 해시태그가 붙어 있다. SNS 시대의 책을 이야기하자는 희망이 담겨 있다. 가까운 사람에게 안부 인사로 무슨 책을 읽는지 묻고, 서로가 읽은 책의 정보와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것. 책이 소통의 화두가 되게 하자는 취지다.

집행위원회가 꾸려지자마자 머리를 맞댔다.

홀로 책 읽기의 까다로움을 벗어나 함께 읽는 방식, 책과 즐겁게 노는 법을 고민하고, 완독의 강박을 버리고 책이 주는 메시지와 가치를 내 인생으로 끌어들이며 향유하는 것 등 실천을 염두에 둔 사업 방향을 설정했다. 방향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 '함께 읽자'와 '생활 가까이 책을 두자'이다.

사람의 온기가 그리워 SNS를 하고 모임을 하는데, 여기에 책을 접목하면 삶의 질을 품위 있게 유지하면서 시간이 없어 못 읽던 책을 생활 속으로 끌어들이 수 있다. 안부 인사로 물어보자. "무슨 책 읽어?"

아쉽게도 '2018 책의 해' 대국민 독서 캠페인이 시작된 '광화문 광장 축제'의 둘째 날, 비바람 때문에 행사가 취소되었다. 4월 22일 행사 첫 날에도 조금씩 비가 흩뿌렸지만 광화문 광장을 찾은 사람들은 '오픈 스튜디오'에서 진행하는 팟캐스트를 통해 책 이야기를 들었고, 독립책방 20곳의 매력적인 책들을 접했으며, 책 낭독회와 이어지는 저자 강연에서 생생한 책의 메



시지를 전달받았다. 광장에 하룻밤 사이 깔아 놓은 잔디밭 위의 도서관 '라이프러리'와 책 놀이터인 '북그라운드'에서 아이들은 마음껏 책을 읽고 뛰어놀았다. 광화문 광장에 책 이야기가 울려 퍼지고 책이 활짝 펼쳐지는 풍경을 보고 싶었던 마음은 비바람에 다소 흐려졌지만, 연말까지 계속될 프로그램이 있으니 아쉬움을 달랠 수 있을 것이다.



책과 함께 변화하는 한 해

'2018 책의 해'는 3월부터 매달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독서 환경, 책을 둘러싼 생태계를 점검하고 희망을 발견하자는 의미의 '책 생태계 비전 포럼'이다. '책 생태계의 오늘을 말하다', '책의 새로운 얼굴', '저자의 탄생', '출판 비즈니스의 모델', '서점, 독자를 만나다', '도서관, 내일을 말하다', '읽는 사람 읽지 않는 사람', '책 생태계의 과제' 등의 주제로 연말까지 진지하고 흥미로운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또 도서관과 연계하여 '책 읽는 가족 한마당 축제', '전국 도서관 독서 모임 확대 행사', '우수 독서 프로그램 발굴, 도서관 확산 운동' 등을 실시한다. 서점과 연계하여 '전국 심야 책방의 날'을 만들고 '찾아가는 이동 책방, 북트럭'이 전국을 돌아다닐 예정이다. 책방은 왜 낮에만 문을 열까? 밤은 책과 친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다. 청춘이 몰려드는 홍대 앞부터 책방이 심야에도 문을 여는 날을 만들어 '책 읽는 밤'의 추억을 선사한다. 카페와 술집이 아닌 서점에서 보내는 청춘의 밤은 어떤 빛일지 기대된다. 또 책방이 큐레이션한 트럭이 곳곳을 다니며 책을 판매한다.

1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포스터.

2~4
4월 22일에 열린 2018 책의 해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기념 광화문 광장 축제 현장. 23일 행사는 비바람으로 인해 취소됐다.



대국민 공모, 참여사업은 '2018 책의 해'의 책의 가치 공유 캠페인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독자 누구나 '나도 북튜버'(Book-Youtuber), '위드북'(With Book) 등에 참여하여 상금을 받고 홍보대사가 될 수도 있다. 특히 '북클럽 리그 대회'나 '우리 고전 다시 쓰기' 등은 재미있는 경쟁 구도로 독서 모임을 활성화하고 독서 행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민관 합동으로 힘을 모은 '2018 책의 해' 집행위원회는 '지역별 책 플러스 네트워크 발족', '책 마을 지정 시범사업', '지역 책 축제 우수 프

로그램 지원사업' 등을 통해 풀뿌리 독서사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모사업도 진행한다. 이 모든 행사는 '2018 책의 해' 홈페이지(www.book2018.org)에 공지되며 시민들의 참여를 기다린다.

책과 함께하는 삶이 근사하다, 재미있다, 생가 있다는 사실을 강렬하게 새기고, 책 읽기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사실을 깨우치는 계기를 '2018 책의 해'에서 마련하기 바란다. 책과 함께 조금씩 변화하는 사람들을 보고 싶다.

글 정은숙 '2018 책의 해' 집행위원장, 마음산책 대표
사진 제공 '2018 책의 해' 조직위원회



사각사각플레이스

휴식과 예술이 하나 되는 곳

서울시민의 쉼터 하면 생각나는 곳, 바로 한강이다. 탁 트인 하늘과 시원한 강 등 자연과 벗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친구, 가족과 운동 하거나 소풍을 갈 때 즐겨 찾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바란다면 잠실 한강공원에 있는 ‘사각사각플레이스’가 답이다. 이곳에선 자연과 예술을 함께 누릴 수 있다.

강변을 따라 이어지는 보도와 자전거도로, 그리고 가로수. 여느 한강공원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다. 그런데 잠실한강공원에 들어 서면 알록달록한 컨테이너 박스들이 시선을 끈다. 저절로 발길이 향하고 촬영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이곳은 바로 사각사각플레이스다.

사각사각플레이스는 청년예술가와 시민들의 소통공간을 목적으로 지난 4월 20일 개장했다. 18개 컨테이너에는 총 14개 단체에 속한 38명의 예술가가 입주해 있고, 공용시설인 운영실과 회의실이 마련돼 있다. 그 외에 야외무대, 캐노피 공간 등도 있다. 음

악, 미술, 영상, 연극, 만화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창작공간을 지원받아 개인 작업뿐만 아니라 입주 동료들과의 협업 활동,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예술 체험 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예술가에게 꿈의 공간을

“공방을 갖는 게 꿈이었는데, 강사로 일하며 모은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꿈을 접어야 하나 생각했을 때 이 사업을 알게 됐어요.”(도예작업실 ‘느긋’ 정수원 작가) “카페나 집에서 작업하다 보면 동료들과 모여 회의할 거점공간이 없어서 힘들었어요.”(희곡 작가 모임 ‘가청주파’ 이사랑 작가) 이곳의 창작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입주 신청 이유는 자신의 작업실을 갖고 싶은 바람이었다. 사각사각플레이스는 바로 이런 청년예술가들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돕기 위해 문을 열었다.

작업실이 한강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은 창작자들의 의욕을 더욱 고취시킨다. “도심에선 보통 작업실이 지하에 있고 지상에 있더라도 창문이 있는 작업실을 얻기 힘들는데, 여기선 한강이 바로 보인니까 정말 좋아요. 입주한 첫날, 노을을 보고 있으니 절로 곡이 나오더라고요.” 인디음악을 하는 ‘HAZE MOON’이 말하는 ‘한강 메리트’는 다른 작가들도 공감하는 부분. 정수원 작가 역시 입주 후 이곳에서 작업해보니 “자연 속에서 일할 수 있고, 시민들 또한 자연 속에서 예술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어 좋다”고 말한다. “일



- 1 사각사각플레이스 전경.
- 2 도예작업실 '느곳' 내부 모습.
- 3 시민들의 도예체험.
- 4 입주 뮤지션인 'HAZE MOON'의 공연 모습.

단 한강에 놀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 더 많은 관객들과 만날 수 있어서 좋아요. 자전거 타러 나온 중년들이 오히려 저희 공연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세요.” ‘오디티’ 김신현 공연기획자의 말처럼, 한강의 시원한 자연경관뿐만 아니라 오가는 시민들 역시 창작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민 모두가 향유하는 예술

공간을 제공한 서울시와 서울시민이 보여준 관심에 대한 보답으로, 사각사각플레이스 입주자들은 시민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개발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도예를 비롯한 공예, 설치미술, 회화 등 미술 장르를 다루는 스튜디오는 체험 및 전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과 만나며, 연극이나 음악 작업을 하는 단체들은 주로 공연을 통해 관객과 호흡한다. 시민들은 아트마켓에서 개성 있고 아름다운 작품을 구입할 수도 있다.

그 외에도 창작자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 활

로를 모색 중이다. 희곡 작가들로 구성된 ‘가청주파’는 연극 공연이나 희곡 낭독을 넘어서, 작은 희곡 도서관을 열 생각이다. 또 시민들이 소소하게 글쓰기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어진 대화에 이어 한 줄 글쓰기 같은 시도를 하며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다. ‘오디티’는 한강을 오가는 시민들에게 받은 사연을 바탕으로 음악 공연을 꾸미려고 계획 중이다.

완성도 높은 창작활동과 시민과의 폭넓은 교류는 어떻게 가능할까? 이는 사각사각플레이스에 입주한 모든 이들의 고민일 것이다. 장르는 다르지만 같은 창작자로서 유대감을 느낀다. 이런 공감과 응원의 손길이 만나 협업으로 이어지면, 새로운 작품이 탄생하곤 한다.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의 시너지를 끌어낼 수 있는 협업을 한다면 그게 이곳에서 이루는 큰 성과가 아닐까 해요.” ‘가청주파’ 전지욱 작가의 바람은, 창작자와 시민 간의 소통뿐만 아니라 창작자들의 교류 강화로 장기간 소통을 추진하려는 사각사각플레이스의 운영 목표와 맞닿아 있다.

사각사각플레이스는 오는 7월에 열리는 ‘한강몽땅 여름축제’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고, 10월에는 반년 간의 성장 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각사각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이다. 그때까지 창작자들의 성장 과정은 언제나 잠실한강공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창작자들과 시민들의 관심이 뜨거운 색다른 문화 공간, 사각사각플레이스. 이제 막 문을 열었지만 잠실한강공원의 중심지가 될 날이 머지않아 보인다.

글 이민선 자유기고가 · 사진 제공 사각사각플레이스



세운전자박물관

부활을 넘어 진화를 꿈꾸다

세상의 기운이 다시 세운상가로 모이고 있다. 2017년 9월 서울시의 세운상가군 도시재생사업 ‘다시·세운 프로젝트’ 1단계가 마무리된 데 이어, 세운전자박물관, 세운테크북라운지, 세운인라운지 등 거점공간이 지난 4월 10일 동시에 문을 열었다. 세운상가 하면 떠오르던 불법 복제 비디오테이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4차 산업혁명과 함께할 신세계가 펼쳐지고 있다.

다시·세운 프로젝트

‘세운상가’라고 하면 종묘와 마주 보고 있는 세운상가 건물 하나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종로에서 시작해 퇴계로까지 약 1km에 이르는 주상복합건물단지를 말한다. 세운상가를 설계한 건축가 김수근(1931~1986)은 1967년 건립 당시 세운·청계·대림·삼풍·풍전·신성·진양 등 7개 상가를 연결하는 보행데크를 건물 3층에 설치해 도심 한가운데를 관통시키고자 했으나 꿈을 실현하지 못했다. 이후 50년이 지나 ‘다시·세운 프로젝트’의 1단계 구간인 세운·청계·대림상가 재정비를 통해 총 500m에 달하는 3층 높이의 보행데크가 설치되었다. 세운 메이커스 큐브(이하 큐브)는 설계자의 원래 의도대로 이어진 보행데크 공간을 활용해 조성했다. 보행데크 2층과 3층, 동쪽과 서쪽에 29개의 컨테이너가 줄지어 들어섰다. 큐브에는 세운상가 수리장인들이 만든 수리수리협동조합을 비롯해 전자의수를 만드는 ‘만드로’, 대화형 반려로봇을 제작하는 ‘서큘러스’ 등 16개의 스타트업과 예술가 그룹이 입주했다. 계단과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를 통해 지상에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보행데크는 바깥세상과 세운상가를 연결해 준다. 큐브를 마주 보고 있는 기존 상가도 공방, 카페, 음식점 등이 하나들 들어서고 젊은이들의 발길이 잦아지면서 활기를 띠고 있다.

반세기 기술사 조명, 세운전자박물관

세운전자박물관(세운 메이커스 큐브 세운-서301)은 세운상가 서쪽 데크 3층에 자리한다. 개관 기념 기획 전시로 우리나라 기술 문화 발전의 기틀을 닦은 세운상가와 청계천 일대의 역사와 기

술자들을 재조명하는 〈청계천 메이커 三代記〉가 올해 말까지 열린다. 전시는 세운상가의 시작부터 현재까지를 1~3세대로 구분해 순차적으로 보여준다. 1세대는 1950~60년대로 한국전쟁 이후 자생한 청계천 전자상가 소리미디어 시대, 2세대는 세운상가가 들어선 후 전자제품이 활발하게 거래되고 자체 개발된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멀티미디어 시대, 3세대는 3D 프린팅 등 새로운 기술과 콘셉트의 기술자원이 유입된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네트워크 미디어 시대이다. 기술자들의 작업공간을 재현해놓아 주요 전자제품과 개발품을 세대별로 살펴볼 수 있다. 진공관 라디오, 오픈릴 테이프 레코더, 트랜지스터 텔레비전 등 희





귀 전시품들은 세운상가 일대 기술자들이 제공했다.
3세대 공간은 큐브 입주업체들의 제작품을 중심으로 전시한다. 임플란트, 연골 등을 만드는 의학용 3D 프린터, 근육의 움직임을 인식해 센서가 작동되는 전자의수, 물고기 배설물로 식물을 키울 수 있는 아쿠아팜 등이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개관 이후 반응을 묻자 오아영 홍보매니저는 “아직 일반 시민보다 학생이나 관계자들의 방문이 많다. 건축 전공 대학생들이 답사를 많이 오고, 지방의 도시재생 담당자, 스타트업 관계자 등 정말 다양하다”면서 홍콩, 싱가포르, 마카오 등 해외에서도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11월까지의 매주 화요일 초등학교 단체를 대상으로 ‘세운 영메이커 교육’을 진행한다. 큐브에 입주한 ‘만드로’와 로봇 의수 만들기 체험을 하고, 세운전자박물관, 세운테크북라운지 등을 둘러보는 과정이다.

영감을 주는 쉼터, 세운테크북라운지

박물관에서 데크를 따라 청계천을 건너 대림상가로 넘어가면 세운테크북라운지(세운 메이커스 큐브 대림-서304)가 나온다. 테크북라운지에서는 최신 과학기술 서적과 메이커 문화 관련 서적 등을 열람할 수 있다. 오아영 홍보매니저는 “최신 기술 트렌드를 접할 수 있는 단행본과 정기간행물 등 총 800여 권을 비치했으며 매월 신간도 들어온다”고 했다. 큐브 입주자와 세운상가 상인은 물론 세운상가를 찾은 메이커와 주변 직장인, 일반 시민 모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세운인라운지는 큐브가 아닌 세운상가 2층 내부에 있다. 제품 사



- 1 세운전자박물관 내부.
- 2 큐브 입주업체들의 제작품을 중심으로 전시한 3세대 공간.
- 3 세운전자박물관 전시품.
- 4 세운상가 상인과 제작자들의 협업을 위한 세운워크룸.
- 5 세운테크북라운지.

진을 찍을 수 있는 ‘슈팅스튜디오’(마월 205호), 휴게공간이자 아카이브 룸인 ‘주민사랑방’(마월 211호), 세운상가 상인과 제작자들의 협업을 위한 ‘세운워크룸’(바월 203호) 등 3곳이 기존 상가 사이사이에 들어섰다.

이외에도 세운파트너라운지, 세운561메이커스교육장 등 세운상가와 큐브 입주자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회의 등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곳곳에 생겼다. 다양한 공간들을 활용해 큐브 입주업체들이 워크숍을 여는가 하면 상가 기술자가 신제품 발표를 하기도 한다. 젊은 창작자들은 세운상가 상인들과 교류하며 아이디어를 실현해나가고 기술 장인들은 청년 창업가들의 멘토 역할을 하고 있다. 세운상가에 새로 생긴 공간들과 외부 기업과의 교류도 활발하다. 세운상가 4층의 ‘명사서책방’(가월 427호)은 테크북라운지에서 북 콘서트를 개최했고, 5회를 맞은 벅스 게임 유저들의 축제 ‘네코제’는 5월 말 세운상가 일대에서 열렸다. 끊임없이 신제품이 출시되는 전자제품처럼 세운상가는 새로운 버전으로 업데이트 중이다.

글 전민정 객원 편집위원 · 사진 제공 메타기획컨설팅, mto



공연 <안은미의 북.한.춤>과 <발레 춘향>

남북 그리고 동서양, 몸 안에서 만나다

춤을 추는 몸 안에는 경계도 이분법도 없다. 몸 밖의 것이 몸 안으로 들어와 섞이고 섞여 새것을 낳는다. 몸 자체가 촉매제가 되어 일어나는 화학반응은 객석으로 전해져 혼용의 향연을 일으킨다.

누름과 솟음이 만나는 순간

<안은미의 북.한.춤> 6.1~6.3,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할머니들과 함께한 <조상님께 바치는 댄스>, 저신장장애인들과 작업한 <대심뎌스>, 시각장애인들을 무대에 서게 한 <안심뎌스> 등 겁없이 경계를 넘나들던 천하의 안은미도 겁이 났던 모양이다. 한국 신무용의 개척자 최승희 이후 요즘의 북한춤은 어떻게 발전했는지 늘 궁금했지만 선뜻 검색창에 ‘북한’이라는 단어조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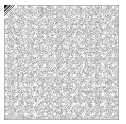
적어 넣기가 두려웠다고 한다. 안은미마저 엄두를 내지 못했으니 73년간 남북의 춤이 유리된 것은 당연했다.

그러던 안은미가 드디어 경계를 넘어섰다. 같은 뿌리에서 출발했지만 전혀 다른 모양새를 띠게 된 북한춤을 남한 무용수들의 몸을 통해 선보이기로 했다. 이른바 ‘안은미의 북한춤’이다.

안무 작업은 조금 독특했다. 북한 현대무용에 대한 자료를 직접 구할 수도 없고 북한을 방문해 현지 예술인들을 만날 수도 없었던 탓에 최승희가 1958년에 낸 무보집 <조선민족무용기본>을 바탕으로 유튜브에 있는 수많은 북한춤 영상을 참고 자료로 썼다. 이후 재일조선인 무용수 성애순 씨의 도움을 받아 기본동작을 구성했다.

안은미는 “우리 춤이 장중하고 무겁다면 북한춤은 척추가 서 있고 하늘을 나는 듯 위를 향한다”며 “처음엔 북한춤에 익숙지 않은 우리 무용수들이 동작을 체화하느라 애를 먹었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작업이 안은미에게 남긴 것은 “오랜 분단에도, 지금 남북 무용수가 만나면 같이 출 수 있는 움직임이 분명 있다는 사실”이다. 다행스럽게도 굿거리장단, 자진모리장단, 휘모리장단 등 장단이나 우리와 유사한 안무 구성 방식이 남아 있었다. “남과 북은 분단 이후에도 함께 춤을 추고 있었다”고 말하는 이유다.



안은미도 이번 무대에는 무용수로 오른다. 음악으로는 북한가요 〈반갑습니다〉, 〈휘파람〉 등이 활용되는데, 저작권 등의 문제로 작곡가 장영규의 창작음악이 주로 쓰일 예정이다.

이번 작품은 내년 2월 프랑스 파리의 유명 극장 ‘떼아트르 드 라 빌’에서도 공연된다. 안은미가 최근 ‘떼아트르 드 라 빌’ 역사상 최초 동양인 상주예술가로 선정되면서 첫 공연으로 북한춤을 선보이는 것이다.

몽룡과 춘향의 파드되를 허하라

〈발레 춘향〉 6. 9~6. 10, 예술의전당 CJ 토월극장

익숙지 않은 서양 고전 일색의 발레 무대에 선뜻 다가가지 못한 관객이라면 우리 이야기를 소재로 한 창작발레로 문턱을 넘어보자. 〈심청〉에 이어 유니버설발레단이 두 번째로 내놓은 창작발레 〈발레 춘향〉은 춘향과 몽룡의 애절한 로맨스를 화려한 몸짓으로 풀어낸다.

2007년 초연한 〈발레 춘향〉은 유명현 유니버설발레단 예술감독이 안무를 맡은 작품으로 차이콥스키의 잘 알려지지 않은 음악을 직접 선곡해 한국 고전에 접목한 것이 특징. 춘향과 몽룡이 추는 사랑의 파드되(2인무)에선 〈만프레드 교향곡〉(Manfred Symphony, Op. 58, 1885)과 〈템페스트〉(The Tempest Op.18, 1873)를, 풍운아 변학도의 해학성을 묘사한 대목과 방자·향단의 코믹한 대화 장면에서는 각각 〈교향곡 1번〉(Symphony No.1, Op.13, 1866)과 〈조곡 1번〉(Suite No.1, Op.43, 1878~1879)을 연주하며 마치 차이콥스키가 〈발레 춘향〉을 위해 작곡한 것 같은 완벽한 매치로 작품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다.

작품의 또 다른 백미는 춘향과 몽룡의 ‘긴장과 설렘·슬픔과 애틋함·기쁨과 환희’라는 세 가지 사랑의 감정을 파드되로 풀어낸 대목이다. 1막 ‘초야 파드되’는 부부의 연을 맺은 춘향과 몽룡이 첫날밤에 겪는 설렘과 긴장감을 서정적으로 표현한다. 1막 후반부의 ‘이별 파드되’와 대조를 이루는 장면이기도 하다. 2막 ‘해후 파드되’는 온갖 역경을 딛고 다시 만난 춘향과 몽룡이 그간의 그리움과 재회의 기쁨을 온몸으로 풀어내며 극의 대미를 장식한다.



1 안은미컴퍼니 무용수들이 〈안은미의 북한춤〉 안무 동작을 선보이고 있다.
2 유니버설발레단의 〈발레 춘향〉 공연 장면.

2막 장원급제와 어사출두 장면의 남성 군무, 이어지는 여성 무용수들의 ‘기생들의 춤’ 역시 명장면으로 꼽힌다. 남성 군무가 역동적이면서도 절도 있는 몸짓의 향연이라면 여성 군무는 가체와 장신구, 풍성한 주름의 한복 등 볼거리 가득한 무대다.

4년 전 새롭게 선보인 안무와 무대, 의상 등도 한 차례 업그레이드됐다. 이정우 의상 디자이너는 ‘한 겹 더 감추는’ 한복의 미를 살리면서도 다리 동작이 잘 보이는 트임 디자인으로 전통의 멋과 발레 미학을 동시에 살렸다.

유니버설발레단 수석무용수 강미선·이현준, 홍향기·이동탁이 춘향과 몽룡으로 짝을 이뤄 호흡을 맞춘다. 홍향기는 이번 공연을 통해 춘향 역으로 데뷔한다.

글 서은영 서울경제신문 기자·사진 제공 안은미컴퍼니, 유니버설발레단

전시 <숨 쉬는 돌의 시간>과 <Remembered Words>

동양적인 것과 서양적인 것

대리석은 서양의 고전 조각 재료다. 대리석을 주 재료로 쓰는 한국 작가 박은선의 조각은 사뭇 동양적이다. 미국 뉴욕 출신의 개념미술가 로니 혼(Roni Horn)은 육중한 유리 주조 조각으로 유명하다. 조각적 결과물로서의 그의 작품 역시 정적이고 명상적이며 그리하여 동양적으로 다가온다. ‘동양적’이라는 것과 ‘서양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다른 감흥일까. 그 구분은 현대미술에서 어느만큼 유효할까. 박은선과 로니 혼, 두 동서양 작가의 작품 세계엔 동양적인 것과 서양적인 것이 물질적, 정신적으로 교차한다. 이탈리아 피에트라산타(Pietrasanta)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박은선 작가가 10년 만에 고국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로니 혼은 국내 네 번째 개인전에서 처음으로 드로잉 연작을 선보인다.



대립항의 공존

박은선 <숨 쉬는 돌의 시간> 5. 16~6. 30, 더페이지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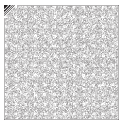
고대 로마 건축물의 대리석 기둥을 닮은 조각 작품이 천장에 매달렸다. 높이 4~5m, 한 점당 무게만 무려 1.2t(1,200kg)이다. 박은선 작가의 개인전이 지난 5월 16일부터 서울 성수동 서울숲 갤러리아포레에 위치한 더페이지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 더페이지갤러리는 총면적 600여 평에 층고가 5.4m인 6개의 공간으로 리뉴얼을 마치고, 첫 재개관전으로 박은선 작가의 조각 20여 점을 선보였다.

전시는 천장에 매달린 대리석 기둥 3점에서부터 시작한다. 층층이 쌓아올린 은빛 대리석은 미끈한 표면과는 대조적으로 군데군데 균열이 나 있다. 곧 무너져 내릴 듯 긴장감을 주는 대리석 기둥은 육중하고도 견고하다. 박은선의 조각은 고전주의와 모더니즘을 아우른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시 평문에 인하대 정현 교수는 “모더니스트 작가들이 일반적으로 고전주의를 거절하는 것과 달리 박은선은 무한과 불멸이라는 생 너머의 세계를 조형적으로 제시하는데, 이는 서구 고전주의 미학의 세계관은 물론이고 생의

순환이란 동양적 사상과도 일치한다”고 썼다.

작가는 색이 다른 두 개의 대리석 판을 켜켜이 쌓아올리면서 원형, 사각형, 원반과 같은 조각의 외형을 마름질하고 그 과정의 시간들을 겹쳐간다. 외형의 결과물은 미니멀리즘에 가까운 조각이지만, 제의에 가까운 수행적 태도가 작업의 정신적 가치를 더한다. 거칠게 파괴된 돌과 정교하게 표면이 처리된 돌 사이의 조형적 구성을 통해 자연스러운 아름다움과 이에 반하는 인공적인 것, 여기에 철저하게 계산된 과학적 엄격함을 작품 안에 녹인다. 이 같은 기하학적 추상을 통해 동양과 서양, 고전과 모던, 균형과 불균형, 통제와 자율성 등 대립항의 공존을 표현하는 박은선의 작업은 유럽 미술계에서 서양 모더니즘의 추상 조각과는 차별화되는 ‘동양적 추상 조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박은선은 경희대 미술대학을 졸업한 후 1993년 이탈리아로 건너가 카라라 예술국립아카데미에서 수학했다. 25년간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가는 2007년 7~8월 이탈리아 피에트라산타시의 초청으로 ‘베르실리 아나 축제’에서 대규모 야외 조각전을 개최한 바 있다. 매년 단 한



명의 조각가를 초청하는 이 행사에는 헨리 무어, 페르난도 보테로 등 세계적인 조각가들이 이름을 올렸으며, 박은선은 이 전시에 초청된 유일한 한국 작가였다. 유럽 각지에서 50회의 개인전을 비롯한 200여 회의 전시에 참여한 작가는 한국 미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린 업적을 인정받아 2015년 국민훈장을 받았다.

언어와 정체성에 대하여

로니 혼 <Remembered Words> 5. 25~6. 30, 국제갤러리 3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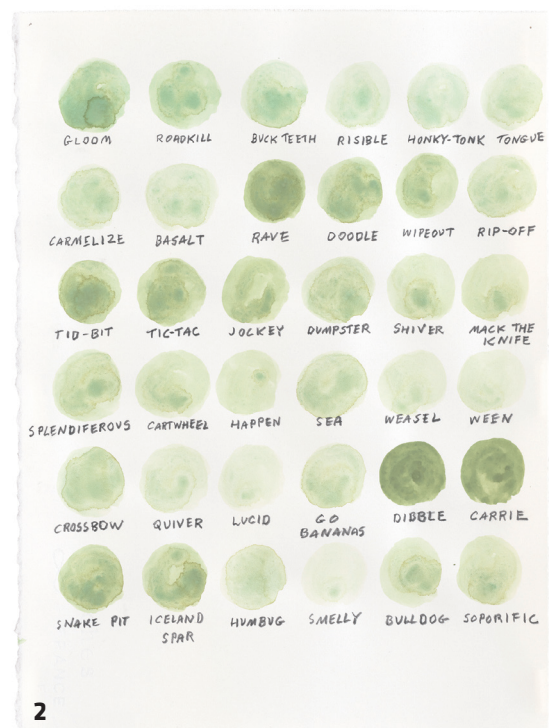
얼음장처럼 차가운 듯한 표면에 정적이면서도 육중한 유리 구조 조각으로 유명한 로니 혼의 국내 네 번째 개인전이 지난 5월 25일부터 서울 소격동 국제갤러리 3관에서 열리고 있다. <Remembered Words>(기억된 단어들)이라는 전시명과 동일한 드로잉 연작을 처음으로 선보이는 전시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된 일련의 드로잉 작업들이다. 갤러리의 설명에 따르면, 드로잉은 전작으로 반복적으로 회귀하는 로니 혼 작업의 핵심 요소인 동시에 병치와 언어유희, 물성의 시학(詩學)을 통해 언어와 정체성에 관한 주제를 고찰하는 주요 챕터 중 하나다. 작품은 3×3 격자로 배열된 9점의 드로잉들로 구성돼 있다. 동일한 크기로 그려진 드로잉은 수채물감으로 그린 수십 개의 원들을 담고 있다. 각각의 원들은 투명하고 다채로운 색채 팔레트를 펼쳐놓은 것 같다. 원형의 무리들은 구름 낀 밤 달무리처럼, 혹은 불가사의한 발전처럼 보인다. 황갈색과 녹색, 노란색과 회색, 검은색과 푸른색, 그리고 선홍색의 그라데이션이 일정한 방향 없이 서로 스며든 얼룩처럼 반복되며 울동감을 선사한다.

각각의 원은 격자 패턴을 이루며 바로 아래에 쓰인 단어들과 함께 나열되거나, 혹은 흩어진 단어들로 무질서와 질서 사이 조화로운 집합체를 이룬다. 마치 특정한 분류법에 의해 나열된 수수께끼의 단서들처럼, 동그라미와 어휘들은 관객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상상을 유도한다. 예를 들어 <Remembered Words-(The Supremes)>이라는 제목의 작품은 세 번째 드로잉의 좌측 하단부터 우측으로 rebus(그림 수수께끼), sissy(겁쟁이),

humpback(꼭추), bogus(가짜), unface(노출)와 같은 단어들 이 나열돼 있다. 또한 <Remembered Words-(Ho Ho Ho)>라는 작품은 soapy(미끈미끈한), lavender(라벤더), walk(산책), malt(몰트), pollute(오염), hallucinogen(환각제) 등의 단어들이 공간을 가로지르며 충돌하고 공명한다. 관객들은 원형의 색채들과 매치된 단어들을 이해하려 고군분투하며 의외의 즐거움을 얻는다.

로니 혼은 1955년 뉴욕에서 태어났다. 로드아일랜드 스쿨 오브 디자인을 졸업한 후 예일대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70년대 중반부터 조각, 사진, 드로잉 그리고 출판물을 제작하며 각 영역에 대한 정의를 확장시켜왔다. 스위스 바젤 바이엘러 재단(2016), 바르셀로나 호안 미로 재단과 마드리드의 라 까이사 포럼(2014), 프랑크푸르트 쉬른 쿤스트할레(2013~4), 함부르크 쿤스트할레(2011), 런던 테이트 모던(2009),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2004), 파리 퐁피두센터(2003), 뉴욕 디아 아트센터(2001)와 휘트니미술관(2000) 등 세계 유수의 기관에서 전시를 열었다.

글 김아미 헤럴드경제 미술, 디자인 분야 기자 및 프로젝트 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다.
사진 제공 더페이지갤러리, 국제갤러리



- 1 <Infinite Column - Accretion - Intension>, 2018, White Marble, 441.5(H)×41.6×41.6cm, 410.7(H)×41.6×41.6cm, 475(H)×41.6×41.6cm.
- 2 <Remembered Words(Whippy)>(detail), 2012~2013, Watercolor, graphite on paper, 38.1×27.9cm, 9 parts. 사진 Ron Amstutz, Courtesy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책 <당선, 합격, 계급>과
<양심고백>, <정말 미안하지만,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새로운 시대의 글쓰기

최근 몇 년간 가장 독특한 글쓰기 방식을 보여준 이를 꼽자면 아마도 소설가 장강명과 작가 김동식일 것이다. 기자 출신의 장강명 소설가는 사회적으로 화제가 될 만한 소재를 ‘야마’(독자에게 가장 어필할 수 있는 주제를 뜻하는 언론계 용어)로 잡아 소설을 써왔다. 그는 최근 <당선, 합격, 계급>이라는 논픽션 책을 수년간의 조사와 집필 끝에 냈다. 한편 주물공장 노동자 출신의 김동식 작가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던 글들을 모아 지난해 말 세 권의 책을 펴낸 데 이어 최근 <양심고백>과 <정말 미안하지만,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다>를 펴냈다.



소설가의 저널리즘

<당선, 합격, 계급> 장강명 지음, 민음사

장강명 작가는 언젠가 인터뷰에서 “나는 문예창작과나 국문과를 나오지 않아 소설 쓰기의 방법론을 누구에게서 배운 적이 없다. 나 스스로 찾아야 했다. 내가 처음 쓴 방식은 ‘기자처럼 글쓰기’였다. ‘야마’를 잡아 그것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구상하고 등장인물을 만들고 끼워 넣었다”고 말했다. 사회가 알고 싶어 하는 이슈를 잡아 추적하는 그의 방법론은 최근에 펴낸 책에서도 어느 정도 적용된 것처럼 보인다.

대기업 공채, 공무원 시험, 사법고시 등의 존재와 영향은 젊은층에게 오랫동안 질리지 않는 논쟁 주제였다. 책 속 한 축인 문학공모제는 2015년에 문단권력을 유지시키는 한 축으로 지목되었던 제도다. 장 작가는 문학공모제와 공채 시스템의 뿌리에 봉건질서

의 근간을 이루었던 과거제도가 있다고 본다. 과거제도처럼 공채를 통해 실생활과 별 관련 없는 지식을 달달 외우는 능력에 따라 신입사원과 공무원을 선발해왔다는 것이다. 문학공모전에 대해서도 작가는 비슷한 관점을 가진 듯 보인다. 하지만 자신의 입장을 강요하거나 억지로 끼워 맞추는 대신 다양한 생각을 보여주려 애쓴다.

문학지망생들이 생각하듯 ‘공모전용 작품’이 실제 있는지를 지망생과 심사위원의 입장으로 들여다보고 자신의 문학상 심사 경험도 이야기한다. 문단권력에 대해서도 실제로 젊은 작가들이 문예지 편집위원들인 ‘선생님’들에게 술자리 등에서 자신을 부각시키려고 하는지, 인터뷰와 실제 경험 등을 통해 검증한다. 결론적으로 작가는 “지금 한국 사회와 한국 소설이 역동성을 잃어가는 건 상당 부분 그 제도(공채, 공모전)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를 없애기보다는 이를 보완할 다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어떤지 묻는다. 장편소설 공모전을 ‘출판인과 평론가들의 문예운동’이라고 부르는 그는 대신 이를 보완할 ‘독자들의 문예운동’을 제안한다.

기존의 문단권력에 대한 비판서들이 일종의 ‘가설’이었다면 이 책은 ‘실증’이다. 간간이 너무 이른 결론으로 느껴지는 부분, 작가가 객관적인 결과를 제시하는 것을 넘어서 해석(또는 해설)에 대한 강박을 느끼는 것 아닌가 싶은 부분도 있다. 하지만 책 곳곳에서 보이는 유머 감각과 궁금증을 풀기 위해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작가의 진실한 태도는 소설 분야에서 그랬듯 저널리즘 분야에서도 독특한 입지를 만들 가능성이 높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소설이란 무엇인가?

〈양심고백〉, 〈정말 미안하지만,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김동식 지음, 요다

김동식 작가는 어떤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읽은 책이 10권도 되지 않는다는 김 작가는 중학교 중퇴의 학력에 20살 이후부터 줄곧 주물공장에서 일했다. 그러니 제도권 글쓰기를 배운 적이 없

다. 하지만 그의 작품은 ‘소설이란 무엇인가’, ‘누가 소설임을 인정하는가’부터 ‘과연 소설이란 이름이 필요한 것인가’라는 의문까지 폭넓게 제기한다.

그의 글은 전통적인 소설과 달리 순전히 재미와 교훈의 측면에서만 승부수를 던진다. 소재 자체도 복수, 로또, 완전범죄, 시간 되돌리기, 행복 등 독자들을 매혹시킬 수밖에 없다. 읽는 이들은 주인공이 처한 상황에 같이 서서 작가가 던진 질문에 저도 모르게 같이 답한다. 사회 밑바닥에서, 단조로운 노동을 견디면서, 인터넷에서 ‘좋아요’를 받는 소박한 즐거움을 동력으로 써온 그의 글 속 상황은 대부분 매우 극단적인데, 그만큼 놀라울 정도로 현대인의 병증을 잘 잡아내고 있다.

문제는 김동식 작가가 어떤 식으로 발전해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 점이다. 더 정교한 인물 묘사와 독창적 문체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보이면서도 그것이 도리어 생각할 수 있는 여백을 남겨주는 작가의 소박함을 없애버리는 건 아닐까 우려된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지금의 문학판에서 장강명과 김동식의 글은 가장 새롭고, 역동적이라는 점이다.

글 권영미 뉴스1 기자 · 사진 제공 민음사, 요다



영화 <원더스트릭>과 <트립 투 스페인>

영화가 우리를 데려다주리라

영화는 우리를 낯선 곳으로 인도하고, 잘 안다고 생각했던 곳도 새롭게 보게 만든다. 휴가철에 비싼 비행기 표를 끊지 않아도 여행의 재미를 만끽하게 해줄 두 편의 영화를 소개한다. 토드 헤인즈 감독의 <원더스트릭>은 1927년과 1977년의 뉴욕으로 우리를 소환한다. 마이클 윈터바텀 감독의 <트립 투 스페인>은 두 남자의 기상천외한 로드 무비다.

뉴욕 다시 보기

토드 헤인즈 감독의 <원더스트릭>

<원더스트릭>은 각자의 이유로 뉴욕에 가야만 했던 두 어린이의 이야기다. 1927년의 로즈(밀리센트 시먼스)는 선천적인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집에 거의 갇혀 지낸다. 이혼 후 뉴욕에서 배우 생활을 하고 있는 엄마 릴리안 메이휴(줄리안 무어)를 만날 수 없어 그에 관한 신문 기사를 모으고 있다. 1977년의 벤(오크스 페글리)은 이제 막 사고로 청각을 잃었다. 엄마는 얼마 전 세상을 떠났고, 아빠는 얼굴도 모른다. 벤은 엄마가 남긴 <원더스트릭>이라는 책에서 발견한 뉴욕 서점의 책갈피가 아버지의 행방을 알려줄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로즈와 벤은 각각 배와 버스를 타고 홀로 뉴욕으로 향하고, 두 사람 모두 미국 자연사박물관에 도착한다.

<원더스트릭>이 거의 무성영화와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은 필연적이다. 먼저 1927년 로즈의 이야기는 아예 무성영화 형식을 취하면서, 청각장애인인 그가 느낄 감각을 관객에게도 전이시킨다. 1977년의 벤은 제이미(제이든 마이클)를 만나기 전까지는 타인과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아 거의 무성영화에 가깝게 느껴진다. <원더스트릭>의 원작자 브라이언 셀즈닉은 “유성영화는 기술의 승리이자, 모든 발전의 원동력이었다. 하지만 청각장애인 문



화와 역사의 관점에서 볼 때, 유성영화는 청각장애인이 즐길 수 없는 문화였으며 이는 비극이나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또한 제작진은 청각장애인의 입장을 보다 잘 반영하기 위해, 실제 청각장애인이 로즈를 연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밀리센트 시먼스는 제작진이 북미의 한 농아학교 연극부에서 발견한 신예다. 청각장애인이 건청인처럼 영화를 즐길 수 있었던 시절로 돌아가 시각 언어에 집중한 <원더스트릭>은 우리가 알던 풍경을 다르게 만든다. 시각 정보에 집중해 작품을 감상하게 하고, 뉴욕의 풍경 하나하나에 더 집중하게 한다. 1927년의 뉴욕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교육 시스템이 미비한 대신 도시 전체의 분위기는 낭만적이고, 1977년의 뉴욕은 시스템이 확립된 대신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토드 헤인즈 감독은 “1920년대는 청각장애인



의 교육에 비판적인 시기였다. 1970년대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훨씬 진보적인 법과 기회가 존재하는 대신 경제적으로 더 고통받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더스트럭〉의 뉴욕은 다양한 소통 방법을 찾아나갈 수 있는 공간이다. 로즈와 벤은 물론 주변 사람들 역시 서로 소통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시행착오를 거친다. 영화 속에서 수없이 묘사됐던 뉴욕이 〈원더스트럭〉에서는 새삼 달라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여행지에서도 삶은 계속된다

마이클 윈터바텀 감독의 〈트립 투 스페인〉

〈트립 투 잉글랜드〉, 〈트립 투 이탈리아〉에 이은, 마이클 윈터바텀 감독의 여행 시리즈 세 번째 작품이다. 전편과 마찬가지로 스티브 쿠건과 롭 브라이든은 ‘오퍼버’와 ‘뉴욕 타임즈’의 지원으로 레스토랑 리뷰 시리즈를 이어간다. 스티브 쿠건은 21살에 떠난 스페인 여행을 에세이로 펴낸 영국 작가 로리 리처럼 이번 여행을 기록하고자 한다. 자식 둘을 키우느라 진 빠지는 하루하루를 보내던 롭 브라이든은 조금의 고민도 없이 여행에 합류한다. 전작이 그랬듯 문화적 맥락을 알수록 더 즐거운 두 남자의 수다가 가득하다. 그들의 대화는 데이비드 보워부터 피카소에 이르기까지 시대를 가리지 않는다. 가령 영화 초반 롭 브라이든이 “믹

재거처럼 되지 않으려면”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 롤링스톤스의 보컬 믹 재거가 72살의 나이에 43살의 여자친구와 8번째 아이를 출산했다는 배경 지식이 있어야 즐길 수 있는 코미디다. 스티브 쿠건이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에도 오른 영화 〈필로미나의 기적〉의 각본가였다는 사전 지식이 있어야 웃을 수 있는 대목도 있다. 또한 마이클 케인의 성대모사에 상당한 분량을 할애했던 〈트립 투 잉글랜드〉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두 남자는 말론 브란도, 로버트 드 니로, 우디 앨런을 비롯한 유명인의 성대모사를 하며 상황극에 열을 올린다. 이런 코미디들 때문에 한창 수다를 떨다 조용히 풍경을 바라보는 사색의 순간이 더 빛을 발하기도 한다.

결국 두 사람이 여행지에서 하는 일은, 타지에 놔두고 온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다. 아무리 볼거리와 먹거리가 다채로운 곳에 있어도 관계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 특히 쿠건의 상황이 보다 복잡하다. 20살이 된 쿠건의 아들은 여자친구가 임신을 하는 바람에 쿠건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미샤(마고 스틸리)는 쿠건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진다. 영화의 다소 당황스러운 마무리는 우리의 고질적인 질문에 그럴싸한 해답은 없다는 은유일지 모른다.

글 **임수연** 씨네21 기자



1,2 영화 〈원더스트럭〉.
3 영화 〈트립 투 스페인〉.

별자리 운세도 신통치 않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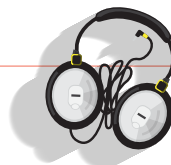
예술적으로 상담해드립니다

“똑똑똑... 여기가 ‘예술적 상담소’ 맞나요?”

여러분의 어떤 고민도 예술적으로 상담해드리는 ‘예술적 상담소’. 온라인으로 별도 공간을 마련해 고민 상담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올려주신 고민에 대한 예술적 대책을 찾아 답변을 달아드립니다. 서울문화재단 페이스북 탭에서 ‘예술적 상담소’를 찾아주세요! 다른 사람의 고민에 댓글을 달 수도 있습니다. 채택된 질문은 [문화+서울]에 게재되며, [문화+서울]을 1년 동안 보내드립니다.

1인 미디어를 통해
제 덕후 역사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저는 아이돌을 좋아하는 20대 대학생입니다. 중학교 시절, 친구 따라 시작한 아이돌 ‘덕질’을 이렇게 오래 할지 몰랐습니다. 공개방송과 콘서트를 함께 다니던 친구들은 하나둘씩 현실로 돌아가고 저 혼자 꽃밭이 남았습니다. 덕질을 오래 하다 보니 색다른 기록을 남기고 싶은데, 앨범, 굿즈 등 평범한 방법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요즘 트렌드인 팟캐스트나 유튜브 같은 1인 미디어를 통해 제 덕후 역사를 남길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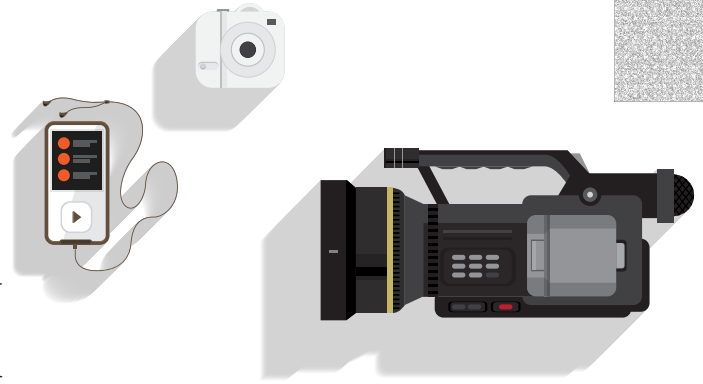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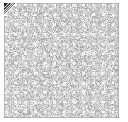
1년 동안 쌓은 노하우를 토대로 팟캐스트를 시작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팟캐스트는 스.스.로, 기획하고, 녹음하고, 편집하고, 올려야 하는 콘텐츠인 만큼 두 눈 크게 뜨고 따라오셔야 합니다.

Step 1. 정체성을 확립하라

먼저 팟캐스트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팟캐스트란 애플의 MP3 플레이어인 아이팟과 방송이 결합해 만들어진 용어로 라디오 방송을 MP3 파일로 녹음해 올리고, 팟캐스트 앱을 통해 청취자가 즐기는 콘텐츠입니다. 유튜브가 방송 영상의 형태를 1인 미디어로 옮긴 플랫폼이라면, 팟캐스트는 라디오를 1인 미디어로 옮긴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인 방송계의 스타인 ‘대도서관’은 “1인 방송으로 수익을 내고 싶다면 채널 정체성이 명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의 아이템은 아이돌이었고 여기에 ‘샤이 덕후들의 해우소’라는 콘셉트를 추가했습니다. 팟캐스트에서 어떤 방송이 인기 있는지 분석했고, 정치나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는 방송이 상위권에 포진해 있음을 파악했습니다. <아이돌아이>도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줄 수 있는 방송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고민을 듣는 동안 1년 전 제가 떠올랐습니다. 아이돌 팬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시절을 지나 드라마 <응답하라 1997> 등을 통해서 아이돌 덕후의 순기능(?)이 돋보였고 어느새 아이돌 팬은 매력적인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덕후였던 저 역시 이를 콘텐츠화하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랐죠. 그때 급성장한 1인 미디어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나는 꿈수다>를 통해 대중과 가까워진 팟캐스트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2017년 4월, 그렇게 아이돌 전문 팟캐스트 <아이돌아이>가 세상에 등장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Step 2. 정보가 청취율을 좌우한다

팟캐스트의 방향이 정해졌다면 다음은 아이템 준비 단계입니다. 아이돌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커져가고, 셀 수 없이 많은 아이돌이 K팝 시장에 등장하고 있어 아이템이 고갈될 걱정은 없습니다. 대신 저희가 한 고민은 '방송 시점'이었습니다. 청취자를 늘리는 방법을 생각해 'کم백 시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처음에는 각 아이돌 팀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점차 청취자도 늘고, 방송도 익숙해지면 여러 아이돌 속에서 공통분모가 보이게 되고, 이를 방송 기획으로 발전시키면 됩니다.

아이템을 결정했다면 이제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합니다. 많이, 정확히 알아야 자신 있고 재미있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DJ가 정보가 부족해 우왕좌왕한다면 아무리 편집을 잘해도 청취자에게 고스란히 전달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 방송이 됩니다. 아이돌 덕질을 해본 사람이라면 아이돌 정보를 얻는 방법을 그 누구보다 잘 알 테고, 이 과정에서 '모든 아이돌을 내 아이돌처럼 애정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무심코 지나쳤던 부분들도 놓치지 않습니다.

Step 3. 저작권은 주의, 또 주의!

아이템도 정해지고, 사전 정보도 모았다면 본격적인 녹음을 시작합니다. 팟캐스트 시장이 커지면서 녹음 스튜디오가 늘고 있습니다. 저희는 좋은 품질을 위해 사비를 털어 스튜디오에서 진행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 휴대폰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핀 마이크가 출시되기도 해 휴대폰으로도 충분히 녹음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콘셉트가 '수다' 방송이라 하더라도 사전 구성은 필요합니다. 지상파 라디오처럼 대본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구성을 담은 큐시트는 사전에 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디오가 겹치는 것을 막기 위해 진행자를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준비가 다 됐다면 이제 녹음을 시작하면 됩니다. 이때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바로 편집점! 다음 단계인 편집을 시작하면 비슷하게 생긴 파형만 보게 됩니다. 박수 소리처럼 튀는 파형을 만들어주면 편집하기 수월해집니다. 또 주의해야 할 것이 저작권입니다. 아직 국내 팟캐스트 시장이 크게 성장하지 않아 저작권 논란이 많진 않지만, 시장이 상승세를 타고 있고 아이돌과 음원은 빼려야 뗄 수 없기 때문에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Step 4. 팟캐스트의 꽃, 편집

신나게 수다를 떨며 녹음을 마쳤다면 다음은 편집의 시간입니다. 사실상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부분이자 팟캐스트의 꽃이기도 합니다. '오다시티'(Audacity) 같은 편집 프로그램도 많고, 다양한 곳에서 팟캐스트 편집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편집 도구를 선택했다면 본격적인 편집에 들어갑니다. 영상 편집보다는 간단하니 너무 겁먹지 마시길. 녹음할 때 만들어둔 편집점을 활용해 프로그램의 색깔에 맞춰 살릴 부분과 삭제할 부분을 골라줍니다. 그리고 잡음, 말실수 등을 잘라냅니다. 효과음을 넣어 매끄러운 파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Step 5. 업로드 시 검색 키워드를 활용할 것

편집을 마쳤다면 업로드를 해야 합니다. 아이튠즈의 팟캐스트, 팟빵, 팟티 등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 중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플랫폼에 파일을 올리기 위해서는 '호스팅 서버'가 필요합니다. 최근 많은 플랫폼이 호스팅 서버가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아이튠즈의 경우 꼭 호스팅 서버가 필요하고, RSS를 이용해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으니 명심하세요. 매 에피소드를 올릴 때 '검색 키워드'를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방송에 언급된 단어들 중 방송과 연관이 낮더라도 검색 유입이 높을 것 같은 키워드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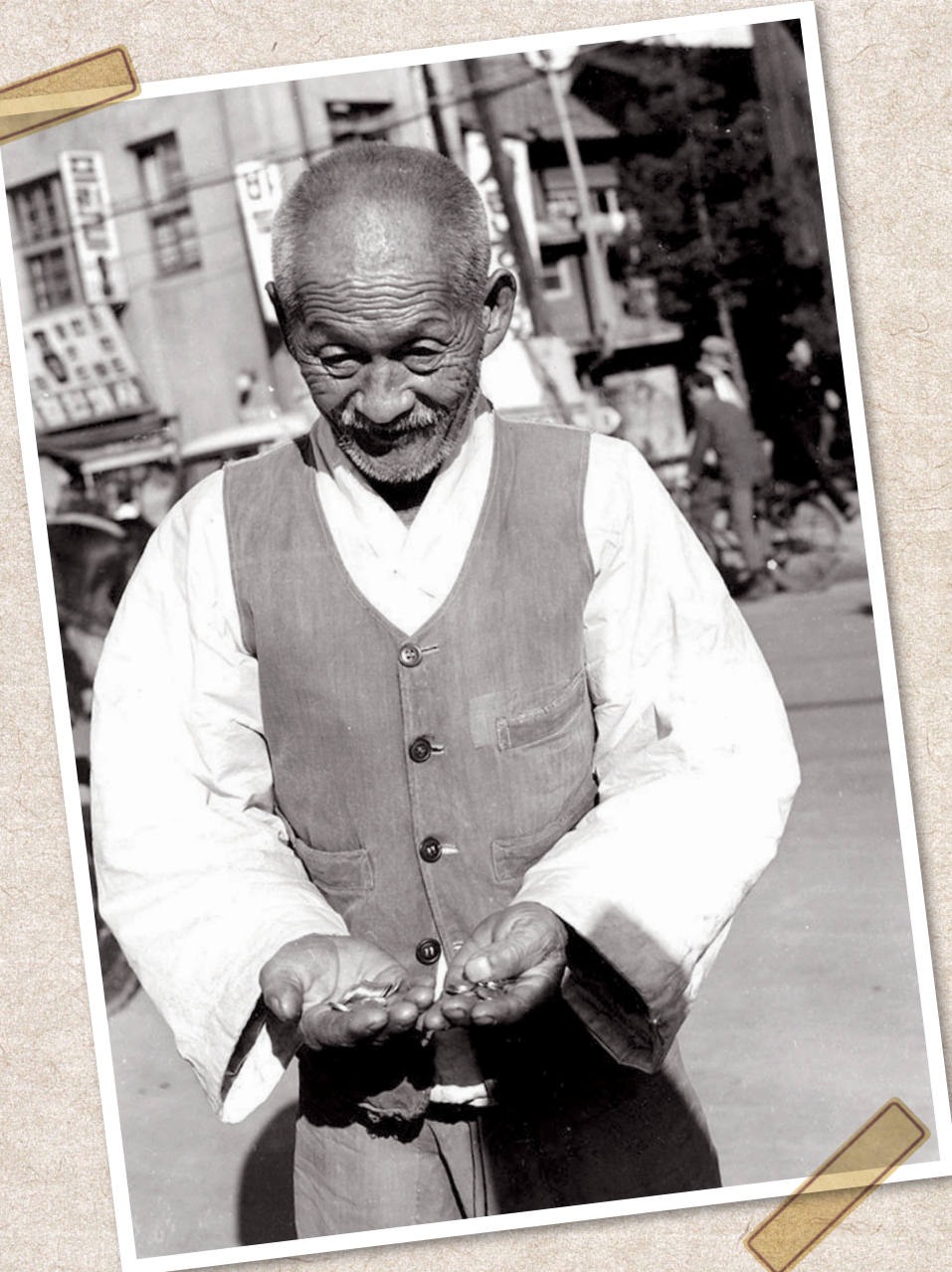
지금까지 팟캐스트 제작기를 단계별로 알아보았습니다. 단계별로 차근차근 하다 보면 자신만의 노하우가 담긴 방송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꾸준함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팟캐스트가 생기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성실하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순위도 청취자도 따라옵니다. 그리고 팟캐스트에서 아이돌 콘텐츠는 아직 비주류입니다. 그 말은 아직 늦지 않았고, 할 수 있는 것들도 무궁무진하단 뜻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시작해보세요.

답변 정은희 서울문화재단 미디어팀, 팟캐스트 <아이돌아이> 진행

주화(鑄貨)의 등장

동전의 유통이 가져온 변화

신용카드 사용이 많아지면서 곧 '동전 없는 사회'가 도래할 거라는 요즘이지만, 국내에 처음으로 주화가 통용된 당시에는 학생들이 '동전 감상문'을 쓸 정도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동전 유통과 함께 공중전화 또한 동전 투입식으로 바뀌었고, 위조주화가 발견되는 등 주화는 대한민국 현대사에 크고 작은 에피소드를 남겼습니다.



〈사진〉 손바닥에 놓인 동전을 신기하게 바라보는 할아버지.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국내에 처음 주화가 통용된 때는 1959년 10월입니다. 한국은행은 6·25전쟁 이후 계속 급등하던 물가가 1958년에 이르러 안정되고, 화폐 가치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자 화폐 체계의 정비와 화폐 제조비 절감, 소액 거래의 편의 등을 위해 최초로 주화를 발행했습니다. 이때 발행된 주화는 니켈로 만든 100환짜리를 비롯해 50환짜리 백동화, 10환짜리 청동화 등 세 종류로 모두 미국 필라델피아 조폐국에서 제조됐습니다. 당시엔 한국의 주물기술이 뒤떨어져 미국에서 주화를 수입했다고 합니다. 애초 그해 광복절에 맞춰 발행하려 했으나 미국 조폐국의 제조 지연으로 두 달가량 늦게 나왔습니다. 주화에는 이승만 당시 대통령의 초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주화가 발행되자 사람들은 낡은 지폐를 새 동전으로 교환하기 위해 은행 앞에 길게 줄을 섰습니다. 발행 첫날 준비해놓은 동전이 모두 동났다고 합니다. 〈사진〉은 동전을 한 움큼 받아든 할아버지가 신기하면서도 헛갈리는 듯 손바닥에 놓인 동전을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동전은 중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동전에 대한 감상문’을 모집했다고 하네요.

동전이 유통되며 전화소에서 통신원에게 지폐를 내고 사용하던 서울시내 공중전화가 통전 투입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체신부는 주화 발행 계획에 맞춰 그해 5월부터 공중전화기를 보도에 설치된 박스형 전화실에 놓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동전 투입식 자동전화기의 국내 시험 생산에 성공해 예산도 마련했다고 합니다. 서울시내 공중전화 400대를 설치하려면 당시 돈으로 1억 원이 필요했습니다. 주요 부품은 외국에서 들여왔다고 합니다.

일반인이 사용하는 공중전화기는 1902년에 처음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전화기는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 전화소라는 특정 장소에 가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는 마포, 도동, 시흥, 경교 등 네 곳에 전화소가 있었습니다. 전화소에는 교환시설과 통신원이 있었고, 통신원의 재량으로 통화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인천까지 5분 통화하는 비용이 50전이었고, 호출을 할 경우

1리에 2전을 더 내야 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많으면 1인당 10분의 시간제한이 있었지만 한산할 때는 길게 통화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1960년대 위조주화 사건

동전이 나온 후 위조주화가 속출했다고 합니다. 1962년 신문기사에 “요즘 서울에는 갑자기 100환짜리 위조주화가 쏟아져 나와 매일같이 발견되고 있다. 작년 1년 동안 한국은행에 신고된 것만도 38개였다. 100환짜리가 33개, 50환짜리가 4개, 10환짜리도 1개 있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조폐공사에 위조주화 분석을 의뢰했다고 합니다. 또 출처를 알리고 수사를 했지만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고 하네요.

위조주화는 보통 구멍가게나 담뱃가게에서 사용됐고, 버스나 택시 요금으로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이나 관공서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범인이 겁이 많았나 봅니다. 당시 경찰에 따르면 서울에서 발견된 위조주화는 세 종류로, 납이나 알루미늄으로 만들어 쉽게 판별되는 ‘엥터리’ 위조주화 두 가지가 유통됐고, 진짜와 비슷하지만 색이 짙어 구별이 쉬운 한 종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대규모 위조조직은 없었다고 하네요. 경찰은 공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만들거나 지능범이 대규모로 유통하기 위해 시험 생산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은행에서는 진짜는 무겁고 납색이며 떨어뜨리면 금속성 소리가 나는데 가짜는 ‘푹’ 하고 둔한 소리가 난다며 위조주화 구별법을 소개했습니다.

사진 김철길 전 AP통신 기자. 1960년부터 38년 동안 서울지국 사진기자로 일하며 격동기 한국 근현대사를 생생하게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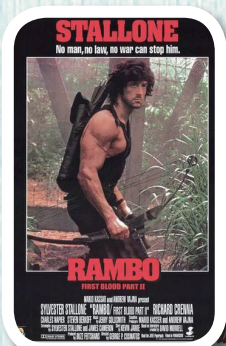
글 김구철 문화일보 문화부 기자. 대중문화팀장으로 영화를 담당하고 있다.



유선동 감독의 동부극장과 대능극장

옛날 극장에 대한 두세 가지 기억들

모바일로 예매해 4DX로 영화를 관람하는 요즘이지만, 동시상영관이나 재개봉관에서 ‘비 내리는’ 스크린으로 영화를 감상하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의 멀티플렉스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의 극장이지만, 어린 시절 그곳에서 접한 영화들은 당시의 소년, 소녀들에게 언제나 신선한 충격이었다. 영화와 드라마를 만드는 유선동 감독이 ‘극장에서 담배 피우던’ 시절의 향수와 그리움을 전한다.



피카디리극장은 영화 <람보 2> 개봉 당시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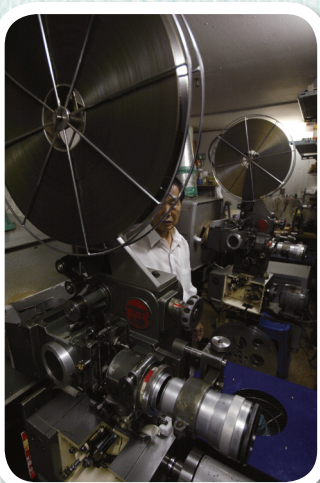
영화는 ‘어디서’ 보느냐가 중요하다

이와이 슌지 감독은 “어떤 영화를 보느냐보다 ‘언제’ 보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 백번 천번 공감하는 말이다. 여기에 한 슌기락만 더 없다면 ‘언제’ 보느냐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서’ 보느냐일 것이다.

초등학교 때 과학의 날에 교내 TV를 통해 전교생이 다 같이 봤던 19금 SF영화 <뱀파이어>가 기억난다. 도대체 누가 선정한 영화인지 지금도 미스터리하다. 야한 장면이 나올 때마다 교내 방송국의 자체 검열로 ‘여러분 잠깐만~’이라는 자막 화면이 흘러나왔는데,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러닝타임의 절반가량 동안 ‘여러분 잠깐만~’이 흘러나왔다. 또 중학교 때 티셔츠를 받기 위해 친

구 해철이와 <인디애나 존스 3> 개봉 날 새벽 6시에 ‘씨네하우스’ 극장에 갔던 기억도 떠오른다. 예전엔 개봉 날 극장에서 선착순으로 해당 영화 포스터가 프린팅된 티셔츠나 팸플릿을 선물로 줬다. 6시에 갔는데도 매표소 앞에서 이불 깔고 잠을 잤던 사람들 때문에 그 어떤 기념품도 받지 못했다. 이처럼 시공간의 선연한 기억과 연결된 영화들은 그 당시 그 어떤 경험보다도 생생한 감흥으로 남아 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어릴 적 영화를 보았던 ‘옛날 극장’에 대한 것이다. 요즘 10대, 20대 관객들은 ‘재개봉관’, 또는 ‘동시상영관’이라고 하면 좀 생소할 것이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재개봉관’은 말 그대로 시내 중심에서 개봉했던 영화를 변두리 지역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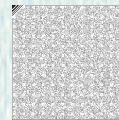


재개봉관 중
하나였던
사당동
이수시네마의
영사실.

다시 개봉하는 극장을 말한다. 예전에는 요즘같이 전국 몇 백 개 극장에서 한 영화를 트는 게 아니라 ‘한 영화’를 ‘한 극장’에서만 틀었다.(<다이하드>는 단성사에서만 6개월 넘게 상영해 80만 관객을 동원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리고 디지털 상영이 아니라 필름 상영이었던지라 재개봉관으로 내려온 필름은 화면에 흠이 많이 나서 소위 말하듯 ‘화면에 비가 내렸다’. ‘동시상영관’은 ‘재개봉관’에서 중영한 필름을 다시 받아서 트는, 그리고 유사한 장르의 영화를 하나 더 끼워 트는 방식으로 한 편 가격에 두 편을 볼 수 있는 극장을 말한다.(이 정도 되면 ‘화면에 폭우’가 내리는 것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 물론 지금은 거의 다 없어진 형태의 극장들이다. 요즘의 멀티플렉스 극장이 ‘슈트 입은 신사’라면, 그때의 재개봉관이나 동시상영관은 ‘추리닝 입은 동네 형’ 정도로 비유할 수 있다.(실제로 진한 인상의 동네 형들이 그곳에서 내 주머니 속 동전을 빼앗아가기도 했다.)

극장에서 담배 피우던 시절

첫 번째 소개할 극장은 화양사거리의 동부극장이다. 아마도 1980년대 전후에 성동구, 광진구 쪽에서 거주했던 이라면 모를 리 없는 극장이다. 그쪽 지역에서는 나름 번듯한 상영관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본 영화를 언급하자면 <람보 2>, <코만도>, <벤허>, <구니스>, <돌아리> 등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종로3가 개봉관까지 가기에는 너무 어린 학생들, 근처 어린이대공원에서 데이트를 끝내고 다음 코스로 온 커플들이 주된 고객이었다. <람보 2> 같은 경우는 관객이 하도 몰려서 목욕탕에서 때 밀 때 앉는 납작한 플라스틱 의자들이 스크린 바로 앞까지 쭉 깔리곤 했다. 실베스터 스탤론이 죽은 척하고 있다가 번개같이 바주카포를 들어 헬기를 격추하는 장면에서 극장 안 사람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며 환



호성을 지른 기억이 동부극장에서 가장 잊히지 않는 순간이다. 두 번째 소개할 극장은 군자역 사거리에 있었던 동시상영관 대능극장이다. 대능극장이 자리한 상가 건물은 그 당시 나예전 나름 요즘의 멀티플렉스 같은 공간이었다. 난 용돈을 받으면 상가 1층에 있는 ‘공주글방’이라는 서점에서 문고판 소설을 한 권 사고 떡볶이를 사먹은 뒤, 지하 1층으로 속 내려가 퀴퀴한 냄새가 나는 대능극장으로 들어갔다. 극장 로비에 있는 TV에서는 예로물이 계속 재생되었고, 때로는 본편 영화보다도 그걸 더 보고 싶었으나 TV 앞자리는 늘 인상 진한 동네 형들이 선점하고 있었기에 그럴 수 없었다. 그 당시 동시상영관은 극장 ‘프로그래머’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 이를 테면 <에일리언>과 <프레데터>를 동시에 거는 감각! <영웅본색 1>과 <영웅본색 2>를 동시에 붙이는 센스! 아마도 한국의 ‘컬트영화’는 동시상영관에서 완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영웅본색>의 주윤발이 성냥개비를 물 때 극장 안 동네 형들 역시 세상의 모든 고민을 짊어진 표정으로 함께 성냥을 물었고, 주윤발이 지폐에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울 땐 극장 안 여기저기에서 담배 연기가 피어올랐다. 진짜다. 지금은 상상 이 안 되겠지만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아니 ‘극장에서 담배 피우던 시절’ 얘기다.

13살이 되던 어느 날, 전학을 가게 되면서 두 극장과도 자연스럽게 멀어졌다. 전학을 계기로 외향적이던 성격은 내성적으로 바뀌었고, 홀로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홀로 보내는 시간의 상당 부분은 집에서 ‘VHS 비디오’를 빌려보는 것이었다. 동네 비디오 가게에 갓 출시된 따끈따끈한 ‘신작’ 비디오에 길들여지는 동안 동시상영관의 ‘비 내리는 스크린’은 조금씩 잊혀졌다.

시간이 흐른 뒤 대학교 신입생 때 오랜만에 동부극장 앞을 지날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극장은 이미 예전의 위용을 잃고 저열한 예로영화를 두 편 트는 허름한 동시상영관이 되어 있었다.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도 흥망성쇠가 있구나, 하는 새삼스런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다.

디지털, 멀티플렉스, 모바일 예매, 아이맥스, 4DX, 모든 것들이 너무나 편리하고 쾌적하고 압도적이지만, 동시상영관의 비 내리던 스크린이 문득문득 떠오르는 것만큼은 나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

글 유선동 영화·드라마 감독이자 작가로 활동 중이며, 최근 첫 장편소설 <도둑맞은 책>을 출간했다. 차기작으로 영화 <0.0MHz>와 드라마 <투페이스>를 준비 중이다.

사진 제공 한겨레, 씨네21

상암동 7개의 문화블록

기막힌 고립

서울 상암동에는 월드컵경기장, 문화비축기지, 상암DMC 등을 비롯해 총 7개의 문화블록이 있다.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고 있긴 하지만 서로 따로 노는 데다 고립되어 있다는 인상이 강하다. 이 7개의 구슬을 하나로 꿰어 플랫폼과 콘텐츠의 완벽한 조합을 이루어낼 방법은 없을까?



상암동의 무한한 문화 잠재력

자, 마음속으로 드론을 한 대 띄워보자. 여기는 상암동이다. 저기 웅장한 서울월드컵경기장이 보인다. 그 앞으로 월드컵공원과 평화의공원이 있고, 한강 쪽으로 더 가면 난지한강공원(난지캠핑장)이 나타난다. 다시 방향을 서쪽으로 틀면 하늘공원과 노을공원이 마주 보고 있고 그 사이에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가 자리 잡고 있다. 길을 따라 올라가면 난지천공원이 구성되어 있고 큰 길을 건너면 이번에 새로 구축된 문화비축기지가 나온다. 그리고 그 너머에는 상암DMC의 방송사들이 당당히 버티고 있다.

서울에 이만큼 문화적 잠재력이 큰 곳이 또 있을까? 상암동에는 대충 나누어도 7개의 문화블록이 있다. 하나하나가 굵직하다. 월드컵경기장(서울프린지페스티벌), 월드컵공원과 평화의공원, 하늘공원과 노을공원(노을캠핑장), 난지천공원(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난지한강공원(난지캠핑장), 문화비축기지(문화로놀이짙), 상암DMC(MBC, JTBC, tvN, YTN, TBS)가 바로 그곳이다.

상암동에 위치한 7개의 문화블록은 각자의 장르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긴다. ‘예술의 장소성’을 가장 잘 구현한 행사로 꼽히는 서울프린지페스티벌이 매년 여름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고, 문화비축기지 앞마당 컨테이너 건물에는 문화로놀이짙을 지휘자로 해 여러 사회적기업들이 등지를 틀고 있다. 상암DMC는 여의도를 잇는 우리나라 방송문화의 새로운 중심지다.

이곳은 자연환경도 탁월하다. 월드컵공원과 평화의공원 그리고 난지한강공원과 난지천공원을 따라 달리면 마라톤 단축 코스를 뛰는 정도의 거리가 나올 정도로 광활하다. 서울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공원으로 꼽히는 하늘공원에서는 억새밭을 걸을 수 있



© 서울문화재단

- 1 하늘공원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본 풍경. 월드컵경기장과 주변 공원이 보인다.
- 2 난지캠핑장.
- 3 하늘공원.
- 4 공중에서 본 문화비축기지.
- 5 문화비축기지에서 펼쳐진 〈서커스 카바레〉.

다. 정서 방향으로 흐르는 한강 위로 석양을 볼 수 있는 노을공원은 캠핑족들에게 더없이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한다.

이런 우월한 환경 속에서는 그 안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빛난다. 최근 문화비축기지에서 펼쳐진 〈서커스 카바레〉 무대를 보고 왔다. 문화비축기지는 석유비축기지의 기름 탱크를 복합 문화시설로 바꾼 곳으로 상암동 문화블록의 루키로 꼽힌다. 〈서커스 카바레〉 역시 서울프린지페스티벌과 마찬가지로 '예술의 장소성'을 살린 공연이었다. 마당의 넓은 무대는 접근성이 좋았고 탱크를 활용한 무대는 숲속에 고립되어 있어 공연에 집중하게 했다. 시설을 리노베이션할 때 장소의 역사성을 살리고 군더더기 없이 미니멀하게 통일해 어떤 행사나 공연도 무난하게 소화할 수 있게 했다.

문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를 기대한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7개의 구슬이 같은 주머니에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따로 놀고 있다는 것이다. 〈서커스 카바레〉가 열릴 때 월드컵경기장에서는 한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 열려 묘한 대비를 이뤘다. 그들의 우주와 이 우주가 다르고 거대한 고깃집이 된 난지캠핑장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캠핑족의 우주가 다르고 하늘공원에서 SNS에 올릴 사진을 찍는 청춘들의 우주가 또 달랐다.

물론 그 우주가 같을 필요는 없다. 그런데 나머지 우주가 너무 안 보이는 것은 좀 아쉬움이 있다. 자신의 구슬을 찾아 상암동에 오는 사람들에게 다른 6개의 구슬이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다면

그들의 우주는 더욱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한 우주에서 다른 우주로 연결된 터널이 있다면 그들은 기꺼이 그 터널을 지나 다른 우주를 탐험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상암동 문화시설의 특징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고립'이다. 하나하나가 기막힌 역할을 하는 곳인데 철저히 고립되어 있다.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가 그렇고 문화로놀이장이 그렇고 매년 한여름에 악전고투하는 서울프린지페스티벌이 그렇다. '기막힌 고립'이다. 그들의 작업을 시민들이 본다면 분명 호응이 클 텐데 접할 기회가 많지 않다. 시민들을 그곳으로 이끌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상암동의 문화적 잠재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이곳에 문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를 두면 어떨까. 그 지휘자로 처음 떠오른 곳은 바로 서울문화재단이다. 이미 대학로 이전이 확정되었지만, 상암동에서도 역할이 필요하다. 비유하자면 대학로가 보름달이라면 상암동은 초승달이다. 변화한 대중이 원하는 문화적 세련미를 구현 해주면서 다양한 실험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곳으로 서울문화재단 말고는 떠오르지 않는다.

상암동의 7개의 구슬을 모아주는 역할을 서울문화재단에 기대해 본다. 서울문화재단이 허브가 되어 그곳의 문화예술인들이 교류하게 된다면 절묘한 융합예술이 절로 나오지 않을까, 문화비축기지과 〈서커스 카바레〉처럼 플랫폼과 콘텐츠의 멋진 조합을 더 자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았다.

글 **고재열** 시사IN 편집기획팀장 · 사진 제공 **한계례**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인간성 회복을 촉구하다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평화로운 새 시대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한 요즘, 한때 소련의 작곡가라는 이유로 연주가 금지되었던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들이 더욱 큰 감동으로 다가온다. 예술을 당의 선전 도구로 이용했던 스탈린 치하에서 힘들게 작곡 활동을 한 쇼스타코비치의 음악 속에는 전쟁과 파시즘에 대한 경고, 인간성 회복에 대한 강렬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념 너머의 예술

오늘날 자주 연주되는 클래식 명곡 중에는 한동안 국내에서 연주가 금지되었던 곡들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구소련의 작곡가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의 작품들이다. 쇼스타코비치는 세계적인 작곡가임에도 그의 작품들은 이념적인 문제 때문에 한동안 연주될 수 없었다. 명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이 뉴욕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내한공연을 왔을 당시, 공연 레퍼토리에 포함된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필자 역시 어린 시절부터 쇼스타코비치의 이름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1988년이 되어서야 교향곡 제5번을 KBS교향악단의 실연으로 들을 수 있었다. 당시 그 음악회에서 받은 강렬한 인상과 깊은 감동은 아직도 가슴속에 살아 있다.

러시아제국의 수도 페테르부르크에서 태어나 음악신동으로 주목 받은 쇼스타코비치는 불과 19살의 어린 나이에 교향곡 제1번으로 '교향곡 역사의 새로운 한 페이지를 넘긴 작곡가'라는 찬사를 받았다. 하지만 1930년대 초 스탈린이 정권을 잡은 이후 소련의 권력자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강력하게 통제하면서 그 역시 소련 정부의 요청에 맞추어 자신의 음악 스타일을 바꿔야 했다. 당의 방침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의지를 꺾어야 했던 쇼스타코비치는 항상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았다. 당의 혹독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 표면적으로는 당의 요구에 맞는 작품을 쓰는 것처럼 가장하기도 했지만, 쇼스타코비치의 음악을 잘 들어보면 그 속에는 고통스런 세월을 견뎌낸 한 예술가의 진솔한 고백, 그리고 전쟁으로 먼저 떠나간 사람들을 그리워하는 깊은 슬픔이 녹아 있다.

전쟁도 음악을 막을 수 없다

쇼스타코비치가 남긴 15곡의 교향곡 가운데서도 <레닌그라드>라는 부제가 붙은 교향곡 제7번은 특히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 교향곡이 소련뿐만 아니라 미국 등 서방 세계에서도 큰 인기를 얻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1942년 3월 5일 쿠이비셰프의 문



화극전 강당에서 초연된 교향곡 제7번의 악보는 곧바로 마이크로필름에 담겨 이스라엘로 공수되었고, 영국에서는 6월 29일 헨리 우드에 의해 초연되었다. 당시 초연은 미디어를 통해 방송되기도 했는데, 교향곡의 연주 시간이 너무 길어서 전쟁 중에도 지켜진 9시 뉴스 시간이 바뀔 정도였다. 미국에서는 지휘자 토스카니니와 NBC오케스트라가 초연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 교향곡에 담긴 파시즘에 대한 경고, 인간성 회복의 강력한 메시지는 제2차 세계대전을 겪고 있는 서방 세계인들마저 감동시켰다.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제7번은 흔히 ‘전쟁 교향곡’이라 불린다. 이 곡이 1941년, 레닌그라드가 독일군의 포위로 위기에 처했을 때 작곡되었기 때문이다. 1941년 6월 22일, 독일의 나치군이 소련을 침략함으로써 불과 2년 전에 맺은 독·소 불가침 조약은 단숨에 무너졌고, 그해 8월 독일군은 레닌그라드(산트페테르부르크)를 포위하기 시작했다. 독일군의 진격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쇼스타코비치는 교향곡 제7번의 작곡에 몰두했다. 이미 많은 예술가와 주요 인사들이 레닌그라드를 떠났지만, 쇼스타코비치는 계속되는 피난 권유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레닌그라드에서 작곡을 계속했다. 그는 9월 17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한 시간 전 대규모 교향곡의 두 악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 이야기를 통해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 도시의 삶이 정상적으로 계속되고 있음을 아시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방송 이후에도 계속 레닌그라드에 남아 있던 쇼스타코비치는 당 지도부의 명령으로 어쩔 수 없이 10월 1일 가족들과 함께 모스크바로 떠났다. 그 후 모스크바에서 더 동쪽에 위치한 쿠이비셰

프를 피난처로 정했다. 바로 그해 12월 쇼스타코비치는 교향곡 제7번 〈레닌그라드〉를 완성했다.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제7번은 1942년 쿠이비셰프에서 초연된 후 여러 차례 연주되었지만, 1942년 8월 9일 레닌그라드에서 이루어진 초연 무대는 특히 감동적이었다. 당시 전쟁터에서 싸워야 했던 오케스트라 단원들 중 절반 정도는 이미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러나 연주가 가능한 단원들은 모두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을 연주하기 위해 콘서트홀로 모여들었고 그들에게는 특별 음식까지 제공됐다. 연주회 당일에도 독일군을 조용히 시키기 위해 소련군은 며칠 전부터 폭탄 세례를 퍼부었다. 이처럼 급박한 전쟁 상황 속에서도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은 음악을 통해 살아 있음을 느끼고자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제7번 〈레닌그라드〉를 연주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힘차게 연주된 교향곡, 마이크로필름 공수 작전으로 서방에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 교향곡. 그 어느 때보다 평화를 향한 열망이 강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제7번은 우리에게 더욱 특별한 메시지를 전한다.

글 최은규 서울대 음악대학 및 동 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부천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바이올린 부수석 및 기획홍보팀장을 역임했다. 월간 객석, 연합뉴스 등 여러 매체에서 음악평론가 및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으며, 예술의전당, 부천필 등에서 클래식 음악을 강의하고 있다.

그림 다나

남산 그리고 남산도서관

초여름의 산책

서울시민에게 남산이란 어떤 곳일까. 많은 영화와 드라마의 배경이었던 남산에는 남산타워와 케이블카, 일명 삼순이 계단과 산책로가 있어 서울의 바쁜 일상 속 심표를 찍을 수 있는 장소라는 인상이 강하다. 그런데 남산은 관광과 산책, 데이트하기 좋은 곳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오롯이 품은 장소이기도 하다.

늘 그 누군가의 공간이었던 20세기 남산

20세기의 남산은 늘 누군가에게 ‘빼앗긴 땅’이었다. 1882년 이후 서울에서 거주하기 시작한 일본인들은 지금의 충무로를 중심으로 그들의 영역을 확장해나갔고, 남산 일대에는 일본공사관, 통감부, 조선총독부뿐 아니라 경성신사와 동본원사 및 조선신궁 등의 종교시설들이 들어섰다. 특히 조선신궁은 남대문에서 남산으로 이어지는 강렬한 스펙터클을 형성하며 조선총독부 앞 광장 이상으로 식민지 풍경을 형성했다.

해방 이후 조선총독부 청사가 중앙청이 된 것과는 달리 조선신궁은 해방 다음날 바로 승신식(昇神式)이라는 폐쇄 행사를 통해 철거됐다. 1949년에는 조선신궁이 철거된 자리에 백범 김구 동상 건립을 추진하기도 했으나, 1956년 백범을 대신하여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이 들어섰다. 그러나 4년 후인 1960년 4·19혁명이 일어나 이승만의 독재는 막을 내리고 그의 동상 역시 철거됐다.

1960~70년대 남산은 국가 주도로 대형 건축물들이 건립되며 빠른 속도로 경관이 변해갔다. 조선총독부가 있던 자리에는 서울중앙방송국과 원자력원이 세워졌고 그 남측 일대에는 독재정권의 공포정치가 자행되던 중앙정보부 건물들이 들어섰다. 장충단공원 자리에는 국립극장을 비롯하여 남산자유센터와 타워호텔 등이 들어섰으며, 남산 1~3호 터널이 차례로 개통되었다. 조선신궁이 있던 자리에도 1969년 백범 김구의 동상이 세워졌을 뿐 아니라 남산도서관 및 어린이회관이 차례로 건축되었다. 이처럼 남



산은 교육과 문화의 중심이자, 반공과 방공의 상징인 동시에 독재정치의 공포가 서린 장소가 되었다. 누군가는 연인의 손을 잡고 데이트를 하러 가는 남산이, 누군가에게는 조용히 사라져버리고 마는 장소가 된 것이다.

1960~70년대 한국 건축 전시장

자연경관을 해치며 대형 건물들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선 1960~70년대의 남산은 눈부신 경제 성장과 함께 드러난 독재정치의 민낯을 오롯이 보여주는 도시공간으로서, 그 시대의 한국 사회를 집약해 보여줬다. 하지만 당시 건축가들에게 아마 남산은 기회의 땅이자, 자신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전시장 같은 공간이었을 것이다. 당시 활발히 활동하던 건축가들은 남산에 한두 개씩 자신이 설계한 건축물을 남겼고, 이 건물들은 산업화와 공업화, 그리고 한국성에 경도되어 있던 1960~70년대 한국 건축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김수근이 설계한 남산자유센터와 이희태가 설계한 국립극장, 국



- 1 수직과 수평 요소만으로 지어진 원자력원
- 2 콘크리트의 물성을 활용한 부드러운 곡선이 돋보이는 공보부 텔레비전 방송국.
- 3 4겹의 콘크리트 슬래브를 쌓아 만든 남산도서관. 현재의 모습은 2013년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거쳐 완성됐다.
- 4 도서관을 둘러싼 숲으로 난 작은 돌출창. 이 창을 통해 숲의 풍경이 내부로 들어온다.

악사양성소(현 공연예술박물관)가 한국성을 추구하는 문화시설이라는 특징을 보여준다면, 현재 애니메이션센터로 사용되는 김태식의 서울중앙방송국과 김정수의 원자력원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수직과 수평 요소만으로 이루어진 모더니즘 양식의 국제적 감각을 보여준다. 길 건너편의 공보부 텔레비전 방송국 역시 콘크리트의 물성을 활용한 부드러운 곡선이 아름다운 건축물이다.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반복적 사용이 돋보이는 이광노의 교육문화회관과 철근 콘크리트의 수평 슬래브가 강조된 이해성의 남산도서관은 철근 콘크리트를 사용한 공업화 건축의 특징들을 보여주는 건축물이다. 중앙정보부의 건축물들은 건축가가 알려져 있지 않고, 외관에서는 이렇다 할 건축적 특징을 찾아볼 수 없는데, 어쩌면 이는 그 건축물들의 숙명 아니었을까. 무표정하고 굳게 닫힌 외관은 내부의 숨겨진 고문실들과 지하통로 등 밖에서는 결코 알 수 없는 무언가를 감추고 있었을 테니.

많은 이들을 끌어주는 숲속의 도서관

남산 위를 가득 채운 건물들 중에서 유독 마음이 가는 건물이 있다. 크게 높지도 않고, 형태가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남산의 푸름 속에 박혀 있는 수평의 콘크리트 슬래브가 눈에 띄는 남산도서관이다. 백범광장을 지나 소월로를 따라 오르면 만나게 되는 남산도서관은 남산의 신록 속에 둘러싸여 유독 고요하게 느껴진다. 다소 무거워 보이는 콘크리트 슬래브가 4겹 쌓여 만들어진 이 건

물은 1960년대 유행했던 공업화 건축의 분위기를 잘 드러낸다. 도서관 개관 초기의 사진을 보면 아직 나무가 자라지 않아 다소 육중한 모습으로 주변을 압도하고 있는데, 50여 년의 시간이 지나며 주변의 수풀이 자라 이 관계가 역전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곳은 서울의 시립도서관 중 두 번째로 오래된 도서관으로, 일제강점기였던 1922년 공공도서관으로서는 처음 설치된 경성부립도서관을 그 기원으로 한다. 경성부립도서관은 1927년 소공동으로 자리를 옮겼고, 해방 후에는 남대문도서관으로 불리다가 1964년 지금의 위치로 이전했다. 이전 이후 '남산도서관'이라는 현재의 이름으로 불렸다.

개관 당시 1,602석의 열람석, 7,000여 권의 장서를 갖추었던 남산도서관은 오랫동안 시립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해왔다. 공공도서관이 지금처럼 많지 않았던 시절,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책을 보고픈 시민들은 남산도서관을 자주 이용했다. 산속에 위치해 교통은 조금 불편하지만, 남산순환로를 산책 겸 걸으며 도착한 남산도서관에서는 숲속에서 공부하는, 혹은 독서하는 기분을 즐길 수 있다. 도서관의 창들을 통해 도서관과 맞닿은 숲의 풍경이 고스란히 전해지며, 도서관 이용자들은 언제라도 바람 쐬러 남산으로 향할 수 있다.

글·사진 **이연경** 연세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건축역사이론 전공으로 석·박사를 취득했다. 한성부 내의 일본인 거류지에 대한 박사논문으로 제6회 심원건축학술상을 수상하였으며 한국도쿄모모, 도시사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한성부의 '적은 일본' 진고개 혹은 本町>이 있다.

양우석 감독의 <강철비>

분단을 그린 마지막 영화로 기록되길

‘영화보다 더 영화 같다.’ 극적인 현실을 두고 쓰는 낯은 말이지만, 최근 대한민국의 급변하는 현실을 보고 있다면 현실이 영화의 상상력을 앞서는 듯하다.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에서 농담 삼아 대통령으로 희화화되던 도널드 트럼프가 진짜 미국 대통령이 됐고, 대한민국에선 대통령이 된 전 대통령의 딸이 탄핵당했다. 게다가 17대, 18대 대통령이 모두 각종 비리로 구속됐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들이 참가했고, 북한에서 음악회가 열렸다. 10년 가까이 단절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남북 정상이 손을 맞잡은 채 종전 선언에 합의했다. 이 모든 게 근 1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는 게 어리둥절할 만큼, 우리는 빠르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영화보다 극적인 현실

남북정상회담의 순간, 남북 정상이 손을 꼭 잡고 월경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그리고 성명서를 통해 연내 종전 선언 합의라는 소식을 전했다. 어리둥절하게 웃다가 결국 울컥하고 말았다. 사실, 솔직히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불러왔지만 진심으로 통일을 기원하거나 상상한 적은 없었다. 휴전이라는 상황을 알고 매년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생활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음에도 종전 역시 상상 밖이었던 것 같다. <간첩 리철진>이나 <은밀

하게 위대하게>처럼 간첩을 주인공으로 하거나, <쉬리>, <공동경비구역 JSA>, <의형제>, <공조> 등 분단 상황을 빗대어 영화적 상상력을 펼친 영화는 많았지만, 통일 이후나 종전 상황을 상상하는 영화가 없었던 것도 이런 정서 때문인지 모르겠다. 분단이라는 비극적 상황을 전제로 ‘우리는 한 민족’이라는 정서적 교감을 바탕으로 하지만, 그 어떤 영화도 통일이라는 가장 극적인 상상력에 이르지 못했다. 악마의 손톱을 지닌 북한군이라는 소재로 반공 포스터를 그리고, 북한 지도자를 돼지로 묘사하는 데 서



숨없었던 <돌이장군>에 세뇌된 전후 세대들은 '공산당이 싫은' 이 승복 어린이를 모두 마음에 품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양우석 감독의 <강철비>는 핵을 무기로 세계를 위협하며, 그 정권을 유지해가고 있는 북한에서 쿠데타가 발생한다는 가장 극적이고, 있을 법한 상상력에서 출발한다. 분단 상황을 그린 영화 중에서 가장 논쟁적이고 발칙하지만, 있을 법하고 그럴 법한 현실감이 최대 장점이었다. 특수요원 엄철우(정우성)는 상부로부터 임무를 받고 잠복해 있다가 치명상을 입은 북한 1호를 보호한다. 남한까지 피신해온 그를 북한 정예요원이 뒤따르는 동안 남한의 외교안보수석 광철우(곽도원)는 북한 핵 미사일 발사를 앞두고 전 부인의 병원에 숨어든 엄철우 일행을 찾는다. 핵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을 앞두고 두 명의 철우는 손을 맞잡는다. <강철비>는 이제까지 분단을 소재로 한 영화들에서 볼 수 없었던 것들, 지독하지만 예상 가능한 상상력을 현실처럼 그린 영화다. 남과 북을 떠나, 누군가의 남편이며 아버지인 각각의 철우를 통해 정서적 연민까지 담아내며 공감을 이끌었다.

마음속 승복이를 내려놓고...

우리의 역사는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시작됐고, 3년이 지난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을 맺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남

한과 북한이 두 동강이 나, 한반도의 허리에 비무장지대와 군사분계선을 설치한 지 65년이 흘렀다. 전쟁을 겪은 세대와 고향을 잃은 세대, 전후 세대, 민주화항쟁 세대, IMF 세대, 촛불집회 세대가 모두 이 땅에 함께 살고 있다. 가장 발 빠르게 국경지대에 투기가 몰리고, 땅값이 치솟고 있다는 소식조차 종전의 예고편 같다. 언제 이렇게 달라졌을까? 부당함에 맞서고, 정의를 기원하며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들었던 촛불이 마치 나비효과처럼 벽찬 지금의 현실을 만들어낸 것은 아닐까 생각해본다.

곧 실현될 종전 선언과 또 앞으로 희망하는 통일까지 상상 가능한 시간이 왔다. 이왕이면 6월 25일이나, 7월 27일에 종전 선언을 하면 좋겠다. 그러면 그저 무겁고 묵직했던 6월이 희망의 달이 되는 것도 가능하겠다.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도 없어지고, 핵 위협이나 분단이라는 용어를 쓸 일도 없이 마음속 승복이를 모두 놓아주는 날이 올 거란 상상이 현실이 될 것 같다. 어쩌면 대한민국의 영화사와 역사가 <강철비>를 분단과 핵이라는 남북문제를 다룬 마지막 영화로 기록하는 날도 곧 오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글 **최재훈** 영화감독이 만들어낸 영상 언어를 지면 위에 또박또박 풀어내는 일이 가장 행복한 영화평론가. 현재 서울문화재단에서 근무하며 각종 매체에 영화평론과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2018

6



삼일로창고극장 재개관 기념공연 <빨간 피터들>

기간 6월 29일(금)~7월 22일(일)
 <빨간 피터들>은 당대 삼일로창고극장에서 <빨간 피터의 고백>을 선보여 큰 반향을 일으킨 추송웅 배우로부터 영감을 받아 시작된 프로젝트다. 4명의 참여 예술가는 '연극배우의 삶과 운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여 서로 다른 모노드라마를 통해 각자의 답을 풀어나간다.
 첫 번째 공연인 <추ing_낯선 자>는 신유청 연출이 자신의 페르소나라고 소개하는 배우 하준호와 호흡을 맞춰 1인 다역의 실험적인 모노드라마를 선보일 예정이다.

<추ing_낯선 자>

일시 6월 29일(금)~7월 1일(일)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3시
장소 삼일로창고극장
관람료 전석 2만 원
문의 02-758-2150

SFAC 문화예술공간

■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 금천예술공장
 ■ 남산예술센터
 ■ 남산창작센터
 ■ 대학로연습실
 ■ 문래예술공장
 ■ 서교예술실험센터
 ■ 서서울예술교육센터
 ■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 서울무용센터
 ■ 서울연극센터
 ■ 서울예술치유허브
 ■ 시민청·시청
 ■ 신당창작아케이드
 ■ 연희문화창작촌
 ■ 잠실창작스튜디오

■ SFAC 문화철도
 ■ SFAC 축제/예술교육
 ■ 지역문화팀
 ■ 메세나팀
 ■ 기타 문화행사

MON

TUE

WED

4

■ 전시 <바람 불면은 괜찮아요 :
 낯선 만남 다른 대화의 위로>(~6.4)

5

■ <피플스 초이스 프로젝트展>(~6.17)
 ■ <사갈 러브 앤 라이프展 :
 그것은 사랑의 색이다>(~9.26)

6

■ **현충일 기념행사**
 ■ 국립무용단 <향연>(~6.9)
 ■ 제2회 크리티क्स 초이스 댄스 페스티벌 2018(~6.14)
 ■ 음악극 <태일>(~6.18)
 ■ 어린이 뮤지컬 <무적의 삼총사>(~7.15)
 ■ 가족뮤지컬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8.19)

11

■ 전시 <침에 대한 고찰>(~6.11)

12

■ 2018 안익태기념음악회
 <나의 조국, 나의 노래>
 ■ 전시 <우리 목가구의 멋과 아름다움>(~6.19)
 ■ 정동극장 기획공연 뮤지컬 <판>(~7.22)

13

■ 2018 수지오페라단
 오페라 <라 보엠>(~6.15)

18

■ 전시 <The Yeamers :
 동경(憧憬)하는 자들>(~6.18)

19

■ **이마에스트리 제13회 정기연주회**
 (부제: 남자 성악가로 살아가기 II)

20

■ 전시 <데스 브로피 : 인생은 아름다워>(~6.20)
 ■ 전시 <BOTANICA : Purple Elephant>(~6.20)
 ■ <대한민국 新예술인展>(~6.28)
 ■ 뮤지컬 <프랑켄슈타인>(~8.26)

25

■ 전시 <익숙하거나, 혹은 낯선>(~6.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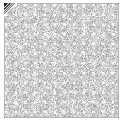
26

■ 2018 아트홀가갯고을 봄기획공연
 <청춘다움337>, <2인국악제>(~6.26)

27

문화가 있는 날

■ 국악콘서트 <다담>
 ■ 스토리텔링 오페라 페스티벌(~6.29)



THU

FRI

SAT

SUN

1

- 뮤지컬 〈바보사랑〉(∼6.1)
- 콘서트 · 오페라 〈백년의 약속〉(∼6.2)
- 〈청춘가악 The Best Collection〉(∼6.2)
- 〈안은미의 북.한.춤〉(∼6.3)
- 제2회 여성사진페스티벌 2018 〈통통하는 여자〉(∼6.8)

2

- 국악뮤지컬 〈문지기 문지기 문열어라〉(∼6.2)
- 전시 〈자비에 루케지 : THE UNSEEN〉(∼6.2)
- 무용 〈가족놀이〉(Like family)(∼6.3)

3

- 연극 〈베르나르다 알바의 집〉(∼6.3)
- 〈정경화 바이올린 리사이틀〉
- 연극 〈바람직한 청소년〉(∼6.3)
- 전시 〈소리×글자: 한글디자인〉(∼6.3)
- 종로문화재단 무계원- 한국의 美 ⑧ 〈안성맞춤〉 기획전시(∼6.3)
- 전시 〈씨실과 날실로〉(∼6.3)

7

- 〈지브리 필름 앤 뮤직 페스티벌 with 어쿠스틱카페〉
- 전시 〈Hi, ice cream: "아이스크림에 빠지다"〉(∼9.7)

8

- 〈빅토리아 물로바 & 제네바 카메라타〉
- 전시 〈Innto Drawing 36. 점점 느리게 그리고 여러게, 점점 사라지듯이〉(∼6.24)
-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한국어 버전 10주년〉(∼8.5)
- 〈몸 주제展: 일부러 불편하게〉(∼8.19)

9

- 공연 〈알란 스미시의 휴일〉(∼6.10)
- 전시 〈A room of one's own- 자기만의 방〉(∼6.26)
- 한마음 살림장
- 유니버설발레단 〈발레 춘향〉(∼6.10)
- 뮤지컬 〈라흐마니노프〉(∼7.8)

10

- 연극 〈만리향〉(∼6.10)
- 전시 〈성좌의 변증법: 소멸과 댄스플로어〉(∼6.10)
- 전시 〈제주 4·3 이전 우리의 역사〉(∼6.10)
- 국립극단 연극 〈페스트〉(∼6.10)
- 전시 〈IN_D_EX : 인덱스〉(∼6.10)

14

- 토마스 오스터마이어 연출 〈리처드 3세〉(∼6.17)
- 제2회 대한민국 민화 아트페어(∼6.17)
- 전시 〈영월에 가면 박물관이 보인다〉(∼6.20)
- 연극 〈리얼게임〉(∼7.1)

15

- 뮤지컬 〈식구를 찾아서〉(∼6.17)
- 국립현대무용단 스웨덴 커넥션 I(∼6.17)
- 전시 〈소년 김부연, 그가 바라본 아이〉(∼6.24)
- 청소년극 〈죽고 싶지 않아〉(∼7.1)

16

- 바스락콘서트
- 전시 〈폴리곤 플래시 OBT〉(Polygon Flash OBT)(∼6.16)
- 전시 〈히든 워크스〉(∼6.16)

17

- 〈레이 첸 바이올린 리사이틀〉
- 전시 〈기억하거나, 망각하는 Remembering, or Forgetting〉(∼6.17)

21

- 〈2018 한국 현대공예 원로 · 정예작가 10인전〉(∼6.21)
- 2018 키우피우 인형극축제(∼7.7)
- 뮤지컬 〈브로웨이 42번가〉(∼8.19)

22

- 와이즈발레단 〈Baroque goes to Present〉(∼6.23)
- 국립발레단 〈안나 카레니나〉(∼6.24)
- 국립국악원 〈화옹도 타령-타고 남은 적벽〉(∼6.27)
- 전시 〈앨리스 인 원더랜드〉(∼2019.3.3)

23

- 한마음 살림장
- 서울시향 2018 실내악 시리즈 III
- 2018 〈완창판소리〉-정신예의 〈심청가_동초제〉

24

- 〈세젤예展: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나〉(∼6.24)
- 전시 〈THE OTHER SIDE〉(∼6.24)
- 오페라 콜라주 〈카사노바 길들이기〉(∼7.1)

28

- 국립오페라단 〈유쾌한 미망인〉(∼7.1)

29

- 국립국악관현악단 〈모던 국악 기행 - 제주 · 서도의 흥〉
- 전시 〈허육 : 침침〉(∼6.29)

30

- 토요일은 청이 좋아 합합 in 시민청!
- 연극 〈룸넘버13〉(∼6.30)
- 2018 토요일국악동화 〈마쁘와 신기한 돌〉(∼6.30)
- 〈니키 드 생팔展_마즈다 컬렉션〉(∼9.25)

01 FRI



〈안은미의 북.한.춤〉

이 작품은 '우리는 본래 같은 춤을 추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관습의 틀을 깨는 도발적인 춤꾼 안은미는 북한의 몸짓을 주목해 전통적 움직임의 미래상을 그려낸다. 탈춤, 부채춤, 칼춤 등 다양한 춤사위를 안은미만의 언어로 재해석해 전통 춤의 어제와 오늘, 나아가 남과 북을 잇는 무대를 선보인다.

일시 6월 1일(금)~3일(일)
금·토 오후 8시, 일 오후 5시
장소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관람료 R석 3만 원, S석 2만 원
문의 02-747-3880

02 SAT



국악뮤지컬

〈문지기 문지기 문열어라〉

누렁지 장사를 하는 아빠를 마중 나가는 여정을 그린 어린이 국악 뮤지컬. 퀴즈도 함께 풀고 전래동요도 같이 부르는 등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관객 참여형 공연을 통해 전래동화와 전통 가락을 배울 수 있다.

일시 ~6월 2일(토)
금 오전 10시 20분 · 11시 30분,
토 오전 11시 · 오후 2시
장소 남산골한옥마을 서울남산국악당
관람료 전석 2만 원
문의 02-6224-9039

03 SUN



2018 서울메세나 지원사업 선정작

〈베르나르다 알바의 집〉

자유를 향한 열망이 빚어낸 비극적 서사시 〈베르나르다 알바의 집〉은 베르나르다 알바의 집에서 사는 여성들이 자아와 정체성을 찾기 위해 '집'으로부터의 탈출을 꿈꾸는 이야기다.

일시 ~6월 3일(일) 평일 오후 7시 30분,
토 오후 4시 · 7시, 일 오후 4시
장소 대학로 공간 아울
관람료 3만 원(자유석)
문의 극단 시선 010-4003-6504

04 MON



2018 갤러리 맷음 후원 전시

〈바람 불면은 관창아요 : 낮선 만남 다른 대화의 위로〉

서울예술치유허브 갤러리 맷음 후원 전시 세 번째. 발달장애 작가 5인의 작품을 통해 삶의 상처를 치유하고 지친 영혼을 위로받을 수 있다.

일시 ~6월 4일(월)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관)
장소 서울예술치유허브 갤러리 맷음
관람료 무료
문의 02-943-9300

05 TUE



〈사갈 러브 앤 라이프展 : 그것은 사랑의 색이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화가인 사갈의 사랑에 대한 순수한 열망을 보여주는 전시다. 자화상, 초상화, 동판화 등 15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일시 6월 5일(화)~9월 26일(수)
오전 11시~오후 8시
(6월 25일 휴관)
장소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관람료 성인 1만 5천 원, 청소년 1만 1천 원,
어린이 9천 원
문의 02-332-8011

06 WED

현충일 기념행사

현충일을 기념하여 순국선열을 기리는 추모 시 낭독과 추모 무용 공연, 영화 상영 등이 진행된다.

일시 6월 6일(수)
장소 시민청 활짝라운지(B1)
관람료 무료
문의 02-739-0057



국립무용단 <향연>

<향연>은 12개의 전통 춤을 기품 있는 무대 연출로 담아내 관객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이다. 한국 춤의 대가들이 궁중정재부터 종교의식무, 민속무용까지 한국 춤의 과거와 현재를 무대 위에서 선보인다.

일시 6월 6일(수)~9일(토)
수·토 오후 3시, 목·금 오후 8시
장소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관람료 R석 7만 원, S석 5만 원,
A석 3만 원, B석 2만 원
문의 02-2280-4114



음악극 <태일>

노동운동가로 활동하다 노동 처우 개선을 외치며 분신자살한 청년 전태일을 다룬 극. 청년 '태일'이 남기고 싶었던 진짜 목소리를 만나는 시간이다.

일시 6월 6일(수)~18일(월)
평일 오후 8시,
주말·공휴일 오후 3시·7시
(6일 오후 3시 공연 없음)
장소 프로젝트박스 시아
관람료 전석 3만 원
문의 02-391-8223



어린이 뮤지컬 <무적의 감동사>

사랑받고 싶지만 자신들의 마음을 몰라주는 어른들로 인해 상심해 있던 아이들은 서로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한다. 학교와 집을 배경으로 일상에서 겪을 법한 이야기와 진지한 대화들이 이어져 아이들의 일상과 심리를 생생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

일시 6월 6일(수)~7월 15일(일)
토 오후 1시·4시, 일 오후 3시
(6월 6일·13일 오후 3시,
27일 오후 4시)
장소 학전블루 소극장
관람료 성인 2만 원, 어린이 1만 5천 원
문의 02-763-82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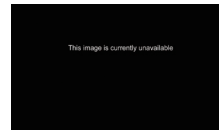
가족뮤지컬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보금자리를 잃은 농장 동물들이 동물원에 오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이야기한다. 최첨단 효과를 이용해 애니메이션 속 세상에 들어온 듯한 화려한 무대를 선사한다.

일시 6월 6일(수)~8월 19일(일)
수~금 오후 4시,
주말·공휴일 오전 11시 30분
· 오후 2시·4시
장소 대원 콘텐츠 라이브
관람료 전석 4만 원
문의 070-4137-5065

09 SAT



2018 유망예술지원MAP 송주호

<알란 스미시의 휴일>

서울 문래동에 사는 알란 스미시는 평소 정의감이 강한 별목꾼이다. 불의에 타협하지 않으며 악인을 가차없이 처벌하는 성격 탓에 이웃들로부터 반감을 사고 있다. 어느 날 알란은 동네 철공소에서 총을 불법 제조한다는 소문을 듣게 된다. 소문의 근원지를 찾던 그의 욕망이 부추긴 우발적인 사고로 한 사람이 죽게 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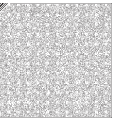
일시 6월 9일(토)~10일(일)
오후 8시~9시
장소 문래예술공장 M30
관람료 무료(선착순 예매, <https://goo.gl/forms/3nmBIPVPp0DKBTF83>)
문의 02-2676-4333

2018 갤러리 맺음 후원 전시

<A room of one's own—자기만의 방>

서울예술치유허브 갤러리 맺음 후원 전시 네 번째. 작가가 수집한 휴식의 방법을 관객과 작품으로 나눈다.

일시 6월 9일(토)~26일(화)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관)
장소 서울예술치유허브 갤러리 맺음
관람료 무료
문의 02-943-9300





한마음 살림장

청춘여가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여가와 라이프스타일 중심의 큐레이팅 체험·참여 장터 '클라스마켓'이 6월 9일 열린다. 23일에는 시민이 직접 만든 수공예품과 각종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시민참여형 소통장터가 개최된다.

일시 6월 9일(토) 오후 12시~6시,
23일(토) 오전 11시~오후 6시

장소 시민청 시민플라자(B1)

관람료 무료

문의 02-739-7331



유니버설발레단 <발레 춘향>

차이콥스키의 유려한 선율 위에 펼쳐지는 한국의 아름다운 고전 명작을 만날 수 있다. 춘향과 몽룡의 가슴 떨리는 사랑과 이별 그리고 재회를 예술감독 유병현, 의상 디자이너 이정우가 한층 더 세련된 무대로 선보인다.

일시 6월 9일(토)~10일(일)
토 오후 7시, 일 오후 3시

장소 예술의전당 CJ 토월극장

관람료 R석 8만 원, S석 6만 원,
A석 3만 원

문의 070-7124-1737



뮤지컬 <라흐마니노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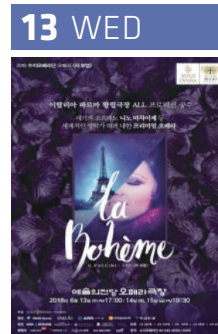
정신의학자 니콜라이 달 박사가 라흐마니노프의 심리 속으로 들어가 그를 힘들게 하는 트라우마를 찾는 내용을 담은 뮤지컬. 낭만주의 음악가 라흐마니노프의 서정적인 음악을 직접 들을 수 있다.

일시 6월 9일(토)~7월 8일(일)
평일 오후 8시, 토 오후 3시·7시,
일 오후 2시·6시(월 공연 없음)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내 극장용

관람료 R석 6만 6천 원, S석 5만 5천 원,
OP석 4만 4천 원, A석 3만 3천 원

문의 02-588-7708



2018 수지오페라단 오페라 <라 보헤>

19세기 파리, 지독한 가난을 극복하며 자신의 꿈과 사랑의 실현하기 위해 살아가는 젊은 예술가들을 그린 작품이다. 18세기 유럽의 거리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사실적인 무대와 75인조로 구성된 대규모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사운드, 100여 명에 달하는 합창단과 연기자가 선보이는 풍성한 볼거리가 돋보인다.

일시 6월 13일(수)~15일(금)
수 오후 5시, 목·금 오후 7시 30분

장소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관람료 R석 38만 원, S석 28만 원,
A석 15만 원, B석 9만 원,
C석 6만 원, D석 3만 원

문의 02-542-0350



토마스 오스터마이어 연출 <리처드 3세>

셰익스피어의 초기 걸작으로 손꼽히는 <리처드 3세>는 영국 요크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던 실존 인물 리처드 3세를 다룬 작품으로, 독일 연출가 토마스 오스터마이어의 연출로 무대에 오른다. 기형적인 신체로 태어나 형제와 조카들을 무자비하게 제거하며 왕좌를 차지했지만 결국 리처드 백작 헨리 튜더에 의해 최후를 맞는 과정을 그린다.

일시 6월 14일(목)~17일(일)
평일 오후 8시, 토 오후 7시,
일 오후 3시

장소 LG아트센터

관람료 R석 8만 원, S석 6만 원,
A석 4만 원

문의 02-2005-0114

15 FRI



2018 서울메세나 지원사업 선정작
〈식구를 찾아서〉

발랄한 꽃할매 듀오와 똥끼 넘치는 반려동물 삼총사가 삶의 아마추어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동화적이면서도 재치가 만발한 상상력으로 온 가족이 웃음과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창작 뮤지컬이다.

일시 6월 15일(금)~17일(일)
금 오후 8시, 토 오후 2시·6시,
일 오후 2시
장소 코엑스 컨퍼런스룸 401호
관람료 R석 4만 원, S석 2만 5천 원
문의 02-2278-5741



청소년극 〈죽고 싶지 않아〉

국립극단의 기존 공연들과 달리, 춤을 통해 신체성과 역동성을 극대화한 작품이다. 원시적인 삶의 충동, 생명의 욕구를 담은 상상력 넘치는 춤의 언어가 청소년의 언어와 만나 무대를 그들만의 에너지로 가득 채운다.

일시 6월 15일(금)~7월 1일(일)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3시 30분
(화 공연 없음)
장소 백성희장민호극장
관람료 전석 3만 원
문의 1644-2003

16 SAT

바스락콘서트

1984년 망원동 수해사건을 배경으로 한 공연예술창작터 '수다'의 마당극 〈그때 그 망원동 1984 시절〉이 펼쳐진다.

일시 6월 16일(토)
장소 시민청 바스락홀(B2)
관람료 무료
문의 02-739-7331

19 TUE



2018 서울메세나 지원사업 선정작
〈이마에스트리 제13회 정기연주회〉
(부제: 남자 성악가로 살아가기 II)

남성 성악가로 구성된 이마에스트리가 한 국전쟁을 음악적으로 재해석한다. 전쟁이 남긴 이름 모를 용사의 비문이 적힌 〈비목〉을 군가 〈전선을 간다〉와 함께 부르고, “찢기는 가슴 안고 사라졌던 이 땅의 피울음 있다”는 가사로 시작되는 〈광야에서〉를 노래한다.

일시 6월 19일(화) 오후 8시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관람료 R석 16만 원, S석 11만 원,
A석 8만 원, B석 3만 원
문의 02-352-5824

20 WED



뮤지컬 〈프랑켄슈타인〉

19세기의 천재 작가 메리셸리가 1818년 19살의 나이에 놀라운 상상력으로 탄생시킨 과학소설의 고전 〈프랑켄슈타인〉. 눈을 땔 수 없는 스토리와 웅장한 무대로 3년 만에 다시 돌아왔다.

일시 6월 20일(수)~8월 26일(일)
화·목·금 오후 8시,
수 오후 3시·8시,
주말·공휴일 오후 2시·7시
(월 공연 없음)
장소 블루스퀘어 인터파크홀
관람료 VIP석 14만 원, R석 12만 원,
S석 9만 원, A석 6만 원
문의 02-1544-1555

21 THU



2018 키우피우 인형극축제

아이들극장이 선보이는 국내 우수 인형극 시리즈다. 복합 멀티미디어 공연 〈깡깡나루〉, 테이블 인형극 〈괴물 신드롬〉, 판타지 음악 인형극 〈안녕! 도깨비〉가 무대에 오른다.

일시 6월 21일(목)~7월 7일(토)
장소 아이들극장
관람료 전석 2만 원
문의 02-2088-4290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뉴욕 브로드웨이 공연계를 생생하게 담은 뮤지컬. 꿈과 노력, 희망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다. 화려한 의상과 무대, 압도적인 탭댄스 군무 등 볼거리가 가득하다.

일시 6월 21일(목)~8월 19일(일)
화·목·금 오후 8시,
수 오후 3시·8시,
토 오후 3시·7시 30분,
일 오후 2시·6시 30분

장소 예술의전당 CJ 토월극장

관람료 R석 13만 원, OP석 12만 원,
S석 9만 원, A석 6만 원

문의 1588-5212

**와이즈발레단****<Baroque goes to Present>**

2005년 창단해 국내외에서 연간 100여 회 공연하고 있는 와이즈발레단이 바로크 음악과 발레의 만남을 선보인다.

일시 6월 22일(금)~23일(토)
금 오후 8시, 토 오후 5시

장소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관람료 R석 5만 원, S석 3만 원

문의 02-703-9690

**오페라 콜라주 <카사노바 길들이기>**

오페라 콜라주는 기존 오페라에서 유명한 아리아, 앙상블, 합창곡들을 골라 새로운 스토리로 엮어 선보이는 공연이다. 모차르트의 <돈 조반니>, <피가로의 결혼>, 도니체티의 <사랑의 묘약> 등이 한 이야기 속에 울려 퍼진다.

일시 6월 24일(일)~7월 1일(일)
평일 오후 7시 30분,
주말 오후 2시·7시
(24일은 오후 7시 공연만 있음)

장소 여의도 KBS홀

관람료 VIP석 12만 원, R석 10만 원,
S석 7만 원, A석 3만 원

문의 02-3443-9482~3

**국립오페라단 <유쾌한 미망인>**

폰테베드로라는 가상의 작은 나라에서 프랑스 파리로 건너온 미망인, 한나의 재혼을 막으려는 소동을 그린 작품이다. <입술은 침묵하고>, <오, 조국아> 등 익숙한 선율의 아리아로도 유명한 이 작품은 뮤지컬의 재미와 화려함을 뛰어넘어 오페레타만의 색다른 묘미를 선사한다.

일시 6월 28일(목)~7월 1일(일)
목·금 오후 7시 30분,
주말 오후 3시

장소 LG아트센터

관람료 R석 12만 원, S석 10만 원, A석 8만 원,
B석 4만 원, C석 2만 원

문의 02-580-3500

**국립국악관현악단****<모던 국악 기행 - 제주·서도의 흥>**

우리나라 지역별로 떠나는 음악 여행. 이번 공연에서는 남도·강원·영남, 제주·서도 지역의 대표적인 전통음악과 지역별 음악을 토대로 새롭게 작곡된 현대음악을 함께 들려준다.

일시 6월 29일(금) 오후 8시

장소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관람료 R석 3만 원, S석 2만 원

문의 02-2280-4114

**<니키 드 생팔展_마즈다 컬렉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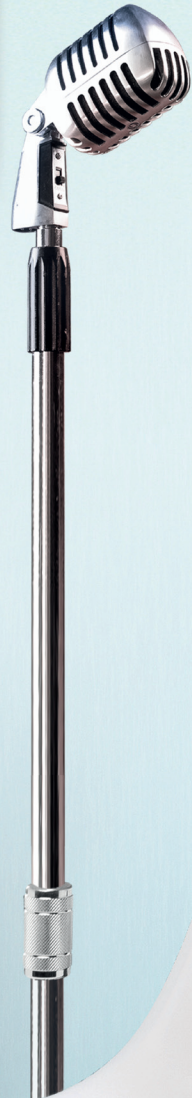
자유로운 기쁨의 에너지와 현실을 향한 날카로운 통찰을 동시에 담은 니키 드 생팔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요코 마즈다 시즈에의 소장품 127점을 선보인다. 니키 드 생팔의 예술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일시 6월 30일(토)~9월 25일(화)

장소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관람료 성인 1만 4천 원, 청소년 1만 원,
어린이 8천 원, 유아 6천 원

문의 02-580-1300



시민청이 또 생겼다!
동북권에 잘 생겼다!

삼각산 시민청

공연, 전시, 토론 등
다양한 시민소통공간!

시민이 주인이 되어 함께 만드는
삼각산 시민청으로 초대합니다.



1동

공연, 전시,
북카페 등

2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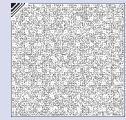
토론, 워크숍,
휴게공간 등

4.28.개관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에서 내리면 바로 연결!

삼각산시민청





함께 만들어갑니다 [문화+서울] 웹진 [문화+서울] www.sfac.or.kr/munhwaplusseoul

좀 더 나은 [문화+서울]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가장 좋았던 기사나 지적하고 싶은 점, 제안하고 싶은 것들, 어떤 의견이든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분들께 [문화+서울]을 1년 동안 보내드립니다.

독자 엽서

5월호 독자의견

[문화+서울]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감되는 의견을 보내주시는 분들을 뽑아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을 1년 동안 보내드립니다.

1. 어디에서 [문화+서울]을 만나셨나요?

정동극장에 공연 관람을 갔다가 매표소 앞에서

2. [문화+서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기사는 무엇인가요?

소리꾼 김준수 인터뷰 기사, 5월의 공연 일정 캘린더. 김준수 씨를 더 잘 알게 되었음.

3. [문화+서울]에서 다뤄주었으면 하는 내용이나 편집부에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80여 쪽 분량에 문화(서울)에 대한 모든 것을 다루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독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소개 부탁드립니다. '테마 토크'는 차월의 주요 행사와 어울리는 내용을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진 님(경기도 과천시)

1. 어디에서 [문화+서울]을 만나셨나요?

정동극장에 공연 관람을 갔다가 매표소 앞에서.

2. [문화+서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기사는 무엇인가요?

소리꾼 김준수 인터뷰 기사, 5월의 공연 일정 캘린더. 김준수 씨를 더 잘 알게 되었음.

소리뿐만 아니라 예술인으로서 지향하는 목표에 대하여.

3. [문화+서울]에서 다뤄주었으면 하는 내용이나 편집부에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80여 쪽 분량에 문화(서울)에 대한 모든 것을 다루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독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소개 부탁드립니다. '테마 토크'는 차월의 주요 행사와 어울리는 내용을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집 후기

편집부 모두 유경 씨를 격하게 환영합니다.

지구에서 가장 멋진 잡지를 만들어봅시다!!!

이규승 서울문화재단 미디어팀장

시작이 반, 뜨거운 출발입니다!!

방유경 서울문화재단 미디어팀

새 식구를 환영합니다.

전민정 객원 편집위원

[문화+서울]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지는 무가치로 발간되므로 별도의 구독 요청이 불가합니다. 주요 배포처에 방문하셔서 비치된 잡지를 무료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4인용 식탁

더 즐겁고 더 행복한

주요 배포처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국립극장,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 금천예술공장, 남산예술센터, 남산창작센터, 동송아트센터, 대학로연습실, 두산아트센터, 문래예술공장, 백성희장민호극장, 백암아트홀, 상명아트센터,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울도서관, 서울무용센터, 서울문화재단,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 및 문화원,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연극센터, 서울예술치유허브, 시민청, 신당창작아케이드, 아르코미술관, 연희문화창작촌, 예술가의 집, 잠실창작스튜디오, 정동극장, 중랑아트갤러리, 하자센터, 한국공연예술센터, 한전아트센터, KT&G 상상마당, LG아트센터 등



새로운 창고극장 FOLK 20180622

대관문의

02-758-2130

www.nsac.or.kr

오마
새문화
재단

삼천리창극장